금주 법구

오지 않는 것을 탐하여 찾고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메어진 갈잎처럼 시들고 만다.

-근본경전-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2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 349 호

뉴스속 뉴스 news in news

더 깊은 산으로 간 영자

수소문 끝에 강원도 산골의 그 절을 찾아 간 시간은 해가 질 무렵. 조용히 법당에서 삼배를 하고 나오니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건너편 요사채를 향해 걸고 있었다.

"스님 "

"뉘시오?"

"영자양이 행자 생활하는 곳이 이 절 맞습니까?"

순간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급방이라도 화를 낼 것 같았다.



◇영자가 출가한 강원도 소재 사찰.

"그 사람 지금 이 절에 없어요. 보냈어요. 사람들이 아는체 하고 찾아오니 이곳에 있을 수 있나요. 그저 없는 듯이 살게 내버려 두면 이때에서 "

"어디로 갔나요?"

"또 괴롭히려고요? 찾지 마세요. 다른 스님과 상의해서 더 깊은 산으로 보냈어요."

그 절에 도혜행자가 온 뒤로 스님과 본인 모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단다. 언론의 집요한 취재 요청과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조차 영자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

도혜 행자의 절 생활에 대해서 묻자 스님은 아예 산문 밖을 향해 걸었다. 때문에 기자는 몇 마디 질문을 하며 스님을 따라 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불가(佛家)와 인연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이고 경을 빨리 외웠고 염불도 곧잘 해요. 목청도 좋고요. 잊을 것은 잊고 새로운 것에 열중하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 아무튼 그 사람이 잘 정진 하도록 세상이 가만 놔 두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도 받고 체 갈 길을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산골소녀가 더 깊은 산사로 들어가고 없는 그 절이 산그늘 속으로 잠겨들었다.

임연태(뉴미디어부 부장)

장 군 죽 비

◇중앙승가대 2002년 신입생 미달 사태. 역경학과 1명 지원 폐과 의기. 공부가 싫기는 승속에 차별이 없는 것인가. (2면)

◇해(日)가 해맑은 건 바닷물에 몸 씻기 때문. 새 마음으로 새해(年) 맞음은 이 마음 청정하기 때문(연말연시 기도처 안내). (9면)

◇익산시 미륵사 복원 계획, 문화재청의 '철저한 고증' 원칙에 제동. 챗밥(관광지화)보다 염불(고증)이 중요한 걸 왜 몰랐을까. (16면)

◇파라미타 부산지부 부산시 초 · 중 · 고 교사들에게 명상법 강의. 부처 닮은 선생님에 어찌 문제아가 있으랴. (23면)

"인도불교 복원 돕자"

종단협 · 우리는선우 · 재가연대 공동캠페인
불교방송 · 불교TV · 현대불교 '후원'

불교 발생지 인도에서 맥이 거의 끊겼던 불교가 다시 소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계가 인도불교 복원을 돕기위해 나섰다.

불교종단협의회, 우리는 선우, 한여불교재가연대는 최근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 등 3대 불교언론사의 공동후원으로 인도 불교계와의 교류지원 등을 통한 인도불교 재건에 뜻을 모으고 범불교적인 '인도불교 돕기 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 공동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4일 델리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만여명이 불교로 개종하는 등 불가촉천민을 중심으로 인도불교 중흥의 단초가 열리는 시점에서, 불가촉 천민의 의료 복지 교육지원과 불교교육, 신행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류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도 대사관의 자문과 현지조사를 통해 캠페인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인도 땅에 다시 불심이 싹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방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관심과 지원약속이 있었다"며 "더욱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문의, 인도불교 돕기 임시사무국=02)745-7799.

관련기사 22면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자선냄비에 보시 20일 오후 종로 거리를 걷던 두 스님이 세말의 따뜻함을 나누는 마음으로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YMCA앞 자선냄비에 보시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종교간의 화합과 나눔의 아름다움이 자절로 느껴진다.

사진= 고영배기자

"전쟁·빈곤 해소 노력"
정대 스님 성탄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20일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2000만 불교도와 함께 경축한다"며 "성탄절을 맞아 인간의 어리석음 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마음을 함께 갖자"고 밝혔다.

스님은 또 " 전쟁과 빈곤 해소'는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종교계의 사회적 노력과 종교적 노력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한 일임을 함께 공감한다"고 밝혔다.

10여 사찰 축하 현수막

한편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 서울 관문사,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김제 금산사, 파주 보광사, 과천 연주암, 왜관 각원사 등 전국 10여개 사찰도 각각 사찰 앞 도로에 축하 현수막을 내걸어 종교화합을 염원했다. 김원우 기자

암매장 성행 … 불법묘지 2천여기
도로개설 · 도시개발로 경관 해쳐

신음하는 '경주 남산'

지난 해 12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로부터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 받은 경주 남산이 각종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 발달에 따른 건축, 도로 개설 등으로 경관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불법 개인 분묘가 마구잡이로 들어서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경주 남산은 지난 71년 경주 국립공원 남산 지구와 85년 사적 311호로 지정돼 발굴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20일 경주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산로 주변과 계곡 곳곳에 개인 분묘 2천여기가 불법으로 들어서 있다고 한다. 절터나 불상 등 유적지 주변에 들어서 있는 분묘도 1천 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시 개발에 따른 경관 파괴도 심각하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강태호 교수와 김구석 남산연구소장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정부가 남산을 에워싼 도로의 고속도로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또한 "남산 곳곳에 초와 향, 음식물 등의 무분별한 종교 활동과 각종 편의 시설 설치로 자연미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산 내 사찰들의 슬레이트와 콘크리트를 이용한 무분별한 증축 보수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한 남산 보존 정비 종합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남산 일원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국회 불교예산 144억 확정

역사기념관 건립 70억
템플스테이 사업 10억

새해 정부예산 가운데 불교관련예산 144억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 111조9천792억원(일반회계)을 확정했다. 이중 불교관련예산(문화재 관련예산 제외)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지원 70억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 51억원, 전통사찰 숙박시설 활용(템플스테이)사업 10억원, 문화재조사비 5억원, 해외포교사 한국문화체험 4억, 사찰오폐수 설치비 4억등 총 144억원이다.

특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및 템플스테이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김기재 연등회장은 "21일 예결위 마지막 회의에서 불교관련 예산이 약간 삭감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당초 책정되지 않는 템플스테이 예산이 편성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거북 수입 금지
생태계 위해 동물 지정

'붉은 귀거북'(일명 청거북)이 생태계 위해 동식물로 지정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붉은 귀거북을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 위해동물로 지정,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환경부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가 공동으로 한강과 서울시 생태공원 등 13곳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거북은 천적이 없는 국내 하천에서 마구라지, 피라미는 물론 자라와 뱀, 황소개구리까지 잡아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청거북이 전국적으로 1천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직지심체요절 세계 最古 금속활자"
美 의회 도서관 인정



세계 최대 도서관인 미국 의회 도서관이 '의회 도서관의 세계 보물들: 초기 유물들'이라는 특별전을 열면서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사진)을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로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했다.

도서관측은 20일 큼지막한 '직지' 사진과 함께 게재한 특별전 안내 광고에서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구텐베르크가 1445년 세계를 바꿔 놓았다고 배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보다 200년 앞서 동쪽으로 8천km나 떨어진 곳에서 한국인들이 독자적인 활자를 개발한 것"이라고 직지를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기자 방담 3면 | 2001년을 빛낸 불자들 4면 | 2001년 불교계 10대 뉴스 5면

사과의 말씀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전개키로 했던 10대사업 가운데 대장경 봉안 캠페인등 8개 사업은 당초 약속드린대로 성심껏 이행했으나 △우수불교사이트 시상 △나눔의 손잡기 운동만큼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드리오며 독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사 설

흔들리는 대학 승가교육

불교의 미래는 승가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계종의 3대 종책사업의 첫 번째도 승가교육이며, 승가교육 없이는 역경과 포교가 가능할 수 없다.

그러나 승가교육환경은 아직도 열악하다. 사실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인 전통 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을 보면 출가 사미·사미니의 의무교육시설과 체계가 허술하고 산만한 현실을 직감할 수 있다. 전통강원의 규율은 입방부터 졸업까지 수행적 풍토나 대중 습의에 제재가 있지만,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수행관 입방이 의무적이지 않고, 출입이 자재한 까닭에 수행적 정서가 산만하고, 청규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중앙승가대학이 2002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50%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사태를 빚었다. 미달 사태는 5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현상이지만 해마다 미달의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입시 응시에서 동국대학교의 승려 응시자도 서울·경주캠퍼스 모두 미달이라는 것이다. 또, 세 곳을 교차지원 할 수 있는 현행 입시제도로 볼 때 신입생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종단과 학교 당국에서는 현 문제를 숙의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자.

첫째, 출가 연령이 2001년 현재 평균 32세를 상회하고 있다. 대졸자의 출가가 늘어남에 따라 전통 강원이나 선원으로 가는 수행자가 늘고 있다. 스님의 통계 수치를 감안해 대학입학 정원의 숫자를 조정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수행 습의의 문제다. 중앙승가대나 동국대의 승려생활관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은사들이 상좌들의 대학 보내기를 꺼려한다.

셋째, 승려 학인의 특별전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 학생과 동등한 기준으로 수능·논술·면접의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넷째, 승가대학원의 설립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통 강원을 나오거나 기본교육을 마친 스님이 수행·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 대학의 교육제도가 미래 승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명상통한 청소년 심성 계발

조계종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지회인 부산파라미타가 개설중인 명상전문지도자 과정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연수 점수를 인정하는 연수과정으로 채택되었다는 낭보다. 명상전문지도자과정에서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게 되면 교사들에게 4학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교사들이 명상을 통해 학생들의 심성을 계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명상을 통해 자아를 되돌아보고 존재의 근원과 만물의 움직임을 통찰했던 것은 불교의 오랜 전통이다. 동양적인 문화의 전형 중의 하나가 명상이란 점에서 새로운 교육의 시도이자 가장 동양적인 문화형태를 익힐 수 있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갈수록 홍포화, 즉물화, 이기화되어 가고 있는 뿌리없는 청소년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란 점에서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희망이라 표현한다. 시간의 흐름은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책임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말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뿌리지도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기독교나 천주교 등은 이런 점에서 불교보다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다. 청소년문제를 연구하는 청소년연구원을 설립하여 청소년 오락문화나 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청소년 정책 내지 문화의 중심에 학교나 교사들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물론 불교계에도 불교교화연합회, 불교파라미타 등 청소년 단체들이 있다. 그곳에서 범종단적인 차원의 청소년 활동 및 정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직접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연수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계의 역사와 사회적 위상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범종단적인 차원에서 불교적 가치나 전통을 담은 청소년문화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리라 본다.

중앙승가대 또 미달

내년 신입생 모집 정원 절반만 지원

동국대도 불교학부등 승려전형 미달

중앙승가대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또다시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역경학과의 경우 단 한 명의 지원자 밖에 없어 폐과위기에 놓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3일 마감된 중앙승가대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지원자는 모두 61명으로, 전체 정원 120명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각 30명 정원인 학과별 지원 현황을 보면 불교학과 25명, 사회복지학과24명, 포교사회학과 11명, 역경학과 1명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5년간의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98년도 신입생 모집에는 71명, 99년 52명, 2000년 76명이었고 올해 신입생 역시 72명에 그쳤었다.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97년 이후 매년 정원의 50~60% 밖에 채우지 못한 전례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역경학과 지원자가 단 1명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원자가 매년 5~11명에 그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지원자가 적은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내년 2월 추가모집에서 최소정원(5명)에 미달할 경우 교육부 규정에 따라 전공과목은 자동 폐지된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건실한 학풍 결여, 스님들의 강원 선호 경향, 조계종 교육체계 문제, 홍보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학교 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가 외부로 표출돼 면학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은데다, 강원과 동국대가 중앙승가대와 함께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돼 있어 중앙승가대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기본교육기관 입교 대상자의 은사스님들이 강원을 선호하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종석스님은 "역경학과의 경우 학부과정으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자가 줄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학풍을 개선하고 종단교육체계 재검토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도 서울캠퍼스의 경우 불교학부 승려특별전형(정원 18명)에서 12명만이 지원했으며, 경주캠퍼스는 불교문화대학(정원 20명)에 13명, 유아교육과(정원 6명)에 3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성보박물관 공식기구 추진

조계종 전국실무자 간담회서 밝혀

새해초 관련법 개정…감독강화 기대

그 동안 비공식 기구에 머물렀던 성보박물관의 공식 행정기구화가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9~20일 전국 사찰의 성보박물관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성보박물관을 사찰의 공식 행정기구에 편입시키는 종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이는 비공식 기구라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성보박물관에 대한 종단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성보박물관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건립중이거나 개관한 조계종 내 성보박물관은 22곳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장고, 전시 시설, 방범·방화 시스템 등 구체적 운영 계획과 예산 확보 없이 건립되다 보니 개관 이후 박물관 기능을 제도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이날 실무자 회의에서는 성보보존법 개정과 '성보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설치를 통해 △성보박물관 설립 기준 및 절차 △종단의 역할(지원·관리) △박물관장 자격 및 임기 △학예연구원 자격 △성보박물관 역할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내년 3월경 개최해 종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사찰과 종단, 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

권형진 기자

현대만평

김 영 민



세계문화유산 대접 이래서야…

포교회관 2007년까지 건립

포교사단 내년사업 발표

홈페이지 사이버포교도

포교사단이 포교회관 건립과 함께 사이버 포교에 나서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포교사단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포교회관 건립. 포교사단은 향후 포교 전략 거점으로서 포교와 관련한 연구, 수행, 행정, 교육 등의 중심 역할을 할 포교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포교사단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포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을 시작해 조계사 인근에 400여평 규모의 4층 건물을 매입할 방침이다.

포교센터 구축과 함께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 포교도 추진한다. 포교사단은 이미 사이버 포교팀을 이미 구성해 준비에 들어갔으며, 포교사 이 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지단별로 사이버 포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포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6개 지역 단위로 3개월간의 포교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이후 본인이 선택한 분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활동 분야별 연수과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포교사들의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교사 개인 신상과 활동사항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포교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병행된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보관문서 7551건 DB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원택)는 13일 문서고에 보관중인 93년까지의 보관문서 7551건을 1차 자료목록 DB화 했다.

종단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종무업무에 활용키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1차 DB화 작업결과 총무원 7254건, 교육원 133건, 포교원 164건등 총 7551건이었으며, 이중 310건은 보존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계종 총무부는 내년부터 94년 이후의 보관문서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한-미얀마 불자 친선행사

30일 양국 전통공연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가 미얀마선원과 함께 30일 오전 10시 서울 암사동 미얀마선원에서 양국 전통공연을 갖는 등 한-미얀마 불자 친선행사를 개최한다.

한명우 기자

관음종 내년 북한 지원 나선다

새해예산 42억 확정

관음종 중앙종회(의장 법륜)는 19일 제39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새해 예산 42억4백7십6만원을 심의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억원 이상 증액된 것이다. 관음종은 내년에 북한지원 사업 및 종도연수, 복지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2002년이 승니분한신고 10년차가 되는 만큼 전국 말사 및 종단 스님들에 대한 승니분한신고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경숙 기자

종회의원 6월경 연수

조계종 종회는 19일 종회사무처에서 종회의장 지하, 부의장 청화, 총무분과위원장 정우, 교육분과위원장 향적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종회의원연수를 6월경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회의원연수 주제와 구체적인 일정을 내년초 제153회 임시중앙종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특강

불교상담개발원이 20일 조계사 불교대학 2층 강의실과 찻집 '생각해보자'에서 상담원을 위한 특강과 무료 하루찻집을 열었다.

자비의 전화 상담원과 후원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상담의 힘'을 주제로 한 남지심씨(우리는 선우 공동대표)의 특강과 함께 시낭송을 곁들인 하루찻집으로 진행됐다.

한명우 기자

대한불교 선교종 주최

경 신사년 12월 27일 부산경남지역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대법회 축

다사다난했던 신사년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매년 이맘때면 우리들이 걸어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바로 실천 궁행하였는가를 자성하고 또 참회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염원을 담아 새 희망을 설계하여 봅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이 풍부하고 개인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시선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종 총무원에서는 창종이념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과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 가정 등 지원금 전달 법회를 하고져 하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지금껏 년5회 모범환경미화원 포상법회를 행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은 부산광역시(16개 구청) 및 경남 종무원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지원금 전달 대법연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선교종은 전 종도의 염원인 받는 불교에서 되돌여주는 불교로 환지본처함에 따라 이 시대 이 역사속에 불교인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여 한국불교의 중흥발전과 나아가 한국불교의 초석이 될 것을 기원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욱 더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 지원금 수령 대상자 : 부산광역시 (16개 구청) 및 경남 종무원(51명)
◇ 지원금 내역 : 1인당 30만원 및 불교성전, 단주 증정
◇ 일시 : 2001년 12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 부산광역시청 회의실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류혜종 합장

총무원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3동 844-30번지 성광빌딩 2층 201호
전화 051)462-6181, 6652 핸드폰 016-840-6181 FAX 051)441-4022

목어

참회의 歲暮



한해가 또 저물어 간다.

저물어 가는 한해를 바라보며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불행이 자신만은 비켜가길 바라고 또 나름대로의 부푼 꿈에 젖는다.

하지만 어떤 소망이나 설계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진지한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계획했던 일을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에 빠지기 보다는 자신과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부끄러웠던 일은 없었는지 돌이켜 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참회는 거울이다. 자기의 양심과 진면목을 혼자서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참회는 그리고 자기에게 눈을 뜨는 일이다.

밖으로만 눈을 돌리다보니 미처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만치 바쁘게 보낸 한해를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참회다.

참회할 줄 아는 존재는 오로지 사람 뿐이다.

그 어느 동물도, 심지어는 절대신조차도 참회는 모른다. 오로지 사람만이 자기를 돌이켜 볼 줄 아는 것이다. 사람이 고귀한 존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행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적은 외부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악귀는 타종교의 신앙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 속에서 그것들은 호시탐탐 자신을 유혹해 오거나 흔들어놓지 않았던가.

새해의 꿈과 소망은 세모의 참회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한해 이루지 못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내 안으로부터 나를 방해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새해는 진정한 새해로 내게 찾아올 것이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 세모를 맞으면서도 참회가 없다면 그저 나이만 먹어갈 뿐 결코 인생이 익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도 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9·11 美테러 - 인간배아복제 허용 '교계 침묵'

기자방담 한 해를 돌아보며

참석기자= 이경숙 윤제학 임연태 김원우 한명우 김재경 김중근 이은자 오종욱 천미희 고영배 김주일 강지연 김두식 권형진 강유신 김혈우 여수령 이한길



◇올 한해도 교계는 해인사 대불조성, 범어사 국고횡령, 동국대 공금횡령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방담에 참여한 기자들은 올해를 거울로 삼아 새해에는 '희망과 도약'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기원을 했다.

—올해 전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9·11테러사건과 난치병 치료를 위한 치료술로 인간배아복제가 허용되는 등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러나 교계가 불교적 관점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한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월부터 3개월여 동안 불교계는 물론 사회까지 파장을 일으킨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논란은 '최대' '최고'를 지향해 왔던 불교계가 그동안의 대형 불사문제를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지가 처음 대불건립 반대기사를 보도한 후, 수경 스님이 본지에 대불건립을 반박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파장이 커져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뉴욕타임즈〉까지 이 문제를 기사화 했지요.

종단폭력 문제까지 가세한 이번 논란은 시대에 맞는 불사 창출과 수행풍토 점검 등 큰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올해 조계종이 실시한 3급 승가고시와 신도교육 의무화는 근현대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만한 성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0월 조계종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3급 승가고시는 승가교육체계와 승려위계 확립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종단사의 한 획을 긋는 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도교육 의무화는 불교신도라면 예외 없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신도들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조처입니다.

—이러한 조계종의 성과는 종단의 '안정'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23년만에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으며, 정화회의가 제기한 종단상대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98년 종단사태가 일단락됐고, 월하스님을 통도사 방장으로 재추대 하는 등 종단이 그간의 현안들을 해소했고, 오랜 공석으로 있던 교육원장(무비 스님), 포교원장(도영 스님)을 선출해 안정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태고종은 올 한 해 동안 총무원장이 3번 바뀌는 씁쓰레한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말 '젊은 총무원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종단개혁을 선언하며 출발했던 제19대 총무원장 종연 스님은 곧바로 자격시비에 휘말렸고 종단이 양쪽으로 갈라져 마침내 1종단 2총무원이 되었습니다. 11월 운산스님이 새 총무원장이 되어 화합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태고종 사태가 과연 해결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태종은 4년제 '금강대학'의 기공식을 5월 5일 가졌습니다. 2003년 3월 개교 예정인 금강대학은 종립대학으로는 4번째가 되어 불교학 발전과 불자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각종은 올해 제 9대 총인 혜일 대종사와 제26대 통리원장 효암 대정사가 새로 취임했습니다. 새 체제에서 내년 회당대종사의 업적과 생애를 조명하고, 진각종의 정체성 확립과 새 도약을 위한 종조 회당대종사 탄신 100주년기념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학계는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해였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회 수만 20개를 넘어섰고, 10월 한 달 동안 10여개 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세미나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수행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 몇몇 세미나에서 논문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 양적 팽창을 어떻게 질적 향상으로 이어갈 것인지를 과제로 남겼습니다.

—문화재는 새로운 조사 성과가 유난히 많았던 하였습니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백제 목간 23점이 무더기로 발굴됐고, 백제 절 이름을 두 개나 새로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서는 최초의 학술 조사로 기록될 만한 금강산 신계사터 지표조사, 양주 회암사터 실상사, 천왕사터 등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문화재 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찰청 문화재지킴이 출범,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인원 확대 등 사회적 대책이 마련된 것도 올해 문화재 정책의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조계종도 문화재 도난방지 및 보존 대책을 발표하고, 산하 사찰에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펼쳤습니다.

—문화계는 지역 사찰과 연계한 축제와 산사음악회 등이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지역 사찰의 불교합창단 활성화도 올해 성과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불모지로 여겨졌던 어린이 찬불가 분야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올해의 성과입니다.

—불교출판은 "만들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길이다"고 할 정도로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대불교학의 태두 김동화 박사의 전집 14권 출간, 한글대장경 완간 등은 우리나라 출판의 한 획을 긋는 고무적 일로 평가됩니다.

—10월 열린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와 전국경찰불교회 창립기념 법회를 전후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불자회 창립이 계속됐고, 직장법회간 연대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신행단체의 세대교체 바람의 조짐도 보였습니다. 20~30년 이상 재가불자의 법회와 공부를 이끌어 온 대표적 신행단체들의 고령화 현상이 심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10년 이하의 신행단체는 전문화 특성화 세분화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철포교단체인 풍경소리, 한국석불선양회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했어요.

—불교복지는 종단 복지재단의 위상에 대한 재고론이 수면위로 대두됐지요. 이 문제는 6주년을 맞은 복지재단 위상조정으로 이어졌고 12월 5일 열린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복지재단의 역할과 교구본사와 각 말사간의 역할론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또 3월 장묘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례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NGO활동은 환경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9월 창립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인 수경스님이 새만금 갯벌 개발 반대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1 환경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불교계가 주도해 온 북한산 관통 고속순환도로 백지화 운동과 새만금 갯벌 개발반대 운동, 대규모 신규댐 건설 반대운동 등이 역시 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 10대 뉴스에 선정된 것도 불교환경운동의 외연이 확대된 성과입니다. 종교간 연대활동도 활발해져 재가연대를 중심으로 종교NGO 네트워크가 구성돼 종교자정운동에 나선 것도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각 지역에 불교회관이 잇달아 개원돼, 지역 신행공간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만 합니다. 구미, 대전, 창원, 분당에 대규모 불교회관이 자리잡았으며, 인천과 춘천에도 새 불교회관이 착공돼 지역 불교문화 및 신행이 활성화 되는 기틀이 다져졌습니다.

—주요 교구본사들의 사찰 정체성 찾기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동화사, 월정사, 조계사, 송광사 등은 개산대재 등을 통해 사찰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와 문화축제 등을 기획해 뿌리찾기와 지역포교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군불교의 경우 11월 30일 군불교위원회 창립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군승단이 해체되고 군포교를 전담하는 종단의 공식 기구인 '군불교위원회'의 출범으로 군법사들이 포교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태복 장군이 대법에서 뇌물수수가 인정된다는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불교계를 다시 분노하게 했고 '김태복 장군 명예회복을 위한 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어요. 범어사 재무국장 석호 스님이 문화재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구속되고, 동국학원 회계직원의 거액 횡령으로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불교계를 참담하게 만든 악재였습니다.

—인터넷 분야는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수가 현저히 앞선 반면 불교계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붓다뉴스(buddhanews.com)의 경우 최근 가수 홍경민이 전하는 지혜의 말씀 이벤트 등을 신설한 것은 청소년층 포교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됩니다. 유니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 동호회들이 인터넷 환경에 맞게 변모한 것이 올해 동호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지요.

정리=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출판가 일년내내 '한겨울'
환경운동 종교간 연대 활발

출 · 재가 교육체계 확립에 박수
"태고종 내부갈등 조속 해결을"



테러와 전쟁으로 어수선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글대장경 완역, 환경운동 활발, 직장직능 불자회 급성장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았다. 특히 포교, 봉사, NGO 등 각 분야에서 발군의 노력으로 불법을 알리고 불교의 위상을 높인 불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의 업적은 시끄럽고 혼탁해져 가는 사회의 청량제가 되기도 했다.

2001년을 빛낸 불자들

본지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2001년을 빛낸 불자들'을 선정했다.

평화·자비·지혜의 정신 온누리 퍼뜨려

우리말 대장경 완역

월운 스님
동국역경원장



스승 운허 스님의 뒤를 이어 역경사업에 일생을 바쳐 온 월운 스님은 37년만에 완역된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의 으뜸 공로자다. 93년 동국역경원장에 취임해 그간 느슨했던 역경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스님이 역경원장에 취임한 이후 매년 30여권 안팎의 한글대장경을 간행해 역경불사가 활기를 띠었다. 또 9월 5일에는 한글대장경 완역 회향법회를 개최해 한글대장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불교학 연구에 큰 공적

지관 스님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 스님은 한국 불교학을 정리하는데 평생을 바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또한 불교 대백과사전인 〈가산불교대사림〉과 〈한국고승비문총집〉 〈계율론〉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 등의 편찬을 통해 불교학 중흥의 근간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아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올해 포교대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시작한 가산 포럼과 삼학총서 발간 역시 흐려져가는 수행 풍토를 바로잡는 중요한 견인차가 되고 있다.

참회로 갈등 해법 제시

도법 스님
실상사 주지



해인사 청동대불 논란 과정에서 빚어진 해인사 수좌들의 실상사 폭력에 대해 도법스님은 21일간의 단식 기도 정진을 함으로써, '대응'이 아닌 '스스로의 참회'를 선택,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켰다. 힘의 우위로만 대결과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불교계의 그릇된 관행에서 도법스님의 참회는 '가장 불교적인' 해법이자 신선한 충격을 불교계와 일반사회에 던졌다. 또 종단의 고질적 병폐였던 폭력 문제에 대한 자성의 불씨를 지핌과 동시에, 승가는 물론 불자들에게 더 이상 폭력이 종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하철역 법음 전파

성운 스님
'풍경소리' 이사장



성운 스님은 도심 지하철 역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지난 9월 전국 4백여 철도 역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 올해 봉축열차를 운영해 60만여 시민들이 동참토록 해 성공적인 초파일 축제로 이끌어냈다.

불교환경운동 주역

수경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새만금 현장은 물론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그리고 정부청사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새만금 사업의 '반생명성'을 알리고, 종교인, 전문가들과 함께 '새만금 생명학회' 조직에 앞장서 불교환경운동의 외연을 넓혔다. 9월 6일에는 불교환경연대를 창립해 백두대간과 주요 산에 위치한 사찰의 생태 및 문화 조사, 불교환경론의 정립, 불교환경교육,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통일·생명운동 선도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결사 10년만인 9일 제3차 천일결사를 회향했다. 법륜스님은 국내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좋은벗들,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한국제이티에스를 통해 북한동포 돕기, 환경운동, 제3세계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1일을 시작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24시간 1000일 정진을 시작한 통일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환경 및 통일운동을 강화해 왔다.

뇌허전집 간행 산파

광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뇌허 김동화 전집〉(전14권) 출간에 산파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광우 스님이다. 스님은 58년 정각사를 개원하면서 김동화 박사를 법주로한 첫 법회를 시작으로 돌아가신 80년까지 계속했다. 또한 김동화 박사가 제시한 '불교의 현실화'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를 정각사 신도회 표어로 삼기도 했다. 그리고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동화 박사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학문적인 업적을 모아 〈뇌허 김동화 전집〉을 간행했다.

비구니사 정립 혼신

본각 스님
한국비구니연구소장



한국비구니연구소장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열악한 상황아래서도, 비구니사 정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900여 비구니 스님들을 인터뷰해 비구니 인명록 발간을 준비중이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 등을 모아 40여년간 산재된 비구니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비구니 강원사, 비구니 계율 정신사, 비구니 포교활동사 등 비구니 관련 13개 주제로 논문집을 발간한다.

수행환경 보호 전력

지율 스님
천성산보호대책위원장



무분별한 임도 개설과 고속철도 관통으로 천성산이 심각한 파괴에 직면하자 스님은 곧바로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연대 천성산보호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천성산 보호에 나섰다. 또한 생태계의 보고인 천성산 고층습지 보존을 위해 고속철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내원사 등 천성산내 사암들의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한국 승단에서 상대적으로 대외적 활동이 미약한 비구니 스님의 활동 영역 확대와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사찰음식 대중화

선재 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원장



선재스님은 4월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을 개원하고 사찰음식 및 건강 무료강좌를 실시해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또 3월 26일~30일 방송된 EBS-TV '최고의 요리비결-사찰음식'에 출연해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10월 30~31일 제주 약천사에서 열린 '한·일 사찰음식문화 교류대회'에 참가해 사찰음식에 담긴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했다.

깨달음 대중화 주창

김재영
동방불교대 교수



김재영 교수는 지난 9월 지금의 수행 풍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만인견성'을 주창한 초기불교 개척사 연구서 〈붓다의 대중견성운동〉과 〈초기불교 개척사〉(도피안사)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이 두 권은 김 법사가 지난 18년 동안 '대중견성론(大衆見性論)'을 화두로 포교현장에서의 체험과 여러 사료를 천착해 연구한 노작이다. 책은 초기불전을 통하여 부처님의 삶과 초기 대중들의 개척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대중 견성운동의 실상과 견성원리를 규명하고 있다.

160여불자회 결성 앞장

노옥섭
공불련 회장



노옥섭 회장은 공무원불자 연합회 창립 1년만에 160여 정부부처 및 각급 행정기관에 불자회를 결성했다. 이는 지난해만 해도 40여 개 남짓한 공무원불자회가 12월 현재 4배 이상 증가,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신행단체로 발돋움시킨 것. 노 회장은 공불련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불련이 다른 직장직능 불자회의 모범이 되도록 했다. 또한 불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한 공직 사회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마크와 로고를 만들어 공무원 불자들에게 배포해, 그들의 신심을 북돋았다.

'연행록' 100권 펴내

임기중
동국대 국문과 교수



임기중 교수는 30여년 자료수집 끝에 조선시대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이 남긴 기록인 '연행록'을 집대성해 100권 짜리 〈연행록 전집〉(동국대 출판부)으로 펴냈다. 현재 500여 종으로 추정만 할 뿐 목록조차 정리되지 않았던 350여 종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연행록 전집〉은 고려말~조선말 700여 년에 걸친 한·중 관계와 동아시아 문화교류는 물론 종교, 복식, 음식, 무역, 생활사 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인문학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종교 개혁 이끌어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3개 민간단체들이 4월 4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시킨 '개혁을 위한 NGO 네트워크'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아 범종교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했다. 종교 NGO 네트워크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신앙과 직제제도의 개혁, 물량주의 극복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 성차별과 가부장적 종교문화 청산,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등의 과제를 추진해 종교인 및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티베트 난민돕기, 평화 및 국제참여불교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티베트에 구호 손길

김태제
경기불교회관 관장



불교아카데미 NGO지원분과장겸 경기불교회관 김태제 관장은 11월 29일 티베트 난민을 돕기 위해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에 10만 달러(약 한화 1억3천만원)를 기증했다. 김 관장은 지난 7월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와 라다크 난민촌을 방문, 티베트 난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즉석에서 '우물파기' 사업을 위해 8천 달러를 즉석에서 보시하기도 했다. 최근 8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경기불교회관의 문을 연 김 관장은 경기불교회관을 수원불교의 신행요람으로 만들어 출가와 재가가 함께 하는 포교, 교육,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 밀매단 검거

장인성
서초경찰서 형사계장



장인성 경감은 올 2월 전국의 사찰 등을 돌며 국보급 문화재를 훔쳐 팔아온 대규모 문화재사범을 잇달아 검거함으로써 불교문화재 도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이후 경찰청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족 등의 성과는 연이은 대규모 문화재 밀매단 검거에 힘입은 바 크다. 이 덕분에 93년 대둔사 성보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불서 13권과 89년 부여 무량사에서 도난당한 불상 3구 등 소중한 성보 수십 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청년불교운동 활성화

황국근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



황국근 회장은 청년불교 운동 활성화를 위해 4월 낙동강 원류따라 걷는 구도도보순례를 시작해 내년 초파일 총 16회의 순례로 회향하게 된다. 매월 1회 30km의 대장정을 도보하며 청년불자들을 환경지킴이로 변모시키고 있는 이 순례는 청년 불자들의 신심 증장과 환경 의식 고취라는 두 열매를 거두었다. 낙동강 줄기마다 청년불자들의 불심을 수놓은 이번 도보순례로 환경운동, 청년불교운동 활성화의 발판을 다진 황회장은 12월 불교공동체를 표방하는 NGO '늘푸른세상'을 결성하는 등 부산 NGO를 이끌어 갈 새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도 모두 부처님 같이!

- 직지사 동안거 어린이 단기출가 체험 -

참선과 예불 그리고 바른 공양! 스님과 함께하는 진리로의 여행!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 소 : 직지사 설법전
+모이는시간 : 2002년 1월 14일(월)오전 12시까지
+대 상 : 초등학교 (4,5,6학년)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수련 과목 : 예불, 발우공양, 다도, 불화, 금강태극권, 전통등만들기, 우리가락배우기, 불교문화체험
+우편접수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직지사 포교국
+E-mail접수 : hyunmaru76@hanmail.net
+전 화 : 054)436-6174, 436-2773 Fax)436-3174
+모집 기간 : 2001년 12월 17일 – 2002년 1월 10일까지
+모집 인원 : 선착순 50명

◇ 수련기간 : 2002년 1월 14일 - 19일(5박6일)
◇ 동참금 : 100,000원
◇ 우체국 온라인 : 702829-01-000365(예금주 : 직지사)

동국제일가람 직지사 주지 신산 합장

참 가 신 청 서

이 름		성 별	남·여
주 소		전 화	
학 교	초등학교	학 년	학년

새해에는 원불 조성 봉안하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 원불. 아미타 영구 위패불 -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힘이 들수록 빈 가슴에 채워지는 갈등과 번민은 살아갈수록 삶이 더욱 어렵다는 생각 뿐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지난날에 지어놓은 복이 이렇게도 없나 여겨집니다.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 복 지을 기회도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도 작은 복이지만 부처님 법 만남을 행복해 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하는 일이 안될 때에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도 안될 때에는 제사를 정성스러이 지내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정성스러이 지냈는 데도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헐어 보시하라." 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 전에는 결단코 성불하지 않겠다." 고 하였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지금도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문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충만케 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보원사(寶園寺)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영가를 극락세계로 맞이하는 영구 위패 불(1.5x 1.2x 0.8)과 생(生)자의 원력과 소원을 담은 행복한 삶을 위해 원불(願佛:법륜마크)을 조성 봉안하고자 합니다.
조상의 위패를 아미타 부처님 품안에 영구히 모시고 정성스러이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것은 유주 무주 애혼 고혼의 모든 영가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인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대 발원의 의미이며, 원불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원불에 자신의 발원과 원력을 싣고, 원력과 발원을 실은 원불을 모신 공덕으로 팔만 사천 불 보살님과 선신(善神)의 보호와 가피로 스스로의 하는 일이 잘되고 가정이 화목하며 자식이 크게 성장하는 지름길을 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추는 곳에 죽어 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부처님 그림자가 비추는 곳에 천마와 외도가 자취를 감춰 모든 재앙이 즉시에 소멸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큰 공덕은 수학 공식으로도 비유할 바가 아니라" 했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원불을 모시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원불을 모신 원력과 공덕으로 남은 생과 미래생에 무량복덕을 수용하며 이웃사랑으로 남겨두는 여유를 두려 합니다.
오는 새해 불국토를 장엄한 공덕으로 무량 복 받으소서.

불기2546년 원단 정안 합장

동참방법 원불 1인 1영구 위패 불
동참 발원금(일시불 - 200만원, 100만원씩 - 2회, 20만원씩 - 10회)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 축대 불사 동참 10만원 * 농 협 227050-51-180421 강보원(보원사)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26-1 전화 031-585-4897, 011-703-0408

대한불교 조계종 보원사

본지 선정 '2001년 불교계 10대 뉴스'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해인사 대불 조성 논란은 대형불사를 지향해온 우리의 자화상을 반조하듯 보여주었다. 또 올해 유난히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이 많아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두드러진 성과가 많았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조계종이 명실상부한 출·재가 교육체계를 확립했고, 불교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으며, 37년 만에 한글대장경이 완역됐다. 모두가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 공무원 불자회의 잇따른 창립등 직장직능 불자회의 활발한 신행은 불교의 활기찬 미래를 엿보기에 충분했다.

●한글대장경 37년만에 완간

동국역경원이 37년간 진행해온 대규모 역경불사의 결과 한글대장경 318권이 완간됐다.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스님)이 1964년 설립되면서 〈장아함경〉을 첫 권으로 펴낸 이후 37년 만인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한글대장경은 해인사 고려대장경 전체를 번역하고 원효에서 초의에 이르기까지 한국고승의 저작물 150여종과 팔리어경전 가운데서 뽑은 100여종을 포함한 우리시대의 대장경이다.

동국역경원과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글대장경읽기 및 봉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해 대장경 신행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9월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불교환경운동 활발

지난 4월 불교계가 주도한 반대여론으로 지리산댐과 가야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가야-봉산 구간의 도로(국가지원지방도 59호)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불교계가 주도해 온 북한산 관통 고속순환도로 백지화 운동과 새만금 갯벌 개발반대 운동 등이 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 10대 뉴스에 선정된 것도 불교환경운동의 외연이 확대된 성과다. 실상사가 환경농업교육장을 준공하고, 불영사와 내원사가 속사댐 건설반대 및 천성산 살리기 운동에 성과를 얻어낸 것도 지역 사찰들의 대외적 활동력을 보여 준 의미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 지난 9월 불교환경연대를 창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스님들이 가야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불자회 급성장

1년 전 47개 불자회의 연합회로 출발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10월 7일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기점으로 160여 불자회가 소속된 전국규모의 직장직능 단체로 성장했다. 공무원 조직상 스스로 불자라고 드러내길 꺼려하고 불자회 결성도 매우 힘겨웠던 것이 불과 1년 전의 모습임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변화다.

또한 전국경찰불교회, 철도청불교협의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등의 회원 및 지부도 크게 늘었다. 이중 전국경찰불교회는 4월 창립 이후 50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경불회를 조직했고, 철도청불교협의회는 지난 9월 철도청 본사에 불자회를 결성했다.


◇10월7일 직지사에서 열린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1주년법회.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발족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였던 비지정문화재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본청과 14개 지방경찰청, 230개 경찰서별로 각각 1명씩 모두 245명의 문화재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7월 12일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비지정문화재 도난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도 개정안이 마련됐다.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불교계 등에서 요구해 온 은닉·보관 행위의 별도 처벌, 은닉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지정문화재에 한해 민법상 선의취득 적용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재지킴이 발족식에 참가한 스님과 경찰들.

●조계종 출·재가 교육체계 확립

사상 처음으로 3급 승가고시가 실시되고 신도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조계종단의 명실상부한 출·재가 교육체계가 갖춰졌다.

10월 29일부터 4박5일간 직지사에서 치러진 3급 승가고시는 승가교육체계와 승려위계 확립을 통해 수행풍토를 바로잡는 단초를 마련했다.

11월 13일 조계종이 선포한 '신도교육 의무화' 역시 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의 교육체계를 통해 신도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신도교육의 이정표를 세웠다.

내년부터 불교에 입문하는 모든 불자는 의무적으로 기본교육을 받아야만 수계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포교사고시 응시 자격을 얻을수 있도록 강화됐다.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이 가사를 수여받고 있다.


◇개종식에서 합장하고 있는 인도 불자들.


◇관계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는 조계종과 선학원.



◇11월30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군불교위원회 출범식.



◇중앙신도회 주최로 열린 '21세기불사방향모색' 세미나.


◇총무원 청사에서 맞서고 있는 비상대책회의측과 총무원 측.

●인도 힌두교도 1만명 개종

11월 4일 인도 뉴델리시 암베드까르 회관에서 '로드 붓다 클럽' 주최로 열린 '대 개종식'에서는 불자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힌두교 불가촉천민 1만여명이 불자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56년 열린 현대 인도불교의 아버지 암베드까르 박사의 개종식에 이은 45년만의 대규모 개종 사건으로 인도 불교중흥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개종식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분야에까지 확산되는 등 인도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드 붓다 클럽'(대표 우디뜨 라즈)은 힌두 원리주의 단체들의 방해로 개종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90만여명의 불가촉천민들을 위해 지역별로 개종식을 거행하고 있다.

●조계종-선학원 관계정상화

23년 만에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졌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8월 30일 회의를 열고, 조계종 종지봉대, 승적·교육·수계 제한 해제 등 6개항의 관계 정상화 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78년 선학원이 '임원은 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고 정관을 개정하며 파생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됨은 물론 양측이 한 뿌리임을 재확인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정상화는 조계종이 선학원 승려의 승적 교육 수계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선학원도 조계종과 별도로 가겠다며 금강계단 설치와 승려법 계단법을 제정하는 등의 막다른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

●군포교 전담 군불교위원회 출범

군불교를 전담하는 종단의 공식 기구인 군불교위원회가 11월30일 대전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조직된 군불교위원회는 군불교 전반에 관한 행정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산하에 상임회의 및 실무운영회의를 설치해 군 포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에 군법사들은 예산확보나 후원회 조직 및 제반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어,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이번 군불교위원회의 탄생은 군승단 창설 33년 만에 처음으로 종단 산하에 군 포교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 포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인사 청동대불 논란

6월 해인사가 세계 최대 청동좌불 조성 계획을 밝히자 본지가 문제를 제기하고, 수경스님이 '성철 자운스님의 죽음을 곡한다' 제목의 기고문을 본지에 내면서 대불조성논란이 일반 사회까지 확산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실상사 소동으로 대불 논란은 종단 폭력문제로까지 비화돼 종단내 고질적 폭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온 대형불사에 대해 비판이 거셌다.

3개월여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이 문제는 결국 해인사의 대불계획 재검토 발표로 종결됐지만, 외화내빈의 대형불사를 지양하고 시대에 맞는 인재·복지 불사문화를 세워야 한다는 불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태고종 최악의 분규 격어

태고종의 내분이 일년내내 계속되어 불교계의 종권 다툼과 분규에 신물을 내던 불자들에게 "태고종까지…"하는 엄청난 실망을 주었다. 내분의 시작은 제19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던 종연스님에 대한 자격시비였지만 실은 태고종을 움직이는 세칭 '7인방' 스님들의 대립과 갈등이 팽팽하게 세를 이루면서 내분이 장기화됐다. 지난 3월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의 동반사퇴와 혜초스님의 총무원장 추대로 해결이 보이는가 했다가 인사문제가 엉키면서 더 깊은 갈등으로 번졌으며 마침내 비상대책회의측이 따로 총무원을 개원, 1종단 2총무원이 됐다. 실질적으로 양분돼 각각의 종무를 운영하던 태고종은 지난 11월 27일 운산스님이 새로 총무원장이 되면서 화합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전법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0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호귀(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신원이사장) · 선진규법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우리춤과(30명) · 한문학과(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12월 10일 ~ 2002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우리춤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2년 2월 2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9-4455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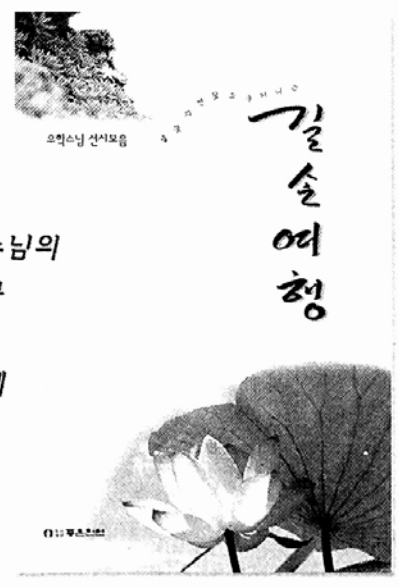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베스트셀러 도서출판 좋은인연 TEL - 053)475-3707 FAX - 053)475-3706 E-mail - buddhabook@hanmail.net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또 다른 수행선시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장면장면을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도 선명한 글로 표현한 이 번 책은 수 년 간에 걸쳐 집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산과 들을 헤매며 찍은 생생한 들꽃과 연꽃이 책 속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연꽃, 흔히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야생화가 스님의 문체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길 속에 청



살며시 드러나는 우학스님의
잔잔한 추억의 발자취를
따라 산과 들,
그리고 출세속의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법보시 하시면 할인됩니다."

15×22cm/208페이지/정가 10,000원
하드커버 양장제본, 전면 올 칼라

우학스님의 선시 낭송 테잎도 판매중 ☎문의 053)474-8229

팥죽공양·군부대 위문 "바빠요"

신행현장

자비실천 찬불가회 한영옥 회장

"팥죽 드시고 가세요! 따뜻하고 맛있는 팥죽입니다!"

22일 동짓날, 부산역 광장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드는 팥죽 잔치가 열렸다. 자비실천찬불가회(회장 한영옥, 법명 대각행) 회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팥죽 공양을 준비한 것이다.

예로부터 동지는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날이라 하여 설날로 삼기도 했다는데, 이날 부산역의 풍경은 꼭 설날 잔치 같다. 한쪽에선 국악인들의 공연이 열리고 또 한쪽에선 동지팥죽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천여 그릇에 달하는 팥죽을 대접해야 하는 큰 잔치이고 보니 이러 저리 죽 그릇을 나르는 보살들의 손놀림은 쉴 틈이 없다.

"지난해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 그만 두려 했는데, 동지가 다가오니 쌀을 보시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귤도 공양이 들어오니, 심부름꾼인 내가 안할 수가 있어야죠" 팥죽 잔치를 차린 주인공인 한 대각행(64세) 호장은 한사코 주위 분들의 도움에 공을 돌린다.

94년 자비실천찬불가회를 만들 무렵의 일이다. 대각행 회장이 몸이 아파 누워 있는데 병원에 같이 봉사 다니는 보살이 다급하게 전화를 했다. "타종교는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찬송가를 들려주는데 불교합창단이 없어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한 대각행 보살은 이 소식을 듣고 병석에서 일어나는 즉시 합창단 조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합창단이 조직되자 마자 어떻게 소식을 듣고, 연락처를 알았는지 곳곳에서 '합창단 좀 보내달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 시작한 일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자비실천을 행하는 합창단이 되었다.

합창단 없는 사찰 어디든 달려가 봉사
"내 한몸 수고하면 여러사람 즐거운데…"

사찰에 등록된 합창단이 아니어서 합창단이 없는 사찰, 단체 등 어디든 달려가 봉사를 해 줄 수는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 충당에 어려움이 많다. 한 대각행 회장은 "지난해 팥죽 공양 준비 때도 재정확보가 어려워 두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며 다시 눈



◇동짓날인 22일, 자비실천찬불가회 회원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팥죽잔치를 열었다.한영옥 회장(사진 가운데)이 죽을 나르고 있다.

시울이 붉어진다. 그래도 한 회장에게 포기란 없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도움을 청해 왔을 때 형편이 허락지 않자 이자 돈을 빌려서 건네줬을 정도로 베풀고 도와주는 것을 내일처럼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물한 모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하는 일이니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한 몸 힘들여 수고하면 그분들 마음을 어려운 이들과 연결시킬 수 있으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할 겁니다."

'노래 실력은 아마추어지만 봉사의 마음만은 프로급'인 자비실천찬불가회가 그동안 해온 봉사 또한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상주 수해지구에 몇 트럭분의 옷, 먹을 것, 이불 등을 싣고 간 것과 김해 교도소, 철원 군부대, 논산훈련소 위문공연 및 떡, 단주, 과일 등을 공양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무리 깊은 산골이라도 행사에 합창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면 달려갔고, 주머니 돈을 털어주고 돌아오곤 했다. 이제 60명에 달하는 회원들도 한 대각행 회장의 격의 없고 꾸밈없는 실천행에 반해 신심을 내어 활동하고 있다.

"봉사와 자비실천은 부처님께서 주신 숙제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물러서거나 피해서는 안된다"는 한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세생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비실천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으면"하는 서원 하나로 아픈 다리도 잊고 사람들 마음 모으기에 짧아진 겨울해가 더욱 짧다. 문의 011-859-154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내가 곧 진리의 길

가르침에는 선문(禪門)과 교문(敎門)이 있다.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말의 방편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말이나 문자에 얽매이면 자연히 관념의 세계-알음알이가 따르게 되니 선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불성이다, 진여다, 부처다, 여래다 이름을 붙여 놓고 한편으로 이를 다시 부정한다. 이름 붙임은 교문의 부득이한 일이요 이를 부정함은 선문의 부득이한 일이다. 그래서 불교는 어렵게 느껴진다.

법에는 불구부정, 불생불멸의 법이 있는가 하면 인연따라 나투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이 있다. 하나는 절대 세계를, 또 하나는 상대 세계를 말하므로 진여의 법과 생멸의 법은 엄연히 달라 보인다. 중생의 눈에는 그렇다. 그러나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불이의 법에 이르면 둘은 같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불교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불법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선사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비논리적인 까닭은 교문으로 들어온 이를 선문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요, 생멸법의 잣대로 분별 사량하는 것을 깨뜨려 진여법에 눈 뜨게 하기 위함이다.

가령 불법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스승이 불법이란 이런 것이다 자상하게 일러줬다고 하자. 그러면 '아하, 불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제 나름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 스승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시비, 논쟁, 주장, 분별, 가치 판단 따위로 가득 차 있는 한, 불법은 언어도단에 부딪친다. 그래서 불교는 또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불법을 공부하기가 세수하다 코 만지기 만큼 쉽다고 말하는 선사도 있다. 불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짐짓 역설로 그런 것이 아니다. 생멸의 법도 네 살림 속에 있고 진여의 법도 네게 있으니 자신을 밝히면 그것이 곧 불법이요, 불법 공부의 전부라는 것이다.

선문 교문이 다 '나'로 귀결되고 생멸법 진여법이 다 '나의 것'이니 '나' 이외에 따로 의지할 곳은 없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지처는 너뿐'이라는 자등명(自燈明)을 이름이다. 따라서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지난 시간 참회없인 새 희망 구상 힘들어"



도후스님
철원 심원사 주지

또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철원의 텅 빈 하늘을 날아가는 겨울새들이 더욱 작아 보이고 날카로운 바람속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많은 불우이웃들이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허전해 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했고 사회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구촌에는 느닷없이 테러의 공포가 엄습했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라도 잠잠하면 안 되는 곳인가 봅니다. 해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 많은 일을 뒤로하고 시간이 흘러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역사의 쳇바퀴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짓 허물 제거해야
모든 소원 성취돼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뒤죽박죽으로 엉킨 세상의 혼란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깥세상의 혼란을 내면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혼란한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옛 선사들은 "일 없는 사람이 진정 귀한 사람"이라 했지요. 스스로 번잡한 망상으로 세상의 혼란을 안으로 끌어들여 세상과 덩달아 복잡한 마음으로 얽혀 있는 사람은 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진리의 풋대를 바르게 응시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때에 진정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고 이 혼란이 어디에서 근원하였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바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르게 알면 해결책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새로운 해에 큰 기대를 걸고 희망을 설계합니다. 묵은 것을 털어 버리고 새 것을 새롭게 맞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없이 새로 구상하는 희망은 엉성하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철저히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를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구상해서는 안 됩니다.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갖은 허물과 악연으로부터 깨끗하고 선한 인연의 바탕으로 마음을 바꾸는 통로가 바로 참회입니다.

부처님은 "백 년 동안 때 묻은 옷이라도 하루 동안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백 천 겁 동안 지은 모든 불선업(不善業)도 불법(佛法)의 힘으로 잘 수순해서 닦으면 일시에 소멸하는 것이다"고 참회를 설명하셨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 바빠지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과 죄를 지어 두려움을 위장하고 그 죄를 덮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듯이 영원히 가려지는 죄도 없습니다.

천지만물이 다 몰라도 자기 자신만은 알기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해가 저물기 전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참회하고 마음을 바꾸어 텅빈 바탕에 새해의 밝고 신령스러운 기운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 부실공사가 될 거짓과 비밀, 허물을 다 제거했으니 새로 설계하는 희망과 소원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세상은 떠들썩해도 우리 불자들은 조용하게 지난 시간을 참회하면서 새해를 알뜰하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행캘린더

12월 26일 (수)

■법장스님 초청법회=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오후 7시 대학법당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042)624-6555

■진흥원 종범스님 초청 송년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을 법사로 송년법회를 연다.(02)719-1855

12월 27일 (목)

■경승활동활성화 기원법회=강원불교연합회는 오전 11시 춘천 베어스타운 대연회장에서 강원경찰청경승실장 원행스님을 법사로 사회안정과 경승활동 활성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033)732-4800

■박완일법사 초청법회=부산 불교실업인회는 6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컬룸에서 박완일 법사 초청 송년법회를 개최한다.(051)818-9914

■화성 신흥사청소년 겨울수련회=화성 신흥사는 30일까지 3박4일동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 41차 겨울 수련법회를 연다. 기도참선, 찬불가와 율동, 1080배 용맹정진, 발우공양, 심성수련 등으로 진행된다.(031)375-2695

12월 29일 (토)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양산 통도사는 오전 10시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을 법사로 화엄산림대법회및 무량위패 봉안 천도법회를 봉행한다.(055)382-7182

12월 30일 (일)

■한마음선원 학생회 수련회=안양 한마음선원은 충북 음성 광명선원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2박 3일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출발은 9시 30분 안양 본원.(031)470-3100

■법장사 가족법회=법장사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주지 퇴휴스님을 법사로 가족법회를 갖는다.(02)971-0303

12월 31일 (월)

■조계사 송구영신 등불축제=서울 조계사는 오후 10시 대웅전 앞에서 송구영신 등불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송구영신 등불축제는 주지 지홍스님의 법문과 탑돌이, 점화, 타종, 풍물공연 등으로 진행된다.(02)732-2115

■터사랑 성지순례=터사랑은 오후 9시 안국역에서 출발, 여천 향일함과 진남루, 오동도를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개최한다.(02)722-9747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 · 여	150,000
	두 루 막	남 · 여	130,000
	통 방	남 · 여	120,000
누비	上 下	남 · 여	190,000
	두 루 막	남 · 여	160,000
	방 한 복	남 · 여	130,000
	보 온 복	남 · 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 · 여	220,000
손 가 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 · P : 011)9850-4400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6.금광명경과 힌두교

4세기경 성립된 〈금광명최승왕경〉은 〈법화경〉, 〈인왕반야경〉과 함께 호국삼부경 가운데 하나다. 5세기 초반부터 8세기 초반까지 다섯 번 거듭 한역된 〈금광명최승왕경〉은 한중일 삼국불교의 신앙, 사상, 문화사의 측면에서 큰 대중적 수요를 갖고 있었다. 신앙의 측면에서도 〈금광명참법〉과 〈금광명도량〉 등의 불교의례가 봉행되었으며, 한국불교의 가람조성과 불교의례, 불교미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경은 대승경전인만큼 반야계의 공관사상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으며 그 위에 자기의 신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사신(捨身)의 보살도, 참회의 사상, 자기를 멸각한 바른 정치는 불타와 제천(諸天)의 가호를 받는다는 왕법정론(王法正論), 나라를 호지하는 제천선신(諸天善神), 즉 변재천 · 사천왕 · 견뢰지신 · 사방사불의 외호와 활약이 종횡무진하게 널리 설해지고 있다. 특히 이 경전은 703년 의정 삼장에 의해 한역된 다음해인 704년(신라 성덕왕 2년) 3월, 사신 김사양이 당에서 〈금광명최승왕경〉을 갖고 귀국하여 왕에게 헌상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 경전과 한국불교의 오랜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밀교적 修法 기술

힌두적 기원 농후

오늘의 문제는 바로 〈금광명최승왕경〉이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적 교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전에 등장하는 제석천 · 염마천 · 비사문천 · 위타천 · 길상천 · 변재천 등 수많은 신격(神格)들과 중간부에 해당하는 '사천왕호국품' 이후부터는 밀교적 수법(修法)이 기술되고 있다. 이 밀교적 수법에서는 힌두적 기원이 농후하게 드러난다. 즉 본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다라니의 지주법(持呪法), 결계(結界), 소향(燒香), 향수단장법식(香水壇場法式), 세욕(洗浴)과 같은 정화의례와 소똥을 태우는 구마(瞿摩)는 멀리는 베다에, 가깝게는 힌두교의 푸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특히 32종의 향약법(香藥法)은 불교의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향료와 종교의 관계를 보여준다.

불교와 힌두의 교섭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는 특징은 권7에 상당한 분량으로 수록된 변재천녀의 게송이 바로 힌두교의 대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하바라타〉의 부록으로서 6세기경에 완성된 〈하리방샤〉를 한역(漢譯)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불교학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신수대장경의 해당지면의 각주는 "이 쪽은 원리 〈하리방샤〉에 나온 것"이라는 주석을 첨부하고 있기도 하다. 〈하리방샤〉는 원래 힌두교의 영웅적 존재인 크리슈나의 자기희생을 찬탄하는 범어문학의 고전이다. 그래서 〈하리방샤〉라는 명칭 자체가 '크리슈나의 계보'를 의미한다.

'바라문교와 힌두이즘의 부흥기'라고 불리우는 굽타조(320~480) 기간에 불교는 점차 힌두이즘에 압도당하기 시작하여 힌두의 제신(諸神)과 민간의 토착신앙을 불교의 체계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인도에서는 챤드라 굽타왕이 320년 즉위하여 굽타왕조를 세웠다. 다음 대에는 삼드라 굽타(325~375)왕이 남인도를 정복하고 동북인도를 통일하여 강대한 집권국가를 완성한다. 이 왕조 시대는 힌두 문화의 부흥기였다. 힌두교를 국교로 정하고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계급차별이 강화된 사회 질서는 바라문법전의 편성에 의해서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불교의례와 힌두의 교섭이 바로 이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불교의 수 많은 신격들이 힌두에서 전입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힌두측이 불교적 요소를 수용한 예도 있다. 그 최대의 사례는 붓다를 비슈누의 화신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비슈누신의 권화사상(權化思想)에서는 역사상, 신화상의 영웅과 성자를 자파에 받아들여 확대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 맹아는 오래전부터 보이지만 붓다가 비슈누신의 화신으로서 문헌에 처음 기록된 것은 A.D 4~5세기에 성립된 비슈누 푸라나이다. 힌두교도들은 비슈누 푸라나에서 연중행사로 설해진 붓다공양을 행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가 힌두사회에 위치하는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교학, 불교미술사학 및 불교도상학에 대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인도에 가서 힌두이즘의 다양한 배경과 기원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경학회 회주

불상을 생명체로 전환시키는 의식

참물자의 길 — 복장의식

문화재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복장유물을 훔친 모 씨가 검거됐다", "복장기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등의 복장(服裝)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아니라면 복장의 뜻이 무엇인지, 복장의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특히 복장의식은 몇몇 스님과 시주자 등이 점안식 이전에 봉행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질 수도 없다.

복장물은 불상을 조성하면서 불상의 배 속에 넣는 사리나 불경 등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보살이나 나한상 등 여러 존상 내부에 봉안되는 여러 가지 불교적 상징물을 일컫는다. 그리고 복장의식은 불모가 조성한 불상을 생명체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복장물은 사리와 경전 외에도 사리함, 만다라, 오곡, 오색실, 오복 등이 들어가는데, 이를 넣는 통을 복장통이라 한다. 복장통은 큰 것 1개에 작은 것 5개가 있다. 작은 복장통은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 다섯 방위를 뜻하며 각 방위별로 청(동), 적(서), 백(남), 흑(북), 황색(중앙)의 표시가 붙어있다. 이들 색이 곧 방위를 뜻하는 것이다. 이 복장물은 보통 처음 불상을 조성할 때 복장을 넣지만 요즘에는 개금 때에도 한다.

복장의식의 시작은 부처님을 모실 절에서 마련한 오곡밥 세 그릇, 나물반찬 세 그릇, 감로수 세 그릇, 과일 세 접시, 떡 세 접시를 일주문 앞과 마당, 그리고 부처님 모실 법당 앞에 차려놓고 공양을 올린다. 이는 성스러운 부처님을 모시는 시간에 도량 수호신장과 일체 중생에게 그 공덕을 베푼다는 의미다.

복장의식은 보통 큰 탁자를 중심으로 다섯명의 스님이 둘러 앉아 진행한다. 주관하는 스님을 따라 염불을 하며 스님이 "5보요"하며, 금, 은, 진주, 유리, 호박을 나눠주면 각 방위별로 앉은 스님들은 "훔"하며 물품을 받는다. 그리고 조심스레 작은 복장통에 물품을 하나씩 넣는다. 이 때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데, 복장통에 65가지나 되는 상징물을 넣기 때문이다. 복장물을 작은 복장통에 넣는 사이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 〈화엄경약찬게〉, 〈반야심경〉, 〈법성게〉 등을 대중들이 외우고 스님들은 복장물에 따라 정해진 주력을 한다. 이 같은 순서로 작은 복장통이 가득 채워지면 큰 복장통에 방위를 맞춰 넣는다. 다 들어가면 그 위에 진언을 쓴 종이를 덮고 부동진언을 외우며 큰 복장통을 3색천으로 싸 오색실로 묶는다. 이 복장통을 불상의 아랫부분을 통해 뱃속으로 넣는데 이 때 발원문, 불상 조성기, 시주자 명단 등을 함께 넣는다. 주력을 하는 엄숙함 속에서 주관하는 스님이 각종 복장물을 부처님 뱃속에 넣는 것으로 복장의식은 마무리된다.

당시 불교신앙 경향 문화·미술 이해 자료

이렇게 봉안된 복장물은 그 불상이 제작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됨은 물론 역사학, 민속학, 미술사에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발원문의 내용 가운데는 불상이 봉안된 절의 이름과 함께 스님 법명 그리고 관계 지명이 나와 있어 불상의 조성연대를 밝히는 단서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복장유물은 당시 불교신앙의 경향, 사경 미술, 불상조성의 유래, 만든 사람, 발원자들의 신분 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김중근 기자



◇복장통을 불상의 아랫부분을 통해 뱃속으로 넣고있는 모습.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㊸

루추밀에 대한 답서(2)

힘들여 머물지 말아야 한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생각을 잊는 것이나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나 모두 잘못이니, 비유하면 칼을 휘둘러 공중에 던져서 손이 닿고 닿지 않고를 상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옛날 엄양 존자가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려놓아라.' 엄양이 말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들고 있거라.' 엄양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또 운개 지원 스님이 운거 석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학인이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석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노승도 역시 어찌할 수가 없다.' 지원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학인은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이면서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석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 내버릴 것이다.' 지원 스님이 말 끝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두 스님이 깨달은 곳이 바로 당신이 헤매는 곳이며, 당신이 의심하는 곳이 바로 두 스님이 의심한 곳입니다. 법은 분별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또 분별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니, 모든 분별법(分別法)이 소멸하면 바로 법에 생멸이 없게 됩니다."

선공부에서 가장 결정적 고비는 공(空)의 체험이다. 색(色)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며, 온갖 모양이 곧 모양 아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며, 동시에 선 체험의 본질이기도 하다. 공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재이다. 공의 체험은 곧 아상(我相)과 법상(法相)을 비롯한 온갖 경계로부터의 자유이며 자재한 해탈이다.

공은 어떻게 체험되는가? 본래 마음은 공이다. 다만 의식(意識)의 모양에 가로막혀서 본래가 공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모양에 유혹되고 속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인 그대로의 마음이다. 의식의 모양에 유혹되고 속으면 무언가를 의도(意圖)하여 하려고 한다. 즉 헤아리고 분별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은 모두 의식에 유혹되어 속은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 그대로의 마음을 알려면 의식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생각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즉 헤아리고 분별함에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잊는 것이나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나 모두 잘못' 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조주가 말한 '내려 놓아라' 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석두가 말한 '노승도 역시 어찌할 수가 없다' 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모든 분별법이 소멸하면 바로 법에 생멸이 없게 된다' 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망상을 쉬어라' 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중도(中道)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혜능이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을 때에 당신의 본래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은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본래면목이라고 하여 무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면목이 바로 공이다. 공은 그 무엇이 아니므로 어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찌하려고 할 때 바로 공을 놓쳐 버린다. 그러면 그대로 놓아 두어야 하는가? 그대로 놓아 둔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찌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로써 표현하기가 미묘하지만, 무엇보다도 '힘을 들이지 않아야 한다' 고 말할 수가 있겠다. 어찌하든 그대로 두든 모두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맡긴다' 는 말도 하고 '구경꾼이 된다' 라고도 하지만 이런 말들도 잘 알아들어야 한다. 힘을 들이지 않으려면 분별하지 말아야 하고 분별하지 않으려면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은 의식을 어찌하지 않는 것이니 힘이 들지 않지만, 머물러 있는 버릇이 굳어져 있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못 견뎌하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http://www.mindfree.net/

알림 김태완 선생이 「서장」, 「원오심요」, 「전심법요」, 「금강경」 등을 가지고 겨울 특별 법회를 1. 2월 동안 부산에서 개최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011-955/1-1459/김태완), 011-9520-0064/이정화).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이렇게 들었다

아름다운 회향

"최선 다한 한 해였나…"

▨수미산은 높고 넓기는 해도 끝내 무로 돌아가고, 대해는 깊고 넓기는 해도 또한 말라붙을 때가 온다. 해와 달은 아무리 밝아도 오래잖아 서쪽으로 넘어가야 하고, 대지는 견고해서 온갖 것을 싣고 있을 수 있으나, 주겁(住劫)이 다하여 겁화(劫火)가 타오르면 그 역시 무상으로 돌아갈 운명에 있다.

<대반열반경>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 번 지나가버린 것은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현재의 일을 이모저모로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없이 그것을 잘 알고 익히라.

<대가전연일야현자경>

▨"너희는 잘 들으라. 온갖 현상은 무상하여 생겨서는 없어지는 성질의 것이다. 견고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니, 이는 절대적 경지인 것이 아니어서 즐길 것이 못된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해탈을 구해야 할 것이다."

<살발다경>

고령의 나이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향하고 있는 귀화인 1호 민병갈씨(81세, 쌍용증권 고문)의 이야기가 연말을 맞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으로 칼 밀러가 본명인 민씨는 지난 1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후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천리포 수목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태안반도에 18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그의 천리포 수목원에는 7천 여종이나 되는 많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힘든 항암치료를 받아가며 천리포 수목원과 쌍용증권 사무실을 오가면서 한시도 나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은 적이 없는 민씨는, 오늘도 더 많은 나무를 이땅에 심고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남은 생의 하루하루를 나무와 함께 하는데 바치고 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 더 많은 희망을 심어놓기 위해서….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2001년 새해 달력을 펼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의 끄트머리에 다다랐다. 1년이라는 시간을 단위로 삼아 우리는 매년 이맘때면 지난 동안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특히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1년 살이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향의 기도를 올린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리는 것"이라고 설했다. 불자 모두가 자신이 닦은 선근과 공덕을 돌려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회향의 본 뜻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더욱 튼실한 내년을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은자 기자

"개미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자"

불자 세상보기

기부문화 뿌리내려야

세금혜택 등 정부 노력을



권기대
경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난 16일 '한국경제학회'에서 일반국민과 대학생, 교수, 기업인사담당자, 신입사원 등 2,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기업가의 개인재산을 사회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의 개인재산 처리방법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 조사대상의 72.4%가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액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13.6%에 달했다. 대학생과 신입사원, 심지어 기업인사담당자도 '기업가가 개인재산의 일부라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설문에 찬성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교수들은 '사회환원(43.6%)보다는 기업가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53.2%)'는 견해가 많았다.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궁금하다. 분명히 시장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업가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울화가 치밀고 섭섭하며 불만스러웠을 것이고, 교수들의 응답결과에는 다소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번 돈의 사회환원을 덕목으로 간주하고 습관처럼 실천하는 미국과 영국의 기부문화가 우리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가가 자신이 소유한 개인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실천적 구상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은 축적한 개인재산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세제의 혜택과 재산의 후계상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정치자금의 헌납과 로비 등 부의 사회환원에 대한 방어적 인상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인색한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올해 이동통신 업체들이 휴대폰이용자들의 요금인하 요구에는 외면한 채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돈을 벌어 사상최대규모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뉴스는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한다. 게다가 어느 촌로의 밥장사로 번 10억대의 땅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기부한다든지, 젓갈장사로 모은 돈을 어느 대학에 기증한 것이라든지,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치 개미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 아름다운 미담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결론적으로 기업가들이 소유한 개인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구조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소유주는 개인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구매행위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한다는 개방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기업가들이 소유한 개인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세금감면이나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교육을 통해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의 육성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한 불자청년의 병역거부 선언

한 불교신자가 17일 국가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오태양씨(26)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 · 봉사의 인생관에 따른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민간대체봉사제도' 도입을 호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일부 네티즌은 오씨의 입장에 동조했으나, 대다수는 오씨의 행위를 비난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과연 불교 교리와 사상 등 불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불교학자의 견해를 듣는 한편, 네티즌들의 반응을 종합했다.

네티즌 반응

○…당신이 선택한 '양심'은 군대가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이라고 정의 내려질 때에야 비로소 '불교적 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황태완>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이다. 사명대사와 서산대사를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불살생 이것은 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학생>

○…불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보다도 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권리를 향유하기 전에 국민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레밍이>

○…군생활보다 더 오래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봉사>

○…군대가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님들도 예전에는 나라가 위험할 때 무기를 들지 않았는가. <초롱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다. <곽계영>

○…신앙이라는 종교적 문제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면 남의 수고로움에 기생하는 사람밖에 안된다. 불교의 이타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쿠웨이트 박>

○…대만과 이스라엘도 종교적 신념보호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무심이>

○…임란, 호란 때 봉기해 싸운 100만 호국승병들은 극락왕생 못 했겠네. <공수래 공수거>

○…서산대사는 잘 알려진 분으로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으로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의병활동이상으로 한국 불교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최승호>

○…양심적 병역거부는 민주주의의 한 실험이다 <홍영일>

○…불교신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치 각자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은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박성훈>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가르침을 애써 행하지 않는다면 아프간의 비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생명을 보듬으려는 일이 아닐까? <인권과관용>

○…단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씨를 비난하지 말자. 그의 선택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할 그의 짐이다. <불살행>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보통국민>

"호국 불교정신 망각"

"민주주의의 한 실험"

"'살생 금지' 광의해석 마땅"

교리로 본 병역의무

목정배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불교인이 군 입대의 문제에 대하여 불교의 근본교리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입대를 거부한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합당할지 모르나 불교의 대승적 사상에 비추어 보면 논리에 모순이 생긴다고 본다. 삼국시대의 고승 원광의 입장이 불교와 국가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본다.

불교의 근본계율은 불살생인데 원광이 살생유택과 임전무퇴를 표방한 것은 단지 신라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 즉 삼국 간에 전쟁이 빈번하여 모든 국민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향시키려는 깊은 종교심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살생은 불가에서 원칙적으로 금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무량한 공덕과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러한 살생을 죄악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세속지선계(世俗之善戒)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처럼 종교적 계관(戒觀)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국가에 응용되고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 공익성의 계관으로 변용시킨 것이 그의 종교관이요 국가관인 것이다. 이 세속지선법이 확고부동하게 실천되고, 이러한 신념이 국가와 민족에 바로 직결되는 역사적 계관의 일심귀일로 나아가야 된다고 원광은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세속지선계는 화랑의 수행덕목이 되어 신라 젊은이들을 하나의 이념과 통일된 사상으로 결속시켜 나갈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끊임없이 범경(犯境)하여 전쟁이 그칠 날이 없던 상황에서 역사와 민족의 철학으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사실 출가자는 불살생을 근간으로 하는 계관에 투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미 세속지선계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속에서 임전무퇴와 살생유택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종교적 입장만을 내세워 나라의 처지를 모른 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원광은 국가와 종교가 일원론적인 궤(軌)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권(國王力) · 인민(諸衆生) · 영토(器世)가 함께 온존해야만 한다고 여겼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바로 위기가 직면한 신라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에 의존하면서 생을 부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원광이 신라가 직면한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종교인이 지녀야 할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불교는 광의적 현실참여 정신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호국일선에 나선 사람은 원광만이 아니다. 고구려 승려인 도림도 장수왕의 백제 침공시 첩자로서 활동하여 백제 공략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신라 진흥왕 때 군사지휘관인 거칠부도 승려출신이었다. 백고좌법회나 팔관회 같은 호국적 색채가 짙은 불교의식이 승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것도 모두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불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불가피한 살생과 부처님 가르침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은 비단 이들만이 아니다. 최근 입대를 거부한 한 불자청년의 고뇌도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호국을 위해 무량공덕과 민족적 이익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불가의 살생은 대승적 차원에서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부·대·중

내가 불자인가?



임동현
서울 봉은사 연구실장

가끔씩, 나는 내가 왜 불자인가를 자문하곤 한다. 불교교리에 관한 책을 몇 권 읽고, 절이 가진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주위 가까운 분들이 불의의 변을 당하면 절에 천도재를 모시고… 그래서 나는 불자인가?

그러나 뭔가 허전하다. 교리를 조금 안다고, 부처님 전에 3,000배를 10번 한다고 해서 불자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심없이 믿는 마음이 있으면 불자인가?

그럴 것이다. 부처님 말씀의 진리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불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크고도 중요한 출발점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이성적 사고로는 불교의 진리성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다. 그런 면에서 나는 불자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머리에 한정되어 있고 온갖 잘못된 습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거짓이고 그래서 나는 불자일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캄캄한 밤의 길 안내자'라고 비유하셨다. 그 길을 가고, 가지 않고는 부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몫이라고 강조해 말씀하셨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 최소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책으로, 머리로만 그 길을 그려보면서 마치 길을 가고 있는 양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문을 할 때면 매번 스스로 초라해짐을 느끼곤 한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인 듯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일도, 말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엄습한다.

〈금강경〉을 수백번 읽고, 〈화엄경〉을 닳도록 읽었다 해도, 만 배, 십만 배를 한다고 해도, 5계 중 하나를 실천함만 못할 것이다.

타성과 관성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어떠한 공부도, 수행도 다 부질없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목탁소리

표절의 해악

윤 제 학 (취재2부 부장)

따옴표 없는 인용, 그것을 우리는 '표절'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창작과 학문의 세계에서 행해지는 '해적 행위'라 할 수 있겠다. 한 사회의 정신적 자산을 좀먹는 파렴치한 행위다.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표절 행위도 교묘해진다. 아이디어 도용, 재가공, 전재(全載) 수준의 인용 끝에 알쏭달쏭한 출처 밝히기 등. 이런 형태의 교묘한 표절일수록 원저작자에게 입히는 정신적 상처는 깊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떤 형태로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창작과 연구 의욕의 상실을 부른다.

우리 사회에서 표절 행위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불교계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로 떠오른 적이 없다. 전문 영역인데다 사제와 선후배로 연결된 관계가 표절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 기자는 불교계의 학술지에 실린 모 지방대학 강사 ㅅ씨의 논문이 명확히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불교학자가 번역한 책의 해제 부분과 번역문을 통째로 옮겨 쓴 것을 발견했다. 이해의 폭을 최대화하여 고의성은 없다고 보더라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용인지를 밝히는 기본도 무시한 채 상당 부분을 옮겨다 쓴 것은 표절과 관계없이 명백한 학문적 게으름이었다.

사실 세상 어떤 영역에서든 앞선 자의 노력에 힘입지 않을 수 없다. 글자 그대로의 독창성이나 고유성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선행 연구가 많다는 것은 후학들에게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다. 소재의 빈곤 차원에서는 불행이겠지만 짧은 시간에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칙은 간단하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확히 출처를 밝히고, 인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것이 학자적 양심이다.

연말연시 기도처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새해 맞자

또 한 해가 저문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2001년. 세월은 무상하게도 그 언덕을 넘어간다. 어제 진 해가 오늘 떠오르는 해와 다를 바 없겠지만, 조용한 산사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들과 해넘이, 해맞이 법회를 여는 사찰이나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한 전국의 기도처를 찾아 모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보자.

●해넘이, 해맞이 법회 여는 사찰

전국 각 사찰에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해넘이 · 해맞이 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강화 전등사는 29일 오후 3시 대웅전에서 이애주 서울대 교수의 승무와 바라춤 등 해넘이 춤공연을 갖는다. (032)937-0125

전국염불만일회는 건봉사에서 월드컵 원만성취를 위한 새해맞이 철야정진기도를 한다. 31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출발, 건봉사에서 철야정진기도를 하고, 동해 화진포에서 해돋이 기도를 한다. (02)732-1215

경주 불국사는 31일 불국사 경내에서 국악 공연 등의 산사음악회를 가진 뒤 밤 11시부터 제야 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자정에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한다. 석굴암에서는 철야정진기도를 할 예정이어서, 이를 마친 뒤 맞는 석굴암의 일출은 장관을 연출한다. (054)746-9912

울릉도의 진각종 금강원은 31일 밤 11시부터 새해맞이 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다. (054)791-2465

동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자랑하는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과 함께 1월1일 오전 9시 의상대에서 해맞이 법회를 갖는다. (033)672-2447

전남 해남 미황사는 31일 오후 땅끝마을 봉화대에 불을 지피며 올해의 마지막 해를 지켜보는 해넘이를 한 뒤 달마산에서 일출을 맞이할 예정이다. (061)533-3521

제주 약천사에서는 31일 오후부터 1080배 참회정진 법회를 갖고 송악산으로 옮겨 해맞이 법회를 갖는다. (064)738-5000

이밖에 여수 향일암과 서산 간월암 등 해수관음 도량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철야정진을 하며 새해를 맞을 전망이다.

●3대 관음기도 도량

▲양양 낙산사 홍련암

홍련암은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곳인 관음굴 위에 지은 암자다. 바닷가 암석굴 위에 자리잡은 홍련암은 창건 당시부터 법당 마루 밑을 통하여 출렁이는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지어졌다. (033)672-2478

▲강화 낙가산 보문사

635년(신라 선덕여왕 4) 금강산 보덕굴에서 수행하던 희정(懷正) 선사가 강화도에 와서 산세를 살펴보니 인도의 보타락가산과 비슷하여 절을 짓고 이름을 '보문', 산 이름을 '낙가'라고 했다. 낙조에 붉게 물드는 마애관음보살상의 모습은 관음진신 바로 그것이다. (032)933-8271



◇동해 바닷가 암석굴 위에 자리잡은 해수관음 기도도량 낙산사 홍련암. 사찰에서 철야정진을 마친후 떠오르는 새해의 첫 태양과 마주하며 새롭게 발심해 보자.

▲남해 금산 보리암

보리암이 위치한 금산은 남해 38경으로 보리암을 비롯 망대, 대장봉, 천계암 및 주세붕의 각자가 있는 문장암 등 비경이 산재해 있다. (055)862-6500

●4대 지장기도 도량

▲철원 보개산 심원사

지장영험비'가 있는 강원도 철원 심원사는 '생지장보살 도량(生地藏菩薩 道場)'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찰이다. 무학대사가 절 이름을 심원사로 고쳐 부른 이후 더욱 많은 영험담이 생겼다. (033)455-5882

▲고창 도솔산 도솔암

보물 제280호로 지정된 도솔암 지장보살상은 도솔천 내원궁에 모셔져 있다.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참배객을 맞는 지장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다. (063)564-2861

▲서산 상왕산 개심사

개심사는 지장기도 도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허 선사 등 근대불교사의 고승들이 주석하면서 수행했던 참선도량으로도 이름이 높다. (041)688-2256

▲완주 종남산 송광사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송광사는 병자호란때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세자의 무사환국을 기원한 호국원찰이어서인지 나라에 큰 일이 있을때면 대웅전, 나한전, 지장전의 불상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063)243-868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요 기도도량

사찰(기도성지)	연 락 처
양산 영축산 통도사(적멸보궁)	(055)382-7182
평창 오대산 상원사(적멸보궁)	(033)332-6666
인제 설악산 봉정암(적멸보궁)	(011)361-2828
영월 사자산 법흥사(적멸보궁)	(033)374-9177
정선 태백산 정암사(적멸보궁)	(033)591-2469
여천 금오산 향일암(관음)	(061)644-4742
서산 간월도 간월암(관음)	(041)662-2723
곡성 성덕산 관음사(관음)	(061)362-4433
인제 설악산 오세암(관음)	(033)462-8135
동해 두타산 관음암(관음)	(033)534-8600
전남 보성 대원사(지장)	(061)852-1755
대구 팔공산 갓바위(약사여래)	(053)851-1868
청도 운문사 사리암(나반존자)	(054)372-8811
과천 관악산 연주암(나한)	(02)502-3234
영천 팔공산 거조암(나한)	(054)335-1369
제천 와룡산 고산사(나한)	(043)646-0198

철도청 '해넘이·해돋이 테마열차' 운행

철도청이 올해 말부터 마련한 '해넘이 해돋이 특별 테마열차'에 오르면 서해안의 일몰을 바라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동해안의 일출을 보면서 새해의 희망을 다질 수 있는 두가지 기회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승차권은 서울 영등포 청량리 성북 수원과 수도권 국철역에서 발매한다.

◇안면도 꽃지 해넘이, 삼척후진 해돋이=31일 운행되는 이 열차는 서울역을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해 장항선 홍성역으로 향한다. 시내 연계버스를 이용, 안면도로 이동해 꽃지해수욕장에 도착하면 서해 낙조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꽃지 해변에서 할미 할아비 두 바위섬 사이로 지는 해를 바라볼 수 있다.

◇변산반도 해넘이, 송정 해돋이=31일 운행하는 '변산반도 해넘이, 송정 해돋이' 열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북 정읍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곰소만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며 채석강으로 이동해 격포에서 서해 낙조를 관광하게 된다. 다시 열차에 몸을 싣고 조용한 어촌마을인 송정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2002년을 설계할 수 있다.

◇포항 호미곶 해돋이=포항 호미곶 해돋이 열차는 오는 31일 서울역을 밤 11시30분에 출발해 포항역에 새벽 4시께 도착한다. 포항역에서 여객선터미널로 이동해 쾌속선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연중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호미곶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일출 관광을 마치면 보경사를 관광하게 된다.

문의(1544-7788)

도서출판 참수행



각권 10,000원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

도서출판 참수행
TEL : 02-2244-6002
H P : 011-707-6002
http : //chamsuhaeng.pe.kr
http : //chamsuhaeng.co.kr
E-mail : champyc@chamsuhaeng.pe.kr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8기)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접수 : 2002년 1월 5일까지 전화 접수후 서류 제출
●개강일시 : 2002년 1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불교의식 내용에 대한 이론적 이해 설명을 겸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법당을 정성껏 지어드립니다.

콘크리트 성형기법의 특징
○ 공사기간 단축
○ 현장시공 간편
○ 목조에 비해 공사비 저렴
○ 목조에 비해 마감이 정밀하고 부드러움
○ 화재 걱정이 없고 수명이 반영구적임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설계 및 시공
○ 요사채 및 제실 설계 및 시공
○ 문화재 보수 및 복원
○ 전통한옥 설계 및 시공

○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필요하시면 지명원 및 설계도,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 불사를 원하시는 스님께 방문하여 상담 및 자문하여 드립니다.

근영불교건축
031)827-5787 (代)
017)211-4029 (상담전화)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⑧신해품 ❶장자(長者) 궁자(窮子)의 비유

중생은 원래 부처님 아들

가르침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지금까지 성문(聲聞)과 연각(緣覺)들 즉 2승(二乘)은 성불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문인 사리푸트타(舍利弗)가 수기(授記)되는 것을 본 마하카샤파(大迦葉), 마하다우드가리야야니(大目揵連), 마하카티야야니(迦旃延), 수부티(須菩提) 등의 네 사람의 대성문(大聲聞)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완전히 이해하여 다시 향상(向上)하려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자신들이 불자(佛子) 즉 붓다-푸트라(Buddha-putra)임을 천명한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 곁에서 실종되었던 궁자(窮子)가 여러 나라를 유랑하기를 50여 년, 지금은 완전히 타락하여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떤 성(城)을 찾아왔다. 한편 아버지인 장자(長者)는 이곳 저곳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아들이 찾아온 그 성시(城市)에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재산을 늘려 지금은 큰 부자가 되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궁자가 예고 없이 장자의 저택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장자는 한눈에 그가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급히 부리는 사람을 시켜 그를 데리고 오도록 했다. 그러나 아들은 뜻하지 않은 일에 놀라,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지레 겁을 먹어 기절하고 만다. 장자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믈라보고 심근(心根)도 완전히 타락해 버린 것을 알고 일단 그 아들을 놓아 보내고 나서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냈다. 그는 은밀히 두 사람을 보내 그 아들에게 접근시켜 자기 저택에 데리고 와서 일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장자는 이것저것 방편을 써서 그 아들에게 접근하여 차츰차츰 익숙해지도록 했다.

그러기를 20년이 흘렀다. 궁자는 아버지인 장자와 마음이 서로 통하여 재산 관리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궁자는 자기가 고용인이라는 처지를 잊지 않고 마음을 더욱 의연히 하여, 장자가 가진 재산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궁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비열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부끄러워 하며 넓고 큰 마음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아들의 마음을 알게된 장자는, 자기의 임종 때에 이르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의 친아들이니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물려준다"고 선언했다. 그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 돌연히 생기자 "지금 이 보배(寶藏)가 스스로 내 것이 되었다"고 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이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째, 장자와 그 아들이 원래부터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장자인 아버지는 부처님으로, 그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어린 애는 직접적으로는 이 비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마하카샤파(摩訶迦葉)를 비롯한 성문들에 의제(擬制)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여러 나라를 찾아 유랑(流浪)하는 궁자는 지금껏 부처님의 유인에도 접하지 못하고 따라서 성문으로도 되지 못한 미혹한 범부라고 한다면, 이 궁자는 생사의 세계에 침몰(沈淪)하는 미혹한 중생으로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까지도 포함된 우리 모든 중생이 원래부터 부처님과 친자관계에 있는 것이 된다. 즉 우리들 모두가 본래적으로 부처의 아들, 불자(佛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말하고자 하는 점이다.

스승이 제자의 득법(得法), 또는 설법 등을 증명하고 인가하는 경우를 인가(印可)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고백을 한 네 사람의 큰 성문들에게 각각 제6장 수기품에서 수기하게 된다. ▩무설정사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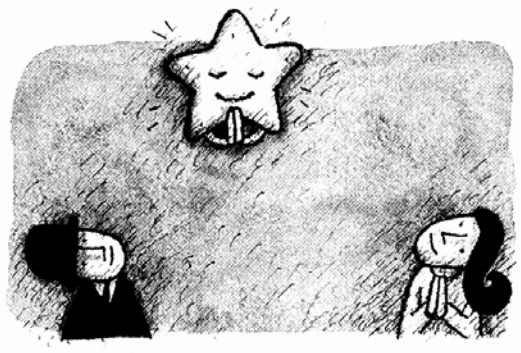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佛法대로 운행하는 우주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⑩

상의적 수수관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은 공존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의 주고받음 즉 에너지의 상의적 수수관계라 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음이 있고, 받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줌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주고받음이라는 상의적 수수관계는 존재의 한 양식이기도 하다.

태양계 내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 태양과 중력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며, 각 행성들은 주위의 다른 행성들과 끊임없이 인력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기에 태양계는 살아있는 것이다. 별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안정된 상태를 찾아 진화해 간다. 특히 별들이 많은 모인 성단에서는 별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기 때문에 조우, 섭동이 잦다. 그래서 상의적 수수관계가 역동적으로 일어나 각 별들이 지닌 초기의 고유 특성이 사라지면서 차별과 대립이 없는 이완 상태가 달성된다.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들의 경우에도 에너지를 주고받는 수수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된 상태를 찾아 진화해 간다. 결국 우주 내의 만물은 서로간에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상의적 수수관계를 통해 보다 발전된 단계로 계속 진화해간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보면 우리는 우주적인 긴 진화과정의 한 단면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경험적 인식 세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상의적 수수관계를 통한 이완의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긴 우주적 시간 척도를 갖는 별의 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별들은 서로 끊임없이 에너지 주고 받으며 안정된 상태로 진화

별들은 조우, 섭동에서 일어나는 상의적 수수관계에 따른 변화에 최소 작용의 원리로 대응한다. 즉 최소 에너지로 순응, 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항상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최소 작용의 원리는 급격한 에너지의 주고받음이 일어나는 혼돈상태에서도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별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 전체에서 최소 작용의 원리는 성립한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산천의 초목이 유형으로 태어났다가 무형으로 사라지는 자연적 진화과정,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삭고 부서져 원래 태어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등 만유가 자연상태에서는 최소 작용의 원리에 순응하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객체와 주체(현실적 존재)의 상의적 수수과정을 보면, 조우, 섭동을 경험하는 초기 위상을 거쳐 순응하고 수용하면서 대응, 적응하는 호응적 위상에 이른 후 외부 반응에 대해 자기조절, 자기통제를 일으키는 보완적 위상으로 접어든다. 물리적 느낌이나 물리적 파악이라는 물리적 극(極)을 거치면서 자기 초월체라는 주체적 지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수수과정을 통해 개체의 특성이 변화하면서 과거를 상실하고 새로운 개체로 탄생된다. 이러한 개념적 느낌이나 개념적 파악이라는 정신적 극(極)을 거치면 주객의 평등성과 보편성, 창조성, 이완된 안정성 등이 달성되는 최종 위상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시 외부와의 상의적 수수관계를 통해 계속되면서 보다 발전되고 안정된 상태로 진행해 간다. 이상은 철학자 화이트 헤드의 과정철학(유기체 철학)의 개념 구조에 따라 상의적 수수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것은 우주 만유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결코 불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즉상입(相卽相入)의 이치임을 알 수 있다.

인간 관계에서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 그에 대해 반응하며 정신적, 육체적 방법으로 자신을 조정하고 제어하면서 그전과 다른 상태로 자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자신은 동일하지 않으며,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자기 초월성이다. 초월성을 달성하는 과정이 자연의 섭리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따라 불법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지기도 한다. 인간은 우주 속의 한 개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연히 우주의 섭리를 따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 속에 우주의 불법이 내재해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우주의 천체들은 불법을 잘 다르면서 또 새로운 불법을 만들어 가는데, 인간은 불법을 잘 따르지도 못하면서 고정된 불법에 얽매이는 것은 아닌지? 〈유마경〉의 제자품에 이런 말이 있다. "…법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나니 항상 어디나 머물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공에 따르고 형상 없는데 따르며 인연 따라 지어진 것 없는 것을 순응하며, 법은 좋고 나쁜 것을 여의고 법은 더하고 덜함이 없으며, 법은 돌아 갈대가 없으며, …법은 높고 낮은 것이 없으며, 법은 항상 머물고 흔들리지 않으며, 법은 온갖 생각하는 경계를 여의였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그늘진 이웃 없어야죠" 314개 단체 '나눔의 삶'

호주의 불교단체 대부분이 수행의 방편으로 불우 이웃들을 돕는 일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호주 코웬 대학에서 인류학을 강의하는 페트리시아 쉐우드(P.Sherwood) 교수가 온라인 불교저널 '불교윤리'(Journal of Buddhist Ethic)에 게재한 '호주 불교계의 사회복지 공헌도'라는 논문에 따르면, 호주의 불교단체 319곳 중 314곳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소외된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

지구촌 불교 / 호주 불교계 사회복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314개 불교단체에서 호스피스 서비스(54%), (61%), 재소자 지원(39%), 마약중독자 재활(24%), 푸드 뱅킹(Food Banking, 52%), 인권 · 낙태 등 사회문제참여(61%)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쉐우드 교수는 "이는 호주의 불교단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교단체들이 복지 프로그램의 다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복지 분야에서의 불교계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문에 따르면, 멜버른, 시드니, 투움바 등 호주 주요 도시에 분원을 설치한 서구불교도교우회(The Friends of Western Buddhist Order)는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보시 법회'를 열고 있다. 교우회는 이때 인과법을 주제로 한 특강을 마련해 도시 빈민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한편 후원품도 전달하고 있다.

국제불광회(The Buddha Light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매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교 윤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낙태, 이혼, 동성애, 자살, 마약중독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미래의 불우 이웃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제불광회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성인병 예방을 위해 채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호스피스 · 푸드뱅킹 · 재소자 돕기
"부처님 가르침 사회화" 다양한 실천

1백여 병상을 마련하고 죽어가는 노숙자와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관세음보살 호스피스(The Hospice of Mother Tara), 마약이나 알콜 등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팔앨 달마 그룹(Pallyal Dharma Group)도 호주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쉐우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서양은 사회참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차원에서 설명되기보다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가 호주 불교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호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1860년, 이후 호주의 항구도시인 멜버른에 상좌부 계열의 불교단체가 1952년 처음 결성된 이래 중국, 일본, 티베트계 불교 단체들이 속속 생기면서, 현재 319개 불교 단체(2001년 8월 기준)가 활동하고 있다.

쉐우드 교수는 〈호주불교사〉(History of Buddhism in Australia)의 저자 필립 휴즈(P. Hughes)의 말을 인용, "호주 불교인은 지난 15년간 3만5천여 명에서 20만여 명으로 약 500%의 급성장을 보였다"며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가르친 자본주의에 지친 호주인들이 나눔의 삶을 가르치는 불교에 깊이 매료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불교단체들이 복지에 관심을 쏟는 현상이 불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 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 목초 수액 시트 -

화제의 발 건강법



◉ 목초수액이란? 나무가 지하로 부터 물을 빨아올리는 힘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뿌리로 부터 수액을 빨아 올려 잎으로 가는 사이에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 원리에 의하여 발바닥에 붙여 여분의 수액과 노폐물을 빼주는 방법이다.

◉ 배독요법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힌다
나무의 천연성분을 분말로 만들어 발바닥과 환부에 붙여 수독을 배출 혈액을 깨끗히 정화하여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수분인데 여기 오염된 수분을 제거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잠자는 동안에 배출한다
전신이 편안한 상태인 수면 중 발 바닥으로 부터 뇌로의 자극전달이 제일 좋으며 낮에 활동하면서 아래로 쌓인 노폐물을 잠자는 사이에 빼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옹천에 시트를 붙이면 수분의 빠짐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21C 새로운 건강법 목초 수액시트
우리 몸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몸에 대사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우리몸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1455-6944, 021453-5851

간 헛개나무 열매로 간염치료!

(MBC 9시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26일 보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

- 헛개나무열매 임증 발표



2001.1.30 MBC 9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8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신물질 개발

숙취와 위장에 좋은 헛개나무열매(지구자) 해장국

나천수 박사(산림청 임업연구원 박사)
간기능을 회복시켜서 간염이나 지방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과정

원재료 및 성분 배합 비율 : 헛개나무열매(지구자) 95%, 줄기 2% 잎 2%, 칡 1% - 국내산 100%

헛개나무 열매(지구자)를 무색소 무방부제 무첨가물을 특수가공 추출기로 고유의 색상과 맛을 유지하면서 성분 파괴가 되지 않도록 온도 약 100~110가 넘지 않게 6시간 이상 달여서 100mg씩 포장, 1달분 60포로 주문 판매 및 통신판매를 한다.



헛개나무열매(지구자)

자료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 · 문의전화 041-852-0468
041-852-0469
민속식품(민속농원)



◇골무와 바늘꽃이



◇쌈지와 약낭



◇이번 전시에는 2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성스레 만든 주머니 · 노리개 · 보석함 등 우리 전통 생활자수품 70여점이 전시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바늘과 실로 엮어낸 인고의 예술

전통생활자수 紙上展

동국대 사회교육원 자수과 학생들

바늘꽃이 · 향낭 등 70여점 선보여



◇다라니 주머니

자수(刺繡)는 한땀 한땀 바늘과 실이 수백 수천 번을 움직여 엮어내는 예술이다. 한올 한올의 색실이 각각으로 또는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빛깔의 조화를 연출해 내고, 형형색색의 경이로운 조형의 세계를 펼쳐낸다. 그것이 바로 자수의 묘미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쉽게 되지는 않지만 작은 바늘과 비단실이라는 간단한 도구로 삼라만상을 정교하게 묘사해 내는 자수야말로 지극한 정성과 인고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작업이다.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물건을 싸는 작은 보자기, 주머니, 일상복에까지 수를 놓았고, 그 솜씨는 끊임없이 여인들의 손끝으로 이어져 그 생명을 이어왔다. 우리 나라 전통자수는 염색기술과 색의 조화, 시각적으로는 물론 촉각적으로도 뛰어난 표현 능력과 예술성을 자랑한다. 특히 복록한 질감의 독자적인 기법인 자릿수로 구사되는 불교자수는 다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데, 우리 전통 자수의 뿌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해 온 자수문화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수 실 만드는 것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의 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다소곳이 앉아 수줍은 얼굴로 수를 놓던 새색시의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도 자수 작품을 접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홍은주씨作 흉배 6곡 병풍 가운데 일부분.

정성으로 엮매 맺는 우리의 생활 예술인 자수의 맥을 오늘에 계승하고 있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전통자수과 학생 25명이 19일~25일까지 서울 인사동 서호갤러리에서 '전통 생활자수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20대 대학생에서부터 30~40대 직장인, 50대 주부, 80대 할머니까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직장 일로, 가정사로 하루 하루 바쁜 가운데서도 어렵사리 짬을 내 한땀 한땀 자신의 꿈과 우리문화의 전통을 수틀에 담아온 이들은 작은 골무에서 부터 바늘꽃이 · 돌띠 · 주머니 · 향낭 · 노리개 등을 정성스레 만들어 내 놓아,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살뜰하고도 은근한 기쁨을 선사했다.

뛰어난 자수 솜씨를 선보인 홍은주씨의 '흉배 6곡 병풍', 4년째 수를 배우며 관세음보살상 수놓기를 발원하고 있는 현명희씨의 '화초장', 장가갈 손주에게 주려고 만든 81세 장관주 할머니의 '보석함 · 예단함' 등 정성이 가득 담긴 전통 생활자수 70여점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이번 자수전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작품까지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피부색과 눈빛 생활양식과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 자수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 저마다의 솜씨를 뽐냈다.

미국인으로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레슬리 화이트 씨는 방학 때마다 한국을 찾아와 수를 배워왔는데, 이번 전시에 '화해도 4곡병풍'과 '학액자'를 출품했다. 춘천 한림대 영어학당 강사로 매년 명절 때마다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장기자랑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은 경력의 소유자인 미국인 레슬리 밴필드 씨는 '해태흉배'와 '쌈지', '꽃나들이 액자'를 출품했으며, 캐나다인 디엔 마크레인 씨는 '초충도 4곡 병풍'을, 일본인 후지타유미 씨는 '귀주머니'와 '꽃나들이 액자'를 선보였다.

학생들과 함께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지도교수 유희순씨는 "학생들의 수실력이 더욱 노련해지면 수불(繡佛) 등과 같은 대형 작품도 함께 해 볼 생각"이라면서 "작고 보잘 것 없는 전시이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그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한국 자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초충도 병풍' 선보인 캐나다인 디엔 마크레인씨



◇캐나다에서 한국 전통자수 강좌를 여는게 꿈인 디엔(오른쪽)과 안소니 부부.



◇디엔 作 '초충도'

"병풍으로 만들어진 걸 보니 더 예쁘네요."

녹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끝내고 전시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캐나다인 디엔 마크레인(33)씨. 2년 전부터 한국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에 빠진 디엔이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은 '초충도 4곡 병풍'이다. 퇴근 후 매일 1시간씩 1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매주 토요일 동국대 사회교육원 '전통자수반'에서 자수를 배운 디엔은 "선생님에게 '다시, 다시'라는 한국 말을 지겹도록 들었다"면서 "직접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토록 힘든 자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매일 1시간씩 1년 작업

캐나다에 돌아가 '한국 전통자수 강좌'를 여는 것이 디엔의 장래계획이다.

디엔이 집에서 수 놓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은 남편 안소니도 올해 초부터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자수를 배웠다.

디엔은 "한국 자수는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직접 수를 놓으면서 인내심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며, 앞으로 안경집이나 노리개 같은 소품을 만들어 친구들과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크리스마스나 새해 선물로 직접 수 놓은 복주머니를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자수 예찬론자 디엔의 제안이다.

여수령 기자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요엔) 양로원의 여러 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최눌선사 '悟道花'

최눌 선사는 5~6세 때 땅에 떨어진 종이만 보면 줍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 글이 쓰여진 종이를 주우면 벽에 붙이면서 "내가 이 뒤에 배울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특이한 행동에 사람들은 그를 '숙세(宿世)의 신령스러운 싹' 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숙종 44년(1718) 지금의 고흥인 흥양현 장사촌에서 태어난 선사는, 4세 때 부모님을 따라 낙양읍 응계촌으로 옮겨와 살다 14세에 증광사에서 축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세에 동정첨지(頓淨僉知) 대사에게 사미계를 받고 19세에 만리(萬里) 대사에게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사의 법명은 최눌(最訥), 법자는 이식(耳食), 법호는 묵암(默庵), 속성은 박 씨다.

먼저 조계산에 주석하고 계신 풍암(楓庵) 화상에게 5년 동안 수학하며 여러 경전을 두루 공부했다. 그리고 호암(虎岩), 회암(晦庵), 용담(龍潭), 상월(霜月) 선사 등 당시 여러 큰 종장(宗匠)들을 찾아다니며 수참하였다. 마침내 명진(明眞) 선사로부터 선지(禪旨)를 얻었다. 또한 영해(影海) 선사에게서 격외(格外)의 선지를 깨우쳤으며, 용맹정진 2년째인 정월, 이르게 핀 매화꽃을 보고 확연대오 하였다.

오도화(悟道花 : 깨달음의 꽃)

盡道明星夜夜廻(진도명성야야회)
當寒須信雪中梅(당한수신설중매)
塵沙久却云成佛(진사구겁운성불)
何用如今正覺來(하용여금정각래)

밝은 별(깨달음의 별)이 밤마다 돌아온다고 모두를 말하는데,
추위를 당해 비로소 눈 속의 매화를 볼 수 있네.
진사(塵沙 : 재물이 티끌과 모래처럼 많다는 뜻)의 오랜 겁(劫)전에 부처됐다 하거니,
무엇하러 아직까지 깨치려 하는가.

불조욕(佛祖浴 : 불법에 때를 씻은 마음)

洗沐春山古澗濱(세욕춘산고간빈)
虛明無復可淄塵(허명무복가전진)
本來淸淨何須浴(본래청정하수욕)
但滌多生罪業身(단척다생죄업신)

봄 산골짝 오랜 시냇물에 목욕하나니,
텅비고 환히 밝아 다시 씻을 티끌 없다.
본래 맑고 깨끗한데 무엇 때문에 목욕을 하는가,
다만 여러생 죄업의 몸을 씻을 뿐이네.

선사의 깨침과 가르침은 하늘이 침묵하다 할 말이 있어 천둥으로 말을 하는 것과 같고, 땅이 침묵하여 말하지 않다가 바람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이(頤: 말로서 깨닫는 것)의 선갈이다.

하늘의 말인 천둥은 무망(无妄 : 흥망이 없는 깨달음의 극)으로서 백과(百果)의 싹을 트게 하여 만물을 기르는 것이며, 땅의 말인 바람(風)은 관(觀 : 소리로 보고 듣는 것 즉 깨달음의 천리안)으로써 썩고 부패하여 나쁜 향기와 악을 날려 보내어 깨끗한 땅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사람은 모름지기 도견(陶甄 : 만들어지는 그릇)과 같으므로 행주좌와(行住坐臥)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람은 누구나 적적(寂寂)하게 만들어야 상승(上乘)에 머물 수 있다고 가르침을 주었다. 마음이 항상 고요하지 못하면 형상이 있는 온갖 물건과 세상의 모든 일을 고무(鼓舞 : 천둥이 울어 흔들고 바람과 비가 불어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것)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사람은 항상 과묵하여야 한다. 과묵은 침묵의 본색(本色)으로서 침묵의 본지(本地)가 광경(光景)하는 것이다. "마음이란 어떤 물건인고. 말할 때는 말이 그것이요, 침묵할 때는 침묵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선사의 큰 가르침으로 하여 선사의 회상에 모여드는 납자,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많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최눌 선사는 정조 14년(1790) 조계산 보조암에서 좌탈입망하였다. 세수 73세 법랍 54세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추위를 당해 비로소 눈속의 매화 볼수 있네

"편안하고 안락함 수행자의 독"



◇9세 어린나이에 동진출가한 법홍스님은 율사로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청정수행생활로 수행자의 귀감이 되고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법 홍 스 님 (원효종 종정)

법홍 스님은? 법홍스님은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고 맑으면서도 인자하기 그지없는 노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율사여서 아주 엄하고 근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스님과 마주하면 금방 사라져 버린다.

법홍스님은 1915년 서울에서 태어나 9살에 안양 삼막사로 출가했다. 1930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운학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35년 영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건봉사에서 사교 및 대교과를 마친 스님은 월정사, 법주사, 쌍련선원 등에서 수행하다 24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강원과 회애사 불교전문학원에서 수학했다. 그렇게 맺어진 일본불교와의 인연으로 81년 한 · 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79년 묵담스님으로부터 제10대 동국율사 전법을 받은 스님은 지난 11월 수진스님(태고종 용화사 주지)에게 해동율맥을 전수하는 자리에서 "묵담스님께 법을 물려 받은 이후 부처님법을 여법하게 잇지 못할까 늘 염려해 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불교의 청정한 율맥을 이어가겠다는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1963년 원효스님의 사상을 현대에 되살리는 생활불교를 표방하며 원효종을 창종한 스님은 원효종 총무원장과 7 · 8 · 9대 종정을 지내고 제10대 종정에 추대돼 지난 18일 추대법회를 가졌다. 부산 금수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스님은 구십 노구도 잊은 채 일본, 미국 등을 오가며 원효스님의 무애 평등한 사상을 펴고 있다.

〈관무량수경〉에 보면 '계향훈수(戒香勳修)' 라는 말이 있다. 훈습을 통해 계향이 몸에 스며들어 그 사람의 덕향이 온 사방에 풍긴다는 뜻이다. 안이비설신의 육근에 와닿는 술한 자극들을 제거하고서도 마음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덕향이고 보면 결코 속일 수 없는 경계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부산 초량동 산복 도로, 버스를 내려서 가파른 경사의 108계단을 올라야 절문 앞에 닿을 수 있는 금수사는 평생 청정비구로 계율을 근본 삼아 살아온 법홍스님의 계향을 느낄수 있는 도량이다. 금수사 곳곳에 스며 있는 스님의 자취처럼 법랍 78년을 맞은 율사 법홍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청정한 계향이 역시 자연스럽게 풍기는 것을 알수 있었다.

밤이면 부산시내의 야경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금수사를 오르는 계단에서 스님과 마주쳤다.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한다. 아직도 종단 내외의 대소사를 챙기며 전법 활동을 널리 펴시는 스님은 젊은 사람도 숨 차 하는 계단을 지팡이 하나로 가뿐히 오른다. 87세라는 세수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스님의 건강은 곧바로 스님의 수행력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53살의 나이로 100일 동안 280군데의 절과 불상을 참배하는 '회봉수행' 을 성만한 일화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회봉수행' 은 일본 천태종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하루에 800고지의 산을 70여 리나 걸어야 하는 수행이다. 일본 천태종에서는 이 수행을 마쳐야 주지 자격을 준다.

"53살이나 된 사람이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만류가 심했어. 일년에 2~3명씩, 20~30대의 젊은 사람만 하는 공부법이니 아예 허락을 하지 않았지. 주지스님과 불교학원 원장이 보증을 서 주어서 겨우 동참했어요. 불교가 일본에 들어온 이후 100일 회봉을 해낸 외국 스님은 내가 최초였다고 해." 스님은 그렇게 눈이 채 녹지 않은 산을 하루 12시간씩 걷는 힘든 수행을 마쳤고 산에서 3년동안 두문불출하는 수행과 8년 안거를 계속했다. 이후 61살의 나이로 일본의 보림사 주지를 지낸 스님은 지금도 일본을 오가며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스님은 일본어에 능통하다.

"한 달이면 반 이상을 일본에 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일본 절에서는 할 일이 많아. 내가 일일이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해야 하고 300평이 넘은 정원의 정원수 가지치기도 하고, 어느 땐 가지치기만 해도 며칠씩 하거든. 그에 비하면 금수사에서의 일상은 너무 할 일이 없는 편이지.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 스님들의 생활은 너무 편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수행생활이 편한것은 좋지 않아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이 수행자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하시는 말씀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사를 깨치기 위해 출가한 스님들이 도리어 안락함을 탐하거나

스스로 경책할 때도 타인 꾸짖을 때도 그 기준은 부처님 법

고급 취미를 갖는다면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으니,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수행자답게 검소하고 간명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지금도 원효종 행사장 여기저기를 다니며 직접 행사를 지시하곤 한다. 수십년 동안 몸에 스민 근면함과 철저함은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이들에겐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스님의 부지런함과 철저함은 유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스님의 행동기준이 늘 부처님을 향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경책할 때도, 또 타인을 꾸짖을 때도 스님의 기준은 하나, 오로지 부처님 법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부처님이 가르친 그대로를 행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금도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서원을 새벽예불 때마다 되새기고 있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주전서

■ 고불송림 방장 시응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부산 051)637-2333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원효종 제10대 종정에 재추대돼 18일 추대식을 가진 법흥스님.

"도 높으면 마음 낮추고 명예 높으면 이름 낮춰야"

"스님도 스스로 부족하다거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한 분이기에 짐짓 당돌한 질문을 드렸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잠시의 틈도 없이 돌아온다.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야. 허허허.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모두 여의어야 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아직도 나라는 상, 즉 아상을 버리지 믓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지. 네가지 상을 모두 떠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떠난 게 없으니 그게 단점이야. 단점 중에서도 아주 큰 단점이지. 그러면 네가지 상을 어떻게 하면 떠날 거냐, 그게 문제야. 부처님 말씀 가운데 그 사상(四相)도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 그 상 가운데 있어도 상에 취하지 말아야 하겠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취하지 말고 도가 높더라도 마음을 낮추고 명예가 높더라도 이름을 낮추고 하심하면서 모든 불자를 이끌어 주어야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잘 안되고 있어요."

오직 자신의 행동이 부처님 법에 맞는지를 살펴가는 스님의 행동 준거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다. 또한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원효종 내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남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오직 자신의 행동이 법에 맞는지를 살피라' 했던 부처님 말씀을 떠오르게 했다.

"종단을 이끌려면 권속들을 잘 두어야 하는데 권속을 잘 두고 못 두고는 자기의 법력 가운데 있고, 자기의 수행 가운데 있는 것이니 분란이 일어난 것은 내 수행과 정진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면 그런 분란들도 귀의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무더웠던 올 여름 보문사에서 회향한 오후 불식 100일 묵언기도와 고대도에서의 일주일 관음기도 모두가 스스로의 정진 부족을 경책하는 것이었다. 젊은 제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기도 100일째가 되는 날, 오랫동안 단청 불사를 못해 애를 태우던 아산 보문사의 대웅전, 관음전, 누각 등의 단청 불사가 회향되었다고 한다. 보문사를 지으신 석주스님(철보사 조실)은 종단의 원로스님 중에서도 가깝게 마음을 나누며 지내는 사이라 단청불사 회향의 기쁨이 더욱 각별했다.

"나이도 많고 승려생활도 어려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모든 게 순간처럼 지나가 버렸어. 부처님께서도 인생은 풀끝의 이슬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 더욱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 한 순간이고 한 찰나이기 때문이지. 부처님께서는 네가지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인간의 몸 받기 어렵고 사내 대장부 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출가하기 어렵다고 했어. 여기서 출가가 어렵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 깎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참된 출가수행자란 승복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근본 뜻을 터득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스님인 게지.

모두들 한 해가 가고 있으니 여태껏 허송세월만 해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발심해야 합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불제자들이 다가오는 새 해에는 새로운 발심으로 원력을 세워 본래면목을 찾는 노력을 더욱 열심히 했으면 해요. 이왕 이 세상에 나왔으니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어야지. 후대의 권속들에게도 모범이 되려면 내가 먼저 청정하고 철저해야 해."

법흥스님은 87세 삶이 순간처럼 지나갔다고 했지만 그 편린이나마 자세히 듣고 싶었다. 스님의 젊은 시절은 스님이 들려주는 얘기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처음 안양의 삼막사로 출가한 이후 호압사로 옮겨 노스님 한분을 모시고 지내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독살이 절이니까 학교 갔다 오면 절구로 보리방아도 찧고 우물에 가서 물도 길어오고 그랬어. 9살에 시작된 절생활이 경허스님께서 득도하셨던 청계사를 거쳐 화장사로, 지장사로 이어져 나중에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4년 정도 공부하게 됐지."

대륜스님의 소개로 금강산 유점사 강원으로 가게 된 스님은 그곳에서 사미가 되었다. 5년 만에 사미가 된 것이다. 그때 유점사 선방에는 만공, 효봉, 청담, 고암 스님 등이 공부하고 있었

"부모님도 부처님 잘 공경하는 일 불제자의 근본"

는데 그곳에서 차를 나르고 따르는 다각 소임을 맡았다. 유점사에는 15살부터 18살까지 있었는데 효봉스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다. 효봉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스님은 훗날 해인사에서 5년 정도 스님을 모시고 살았고 송광사에 계실 때에는 방학때마다 찾아뵙곤 했다.

"효봉스님은 언제나 '어묵동정 가운데 이뭐꼬만 잃어버리지 말라' 고 당부하셨어. 3년 동안 토굴 정진을 하고 나오셔서 만공스님께 인가를 받고 입승을 했는데 그 분 정진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늦깎이라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며 한번 앉으면 포행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근래 수좌로서 그분만큼 철저한 수행납자도 드물어. 그분을 보며 나도 과거의 조사스님처럼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발심을 하곤 했지."

스님은 효봉스님을 모시고 계속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금수사 주지, 원효종 총무원장을 거쳐 현재 종정에 와 있는 것이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것이라며 효봉 스님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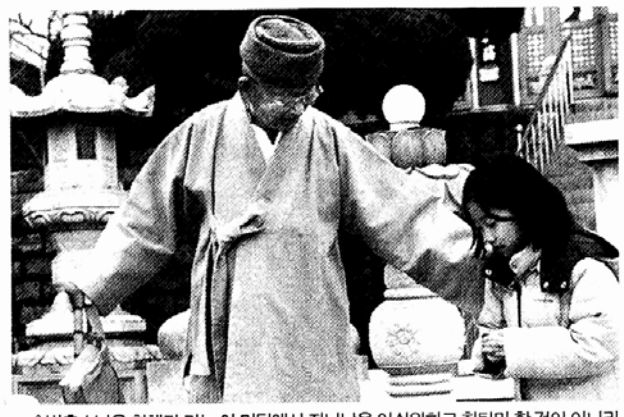
"불문에 들어온 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야. 백천만겁난조우라는 말이 있잖아.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만나 불문에 들어왔고 출가 본연에 충실해 살자고 맹세를 했으니 그것 이상 행복한 게 어딨겠어?" 스님의 행복론이 이어진다.

"우리절 신도 중에는 노보살이 많아요. 만공스님이나 경봉스님께 화두를 받아 오랫동안 수행해온 이들이어서 내가 오히려 배워야 될 정도로 수행이 깊지. 내가 공부를 물으면 '묻는 스님은 어떤 화두를 갖고 나한테 묻습니까?' 하거든.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내가 묻습니다' 하면 '스님이나 내가 돌이 아닙니다. 몸은 다르고 생각하는 이념은 다를지언정 부처님의 혜명은 스님이 가진 것이나 내가 가진 것이 같지 않습니까? 본래 물을 것도 없고 답할 것도 없습니다' 하거든. 이렇게 더불어 공부하며 지내는 것이 승가의 생활이지. 어때? 이만하면 행복하지? 하하하!"

불법을 통한 생활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님은 일반 신도들에게 신심을 가지고 법문을 많이 들을 것과 실천수행 할 것을 늘 강조한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관세음보살 화두를 잡아야 해. 부처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미타불이고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라 생각하세요. 항상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관세음보살로 모시면 바로 그 어머니가 가피를 주거든. 꼭 금수사에 온다고 해서 정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수사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가피를 받는 게 아니야. 집에서도 항상 어머니를, 아내를 관세음보살이다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불제자의 근본 정신이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새 해에는 부처님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래요."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법흥스님은 한해가 가는 이 마당에서 지난날을 아쉬워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발심하고 새롭게 원력을 세워 본래면목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하자고 강조하신다.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기성스님

승속을 막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참 힘들다.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노병사를 지닌 그 자체만으로도 점점 힘들어진다. 물론 지혜로운 이는 고(苦)로 가득찬 삶을 슬기롭게 이겨나간다. 그 슬기로운 삶은 혼자 힘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곁에 늘 도반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도반이란 세속에서 말하는 친구의 의미를 넘어선다.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길벗이면서, 때로는 선지식 역할까지 해야 하는 존재이다.

지난 여름, 장마가 처음 시작될 무렵 삼천포에 홀로 사는 내 도반이 수재를 만나 큰 피해를 봤다. 산중에 혼자 살다 그러한 재난을 만나면 황당하기 짝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더구나 수재를 겪게 되면 물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밀려든 토사와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려, 그것을 치우는 일만도 엄청나 아예 기가 질려버린다. 나는 수재 소식을 들었지만 벌려놓은 일 때문에 금방 내려가 보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었다. 다행히 강원도에 사는 도반과 삼천포 근처의 도반들이 모여 복구를 도와주었는데 그만, 그 날 내 도반은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다.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리의 돌쇠' 같은 삶
대중생활의 버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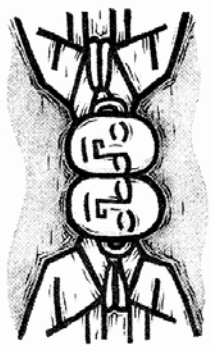
남은 수해복구를 후배인 기성(起性) 스님이 도맡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성스님. 내 기억 속에는 자그마한 체구에 당당함이 넘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할 뿐더러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때엔 어김없이 나타나 힘이 되어주는 '의리파' 다. 게다가 '고집' 이라 부르는 아주 대단하고 강한 의지력이 있어, 칭찬이나 비난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 빛나는 현명함을 지닌 스님이다. 수좌로 제방을 누비고 다니더니 진주 명석면 대덕암에 걸망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 근처에 아는 스님들이 많이 살고 있어 든든한 마음이 들던 차에 삼천포에서 수재를 당한 스님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그 힘든 일들을 마다 않고 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한 스님 보살피랴, 수재가 난 절을 청소하랴 동분서주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다.

병원으로 찾아간 내게 도반스님은 기성스님이 관세음보살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해라는 재해는 만났지만 고마운 스님을 만난 것은 새로운 기쁨이라며 즐거워했다.

그 험난한 여름이 지나가고 초겨울이 왔을 때 어느 도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마침 발인이 다음날 아침이라 나는 벽제화장터로 갔다. 거기서 기성스님을 보게 됐다. 15년만이었다. 우리는 그곳이 화장터인 것도 아랑곳 없이 박장대소하며 반가워 했다. 예전의 청순함(?)은 사라지고 조금은 나이든 모양새를 풍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기성스님, 몸이 좀 불긴 했어도 여전히 그대로네! 그나 저나 여름에 애썼지요? 병원 쫓아다니느라고 고생했겠어요." "하하! 고생은 무슨 고생. 함께 사는 거지요, 뭐.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다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래 '의리의 돌쇠' 잖아~. 우하하!"

'의리의 돌쇠'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표현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대중에서 함께 살며 수행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 홀로 토굴에 정착하게 되면, 수행과 운신의 폭도 함께 좁아져서 생각이 단조롭고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다. 하지만 대중속에서는 늘 묵묵히 수행하며 타인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스님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 삶이 대중을 화합하게 하고 대중생활의 존립에 버팀목이 되어준다. 두 무더기의 갈대단처럼,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만 서 있



을 수 있고 만일 하나를 치워 버리면 다른 갈대단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내가 있음으로 네가 존재하며 네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기의 도리를 살펴 잘 안다면 우리가 만난 모든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날 기성스님은 그 많은 도반들을 뒤로 하고 상주인 스님과 함께 유골함을 모시고 비행기를 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부르면 곧바로 달려가고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것도 무상한지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처음의 마음에서 벗어나 심드렁해지거나 무덤덤하게들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성 스님은 언제나 한결 같다.

부처님께서는 〈인과경〉에서 말씀하셨다. "벗 사이에도 세가지 긴요한 일이 있으니, 첫째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며, 둘째는 좋은 일은 마음깊이 함께 기뻐하고, 셋째는 불행할 때 서로 버리지 않음이라." 기성스님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도반이다.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북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귀 대창 불교 건축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고건축 시공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한옥(전통한식)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귀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판매 종류규격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1자 ~ 2자까지
◦기둥 ◦도리 ◦대들보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찰나의 깨침
◉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우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을 스스로 소멸, 확인하며 집착과 번민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 매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깨침의 숲을 거니는 기쁨(환희)을 몸소 경험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평온과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실현 합니다.
부족함없이 사는 지혜를 자녀에게도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요
수련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 수련
총心田 대광사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땀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문화소식

화엄경 여래 출현품 강의용 테이프 나와



불교방송은 '경전공부' 프로그램에서 인기리에 방송됐던 동국대 불교학과 해주 스님의 〈화엄경 여래출현품〉을 테이프로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에 출시된 테이프들은 해주 스님이 불교방송에서 7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 동안 경전공부시간을 통해 방송한 내용을 강의용으로 별도 제작했다. 6권용 테이프 20개로 제작된 이 테이프에는 〈화엄경〉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돼 있다. 1세트당 6만원. 02)706-3502

국악교성곡 '혜초' 28일 다시 무대에



◇지난 1999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혜초'

불광마하보디합창단의 '송년음악회'가 28일 오후 7시 한전아츠플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국악 창작 찬불가로 꾸며지는 1부와 지난 1999년 국립극장에서 초연했던 국악교성곡 '혜초'를 재공연하는 2부 무대로 구성됐다. 불광사 불광법회 주최로 열리며 불광마하보디합창단, 중앙대 음대성악과 남성합창단 등과 성악가 도신스님, 국악인 최진숙씨, 바리톤 유훈석 등이 출연한다. 02)420-3300

전기만·허길양 씨 '목조각' 인간문화재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로 전기만(72·사진 위)씨와 허길양(48·사진 아래)씨를 인정하고, 이진형(45)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이로써 목조각장 보유자는 박찬수(52)씨 등 3명으로 늘었다.

결 산 2001년

불교문화계

산사 축제 지역민에 호응

전국 사찰 음악회·단풍제·연꽃제 잇달아
송암 스님 생전 육성 채록 범패 원형 CD에

산사음악회 자리 굳혀= 산사음악회와 지역 축제 등 한해 불교문화계를 이끌어간 핵심적인 두 단어다.

2001년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역문화의 해'였던 만큼, 불교 문화계 역시 지역 사찰과 연계한 산사음악회와 축제 등이 여느 해 보다 두드러진 한 해였다.

이른 봄부터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초파일과 가을 단풍철 등으로 이어지며 전국 20여 곳의 사찰에서 다양한 형태로 열려, 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청량사의 경우는 지역민을 비롯 전국에서 5천여 명이 모여들어 화제가 되었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미황사 작은 음악회, 진천 보탑사 음악회 등도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하는 등 산사음악회는 새로운 불교 문화포교의 대안으로써 확실한 자리를 굳혔다. 지역 축제 역시 하동야생차축제를 비롯해, 풍학사 봄꽃 축제, 무안 연꽃축제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려 새로운 문화관광의 보고로 적극 활용됐다.

무대예술분야 성과 저조= 연극과 무용 등 무대예술분야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한 해였다. 불교 사상을 작품에 녹여낸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 '끽다거-연꽃의 노래', '바리공주' 등 연극과 '빨간 부처' '동다송' '사천왕' '카르마' 등의 창작 무용 작품이 선보였으나 대중과의 교감 면에서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지난해 선보였던 '오페라 직지' 등과 같은 우리 문화의 원동력으로서의 불교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대형 무대작품이 없었던 것도 아쉬움을 더하는 부분이다. 서울예술단이 2002년 월드컵 기념 공연으로 준비한 총체극 '광만대장경'이 지난 9월 부분적으로나마 초연됐지만, 불교 자체역량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대예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영상분야에서 영화 '달마야 놀자'가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낳기는 했으나, 상업영화의 소재적 활용이라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티베트 문화 관심 여전= 달라이 라마 방한문제와 더불어 촉발됐던 티베트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계속됐다. 지난 7월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베트박물관 개관에 이어, 최근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도 티베트박물관이 문을 열어 티베트의 생활과 문화, 불교전반에 대한 일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티베트 스님들이 직접 한달 동안 만다라 제작 시범을 보였던 통도사성보박물관의 개관2주년 기념 '티베트 특별전'도 성황을 이뤘으며, 〈마음을 열어주는 티베트 염불음악 CD〉도 선보이는 등 티베트와 관련한 문화행사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범패 시리즈 자료적 큰 가치= 올해 불교 문화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 가운데 하나로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故 송암스님의 생전 육성 녹음테이프를 채록해 만든 한국의 범패 시리즈 〈영산CD〉의 발매를 들 수 있다.

구음으로만 전해왔던 범패의 원형을 CD에 담아 보존하고, 후학들을 위한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범패 시리즈는 내년 초에도 회심곡 '백발가 지오리' 등 추가 분 CD가 나올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문화인물 보조국사 지눌(5월)·대각국사 의천 스님(11월)과 관련한 문화행사들이 송광사와 천태종 관문사 등에서 열려,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문화의 맥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은자 기자 eee@buddhapa.com



◇올해 불교문화계는 지역문화와 연계한 축제와 산사음악회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BBS 송년·신년 특집

"귀 열리게 하네"

불교방송은 26일부터 1월3일까지 대담·보도·음악·교양 등 다양한 연말연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특집 프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28일 오전 9시 5분~오전 10시). 청취자들의 성금을 모아 불우 이웃에게 전달하는 이 프로에서는 1년동안 소개된 이들의 방송이후 뒷모습을 상세히 소개해 준다. 또 행복스튜디오(26일~31일, 오전 11시10분~낮 12시)에서는 탤런트 선우용녀와 김영철, 여성학자 박혜련씨 등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명사들을 초청,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팝 컬럼니스트 고진성씨가 진행하는 '음악의 마을'(26일~31일, 오후 3시5분~오후 4시45분)과 애청자 노래자랑이 열리는 '다시듣고 싶은 노래'(저녁 7시15분~저녁 9시), 한해 방송됐던 베스트 뮤직만을 엄선해 방송하는 '프라임 뮤직'(26일~28일, 밤 11시5분~밤12시)은 다양한 장르의 인기 음악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교계 시사프로그램인 '무명을 밝히고'(24일~31일, 오후 5시10분~오후 6시)에서는 동국 역경원장 월운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등 올해를 빛낸 불자들을 초청해 대담한다.

월드컵, 경제, 종교화합 등을 주제로 1일부터 3일까지 저녁 7시15분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리는 신년 보도특집은 △들어난 세상을 위해(1월 1일, 오전 8시10분~오전 9시) △정치개혁을 위한 우리의 선택(1월 1일) △월드컵 16강의 아침이 밝아온다(1월 2일) △경기회복, 그 가능성을 진단한다(1월 3일) 등의 일정으로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문광부 '00의 해' 올해로 마감

문화관광부는 특정 예술장르를 선정해, 예산을 중점 지원하던 '00의 해' 방식을 올해 '지역문화의 해'를 끝으로 마감한다.

문화부는 내년부터는 1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자문기구인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는 2002년에 붙일 명칭을 놓고 지난 봄 부터 고심해 오다가 월드컵 축구대회를 의식해 '문화환경 가꾸기의 해'를 건의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문화환경이 1년 안에 가꿔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대상 자체가 모호해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문화부는 국민 문화의식 제고, 전통문화 보존, 문화 프로그램 개선 등등의 대형 사업별로 접근할 경우 '00의 해' 같은 특화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 '00의 해' 지정 방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문화부는 지난 1991년 '연극영화의 해' 지정을 시작으로 춤·책·국악·미술·문학·문화유산·사진영상·건축문화를 차례로 거친 뒤, 지난해는 '새로운 예술의 해', 올해는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했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그 동안 나는 어디서나 안식을 찾아보았지만, 책을 들고 한쪽 구석에 앉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15세기에 살았던 토마스 아 켐피스의 이 말은 근대 이후 서구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금언이 되어, '교양을 갖춘 독서인'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낳았다. 더불어 교양인의 글쓰기로서 '에세이'라는 장르가 탄생하였다. 서구에서 처음으로 '에세이(수상록)'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사람은 프랑스의 몽테뉴(1533~1592)이다. 그가 글쓰기로 '시도' 해본 것은 '크세즈(Que sais-je?)' 즉 "나는 무엇을 아는가?" 하는 소크라테스적 물음이었다.

그는 세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그가 시도한 것은 고전을 통해 옛 작가들과 교감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는 고전을 읽은 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인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수상록〉을 써내려 갔다. 인간에 대한 질문은 몽테뉴로 하여금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이르게 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재판하기 위해, 나 자신의 법률, 나 자신의 법정을 가지고 있다." 그의 책은 사려깊은 한 인간의 솔직한 인간성찰의 고백으로, 이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서구적 '에세이'의 전범을 보여준다.

몽테뉴의 '수상록'

맹신이 낳은 폐단 방치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

그가 살펴본 인간 내면의 풍경은 어떠한 것이었나? 영혼의 밑바닥을 뒤지면 그는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자신을 비롯하여 주위의 누구를 살펴봐도 인간이란 곧 모순덩어리라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는 인간성의 최후의 보루로 양심을 선택하고, 그곳에 서서 인간사회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스스로 '세상을 비판하는 이성적 자아'를 갖춘 근대적 지식인의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비판적 자아'는 20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근대서구문명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수백년이 흐른 지금,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의 특징은 바로 이 '이성적 자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량 살상 무기의 범람, 심각한 환경파괴, 분열을 거듭하여 황폐해진 인간성 등 "근대적 자아(Modern Ego)"에 대한 맹신이 낳은 폐단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인류 공동의 문제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몽테뉴의 후예들은 요즈음 '무아(無我)'를 배우고 있다. 나의 존재근거로서 그토록 확실해 보이던 '생각하는 자아'가 사실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파생하여 병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서구인들은 이제 불교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아 집착에 대한 최상의 처방전은 무아이다. 부처님은 몸에 맞은 화살(자아)에 대한 논란을 멈추고, 먼저 화살부터 뽑아내라고 가르치셨다. 내 몸에 박힌 화살의 재료와 성능에 대한 오랜 찬사를 멈추고 이제는 그것을 뽑아낼 때다. 인간은 생태계의 암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자연파괴는 회생 불가능한 마지노선을 넘고 있지 않은가.

■문학평론가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 장 사**

주지 효 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경부 인터체인지에서
상주방향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소외받은 이들의 소박한 행복

'새야 새야 소쩍새야' 소쩍새마을 엮음



사람들은 두 다리가 성할 땐 그 두 다리의 고마움을 모른다. 소쩍새 마을의 기타리스트 차철주 씨. 그도 두 다리를 잃기 전에는 그랬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때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수술 후 병실에 누워있던 그날,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신체의 일부분인 다리를 잃은 후 그는 사랑 대신 슬픔과 증오를 발판 삼아 '홀로 서기'를 시도해야 했다. 이제 그는 두 다리가 성한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하다고 말한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소쩍새 마을에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는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정을 나누며 살고 있다. 심지어 봉사자의 손길을 빌리지 않고는 밥 한술 떠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겐 욕심 많은 이가 빼앗을 수 없는 그들만의 소박한 행복이 있다. 신간 〈새야 새야 소쩍새야〉(하이퍼북)는 밥풀 같은 웃음을 붙이고 사는 소쩍새 마을 가족들의 행복을 담고 있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불교조각사 시대순 정리

'중국의 불교미술' 최성은 옮김



중국의 〈후한서〉에는 "환제가 신 섬기기를 좋아하여 부처와 노자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은 중국 불교의 초기 형태를 알게 하는 흥미로운 기록이다.

덕성여대에서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성은 교수가 우리말로 옮긴 〈중국의 불교미술〉(구노 미키 지음, 시공사)은 중국 불교미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후한시대에서부터 원시대까지 중국 불교미술을 조각사 중심으로 정리한다.

중국 불교조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시대순으로 요약한 이 책은, 중국 조각사의 여러 문제에 대해 지은이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발굴과 그에 따른 출토품을 대부분 언급하는 등 최신 자료의 반영에도 충실하다. 부록으로 연표를 첨부하고 참고문헌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도판 목록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주고 있다. 값 1만2천원.

불자가 알아야 할 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지현 · 일지 · 윤창화 공저

시인으로 지난 77년부터 지금까지 인도, 네팔 등지를 순례하며 〈선시감상사전〉(전2권) 등을 내놓는 등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지현 스님, 직관적인 문체로 불교인문주의라는 독특한 영역을 심화시켜 오면서 20여권의 저술을 내놓고 경전과 선어록을 번역하고 있는 일지 스님,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마치고 불교학술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 이 세 사람이 불자들의 불맹(佛盲) 퇴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책은 현재 조계종 스님들이 입는 장삼은 1937년 8월 조선고승유교법회를 앞두고 지눌 스님의 장삼을 원형으로 한다는 사실까지도 밝히고 있다.



뜻도 모르고 쓰는 용어 어원 · 유래 곁들여 설명

불교를 모르는 초보자를 위해 〈왕초보 불교박사 되자〉(민족사)란 역작을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초심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불교교양대학 학생들은 물론 포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한 포교사들까지 불자라면 한번쯤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널리 쓰이는 불교 용어 가운데 각상 짚어보면 그 뜻을 잘 모르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주제들은 그동안 학자나 스님들이 "이 정도는 다 알겠지"라며 등한시 해왔던 것들이다.

'가사와 장삼은 언제 입는 법복입니까' 를 시작으로 '절을 왜 절이라 합니까' '깨달으면 부처나 나나 다 똑같다고 하는데 어째서 입니까' '대선사, 대종사, 대화상 등 스님의 존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등 경전과 교리 그리고 신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 상식 150가지를 간추려 읽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이해 놓았다. 그렇다고 그 쉬움이 결코 가벼움은 아니다. 주제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물론 어원이나 유래 등을 천착하고 있어 밑줄을 칠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현재 조계종 스님이 입고 있는 장삼 즉 '보조장삼' 은 1937년 8월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고승유교법회를 앞두고 최범술 스님의 고증을 참고하여 송광사에 보관된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장삼을 실측해 만들었다는 점, 조실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라는 점, 방장은 본래 선(禪)을 전문으로 하는 선종사찰에서 주지 스님의 거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설명 등은 밑줄을 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끝부분에는 꼭 알아야 할 간단한 불교영어 131가지를 사전보다 더 쉽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값 6천8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2001년 불교출판계 결산

신간 100여종뿐 '불황의 늪'

"불교출판사가 사는 길은 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계속된 출판 불황과 고질적인 매출 부진을 벗지 못한 한 불교출판사가 올해 초 내놓은 처방이다. 이렇게 시작된 올 한해 불교출판계는 '수면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판 종수가 현저하게 감소됐다.

불교출판사 가운데 한권도 내놓지 않은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한자리에 머물렀다. 책방 여시아문의 집계에 따르면 올 한해 불교출판사들이 내놓은 신간 100여종으로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불서는 손에 꼽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교학술과 순수불교문화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즉 올 한해 불교출판사들은 기존의 책을 읽기 쉽게 재편집한 작은 책이나 수필, 논문, 역서, 법공양 등 이외는 새로운 기획물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

반면 일반 출판사의 불교 공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권도 못낸 출판사 있어
학술서 침체속 전집 약진
'선의 나침반' '거울' 눈길

1주일을 기준으로 보통 10여권 정도의 불교관련 책들이 출간되는데 90%이상이 일반 출판사에서 내놓는 책이란 점이 이를 입증된다. 그렇다고 일반출판사가 내놓은 책들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도 아니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2001년 베스트셀러 50위에 올해 출간된 불교관련 책은 원성 스님의 〈거울〉(이레, 17위)과 현각 스님의 〈선의 나침반〉(열림원, 48위)이 올라 있을 정도다.

불교출판사들이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일반출판사의 공략은 불교출판사가 설 자리를 더욱 더 좁게 만들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작가들도 편집과 기획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일반 출판사를 선호하고 있어 불교출판사는 더욱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불교출판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굵직한 전집들이 출간됐다는 점이다. 근대불교학의 태두 김동화 박사의 전집 출간, 한글대장경 완간, 가산삼학총서 첫 권 출간, 북한 팔만대장경 선역본 국내 출간 등이 그 대표적이다. 또한 사찰답사기가 주춤한 가운데 불교미술, 문화 등 사찰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의 잇따른 출간도 불교출판의 한 획을 긋는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만하다.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 진	운 주 사
2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3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 터
4	내가 본 부처	도 법	호 미
5	현대관음기도 영험록	성 일	불 광
6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7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지 운	법 공 양
8	금강경 역해	각 묵	불 광
9	생활 수행이야기	법 상	불 광
10	고려판선원청규 역주	법 혜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사찰의 서정미 한시에 담아

'사찰 누정…' 민병수외 역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태학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찰과 누정 65곳의 연혁과 주변 경관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쓰인 시문을 번역하고 평설도 붙여놓았다.

"…온갖 인연 다 함께 끊어져 적막하네. 길은 돌 틈을 뚫어 나 있고, 샘물은 바위에 스며 떨어지네. 하얀 달은 추녀 끝에 걸렸는데, 서늘한 바람은 숲과 골짜기 흔드네…"

〈동문선〉에 실려 있는 단연 스님의 '문수사'에 대해 한문학자 송재소 씨는 "속세와 떨어져 있는 산사의 분위를 잘 말해주고 있는 시다"며 평했다. 얼마 전 퇴임한 서울대 민병수 명예교수를 비롯해 한문학자 50여명이 평을 달았다. 이와 함께 사찰시와 누정시의 차이 등 학문적으로도 접근했다. 값 2만2천원.

참된 행복 일깨워주는 불교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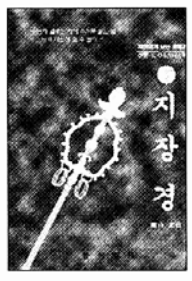
'만화 지장경' 정일 스님 지음

〈지장경〉(보광선원)이란 이름으로 서울 우이동 보광선원장 정일(선학원 이사장) 스님이 만화책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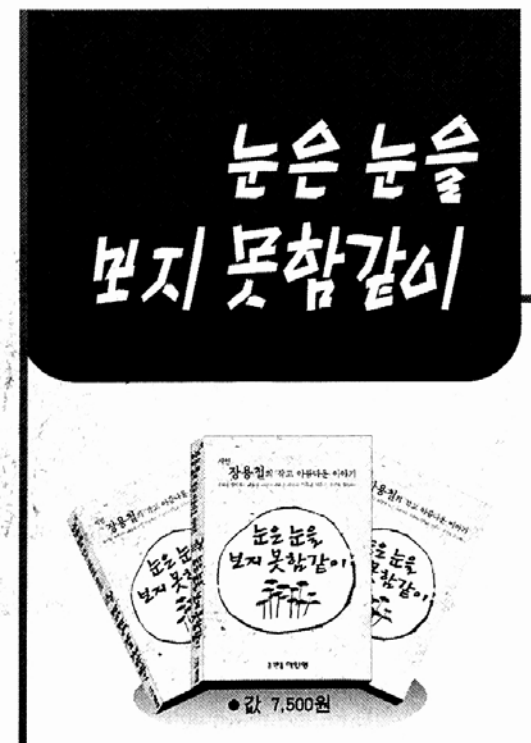
선원에서 선서가 아닌 만화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다소 의외다. 하지만 출간 이유를 들어보면 쉽게 납득이 간다. 정일 스님은 "물질만능주의로 가치관 붕괴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오탁악세인 오늘의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만화책을 펴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많은 경전 가운데 〈지장경〉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장경〉의 인과법칙과 자작자수(自作自受)의 내용이 물질만능으로 치닫는 현대사회와 이기심으로 윤리 도덕이 붕괴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지장경〉은 경전 내용과 불화를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컬러 만화로 구성됐다. 부처님, 지장보살, 큰스님, 부광동자, 승이(원승이)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특히 불자로써 넓고 깊은 진리 탐구를 위하여 인간세상과 하늘나라 도리천궁 그리고 지옥을 마음대로 오고가면 바르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부광동자와 그의 친구 승이는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주요 캐릭터다. 이들은 독자를 대신한 질문으로 경전 이해의 폭을 자연스럽게 넓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값 각권 8천원.



김중근 기자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감동을 읽는다. 순간을 읽는다!

히말라야나 킬리만자로의
만년설(萬年雪) 곡대기에 가야만이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장 밑 강아지풀 한줄기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을 다 먹어 보아야만 바다가 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동해의 물 한 방울만 찍어 먹어 보아도 바다가 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오직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보여지는 것은 늘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멀리 보기만을 애쓰기 보다
가까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땡이가 가장 열심히 돕 때 오히려 제 자리를 잡고 서듯
인생도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아무런 불만의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자는 제 몸에 생긴 벌레 때문에 죽고 죄는 제 몸에 난 녹 때문에 스러지고 맙니다

- 본문중에서 -

들녘출판 해인행 전화 02)913-0753 팩스 02)913-0755



국배판 1,300p
값 100,000원

법화삼부경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관보현보살법경)

법화삼부경을
한문과 한글 번역을 곁들여
읽기쉽게 만들었으며,
품품마다 앞장에 그림(금빛 탱화)을
넣어 독자들의 시각을 밝게하여
佛心을 돈독하게 하였다



저자 - 석묘련 회상

아울러 우리의 소원 남북통일과 더불어
韓, 中, 日의 동양 삼국이 영원한 우방으로서
전쟁이 다시없기를 바라고 세계만국이 한식구
(一佛乘.중생도 하나, 세계도 하나, 진리도 하나)
가 되어 平等無差別의 세계가 되기를
구원실성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발원하였다.

역대 법화경조사 영정 어록 삽입

간경도감에서 펴낸 책들

실상묘법연화경요품 석묘각 엮편
4×6판 / 870면 / 값 35,000원

알기쉬운 석묘각 엮음
법 화 경
신국판 / 176면 / 값 6,000원

법화경과 원자 물리학 석묘각 엮음
신국판 / 266면 / 값 8,000원

묘련 큰스님 특별 좌담법문 석묘련 엮음
수행공덕 과보따라-천상가고, 극락가네
신국판 / 158면 / 값 8,000원

만화 효도의 대성인 석묘각 글/김명식 그림
진 묵 대 사
신국판 / 264면 / 값 10,000원

만화 신라의 큰별 석묘각 글/김명식 그림
자 장 율 사
신국판 / 274면 / 값 10,000원

만화 신라의 순교자 석묘각 글/김명식 그림
이차돈 성사
신국판 / 274면 / 값 10,000원

부모가 책임져야 할 중절아의 영혼 석묘각 엮음
아가야, 용서해 다오
신국판 / 270면 / 값 10,000원

각세진경(覺世眞經) 석묘련 엮음
4×6판 / 값 1,000원

서울시 동작구 사당5동 231-16 • 전화 02)585-4832 • 팩스 02)3472-2836 백련동 보현지(한소동) • 전화 041)335-0482 간경도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일제조사 · 제도 개선 '절실'

문화재 사범 처벌 강화키로
"불교계 자체 노력있어야 실효"

캠페인 결산

2001년은 그 동안 불교계 내부에서 관심 환기 차원에 머물렀던 불교문화재 도난 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확대된 해다.

비지정 문화재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조계종 '사찰 방범 · 방화에 관한 령' 마련, 경찰청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족,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실시 등 굵직굵직한 성과도 잇달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난 사건은 근절되지 않았다. 결국 해법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불교계 내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과= 연초부터 잇따른 대규모 문화재 사범 검거는 불교문화재 도난에 대한 관심을 불교계 바깥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이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의 사찰 문화재 도난에 대한 특별 지시(5월), 조계종 총무원의 종합대책 발표(5월), 경찰청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족(7월),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8월), 내년 추경예산에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 반영(9월) 등의 성과가 이어졌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 사범 처벌 강화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지난 해 문화재청에서 입법예고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절도범과 같은 적용을 받았던 비지정 문화재 처벌이 강화됐다. 은닉 · 보관 행위 별도 처벌, 은닉 · 보관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지정 문화재에 한해 민법상 선의취득 배제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문화재보호법 개정 중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셈이지만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법 형평성 등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이 안 되어도 꾸준히 개정 노력을 펼친다는 게 조계종 방침이다.

▶경찰청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족, 사범단속반 인원 확대= 불교계의 문화재 전담반 설치 요구가 형식적으론 성과를 거뒀다. 문화재 전담 수사관이 경찰청 본청과 14개 지방경찰청, 230개 경찰서마다 1명씩 지정됐다. 2명이 전국을 담당하던 문화재청 사범단속반도 내년부터 5명으로 확대된다. '마약 수사과' 같은 전담 부서가 검찰에도 설치돼 불교계와 검 · 경 · 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교계의 최종 요구다.

▶자체 노력 강화= 정부 요구 사항과는 별도로 불교계 자체 노력도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찰 방범 · 방화에 관한 령'을 마련 2002년 4월까지 종단 소속 모든 사찰이 의무적으로 방범 · 방화 감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예연구원 채용 의무화 등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전히 줄지 않는 도난= 올 해 발생한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은 모두 10건(조계종 총무원, 2001년 11월 현재). 1999년 16건, 지난 해 14건에 비해 도난 건수는 감소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4점이 도난 당해 99년 23점, 지난 해 20점(회수 14점 제외)에 비해 점수는 즐지 않았다. 한꺼번에 많은 문화재가 도난 당하고 있고, 근래 조성된 불상의 복장유물도 도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지난 8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해법은 없나?= 내년부터 실시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가 '해법의 열쇠'다. 현황 파악조차 안 된 비지정문화재는 도난 당해도 찾을 길이 없다. 일제조사는,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식 관리 목록에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시킴으로써 누구나 어디에 있던 것인지 알 수 있게 해 도난 당해도 되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계 자체 노력이다.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 앞서 종단과 사찰에서 먼저 담당 인원과 예산 확충, 제도 개선과 교육 강화 등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 문화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권형진 기자

"고증없는 미륵사 복원 안된다"

문화재위원회
익산시 복원계획 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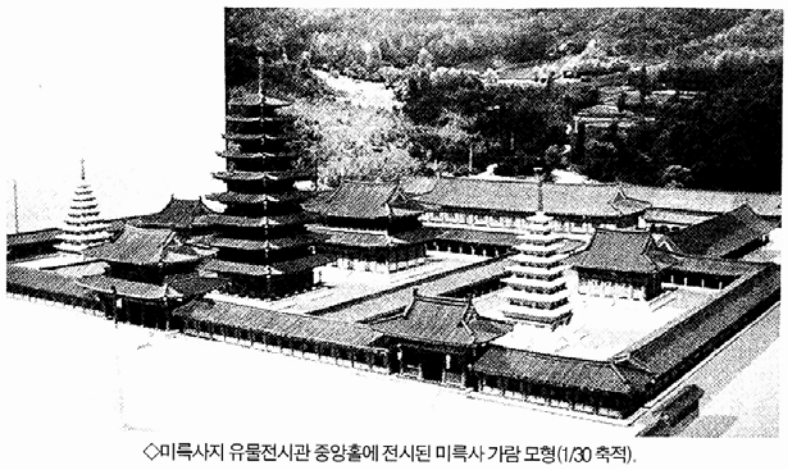
"철저한 고증 없는 문화재 복원은 안 된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륵사 복원 계획에 문화재청이 '철저한 고증'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3분과(사적)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익산시가 제출한 미륵사(사적 150호) 복원 학술용역 보고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복원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복원 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미륵사 복원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한 복원이 가능할 때 추진한다는 조건부 수용"이었음을 분명히 하며 "백제시대 고건축 등 미륵사에 대한 고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륵사터는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1980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사찰의 전체적인 규모나 가람 배치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건축물의 구체적 형태를 밝혀줄 만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추정에 의한 새로운 건축물'이라는 위험성이 반대 의견으로 대두돼 왔다.

복원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익산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미륵사 복원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륵사 모형을 제작해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내에 전시하기로 하는 한편 고증 자료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익산시는 한국건축역사학회에 의뢰,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외 문헌과 발굴 자료, 고분 벽화와 고건축 자료를 토대로 미륵사 복원을 위한 방향, 복원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한 학술 조사를 실시했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중앙홀에 전시된 미륵사 가람 모형(1/30 축적).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인연 - 연기 개념 혼용"

보조사상硏 '연기론 규명' 학술발표회

불교 사상의 근본이랄 수 있는 연기론의 개념을 규명한 학술 발표회가 22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주최로 열렸다.

이날 불전의 한역 단계에서부터 교학 형성에 이르기까지 연기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를 살핀 계환 스님(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처음부터 연기라는 용어가 쓰인 것이 아니다. 한역이 시작된 것은 2세기 후한시대지만 서진의 축법호(239~316) 때 이르러서야 '연기' 또는 '십이인연'이라는 번역어가 처음 사용됐다. 하지만 후대의 구마라집이 〈묘법연화경〉을 번역하면서 한 번도 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인연'이라 번역하고 있고, 범본이 남아 있는 〈중론〉의 '귀경게'에서도 연기 대신 인연이라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기'와 '인연'이 함께 쓰인 것으로 보인다. 신역을 대표하는 당 나라 현장(499~664)의 번역은 대부분 연기로 통일돼 있지만 〈대반야경〉에서는 무자성(無自性), 〈섭대승론〉에서는 별성자성연기(別性自性緣起)라 번역하는 등 연기로 번역하는 용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계환 스님은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는 니다나(尼陀那)를 연기로 번역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연기의 용례에서 연기사상의 허용범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철(동국대) 교수는 대승 불교의 핵심 저작인 용수의 〈중론〉 주석가들을 중심으로 연기의 어의(語義)에 대한 논쟁을 살폈다. 〈대승중관석론〉을 쓴 안혜와 〈반야등론〉의 청변은 승의제와 세속제를 구분하면서도 연기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안혜는 연기란 '인과 연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정의하지만 청변의 연기 해석은 '다만 이것이 존재하면 이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발생하기에 이것이 발생한다'는 차연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에 비해 월칭은 〈정명구론〉에서 연기를 '인과 연에 상대하여 존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진각국사 탑호 '圓炤' 아닌 '圓照'"

남도불교문화硏 '불교문화연구' 8집

남도불교문화연구회(회장 천득염 전남대 교수)는 최근 고려시대에 조성된 전남지역의 금석문 원문 자료를 모은 〈불교문화연구〉 제8집을 펴냈다. 탑비 등에 새겨진 금석문 기록이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고려시대 이전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면, 이 분야 연구자들로서는 보다 정확한 1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송광사 광원암 진각국사 부도 탁본 모습.

연구회는 2년 여 동안 발품을 팔아 직접 탁본하고 현장에서 판독해 〈조선금속총람〉 등 기존 금석문 원문자료들과 일일이 대조, 비교하는 과정에서 송광사 16조사 가운데 두 명의 탑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새로 확인했다. 제2세인 진각국사의 탑호는 '원소(圓炤)'가 아니라 '원조(圓照)'임을 순천 송광사 광원암 진각국사 부도에서 확인했고, 비문에는 '정조(靜照)'로 나와 있는 제5세 원오국사의 탑호가 부도에는 '정(淨)'자로 나와 있음을 발견했다. 부도를 먼저 조성하고 탑을 세우는 관습을 볼 때 이는 오자가 분명하다는 것이 연구회 측 판단이다.

기존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기존 자료에서의 오 탈자를 바로잡고, 탁본 자료만으로는 판독할 수 없었던 글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과다. 탁본만으로는 판독이 쉽지 않은 고흥 상림리 삼층석탑 명문 조사 과정에서 '동량(棟梁)'의 '梁(량)'은 '樑(량)'의 오자임을 밝혀냈다. 보물 1309호인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비의 명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도 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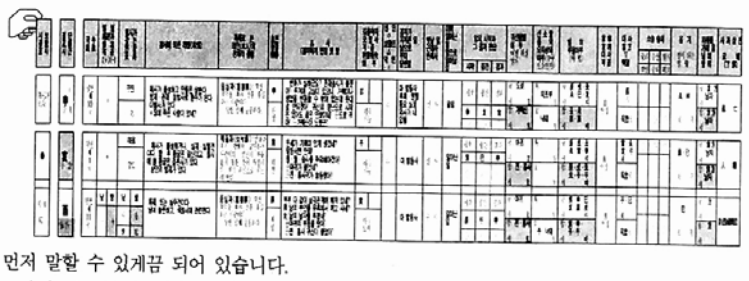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싼가?

오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오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또,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습니다. -효사-

육임 신단(新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다 적혀 있어 쓰여진 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은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9:32~11:32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하면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천도 · 시식 · 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대뜸 내쏠 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6,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알고 말해줄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가 즉시 판단되고, 또 말해줄수 있게끔 표시해 놨습니다.
8,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2,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을 시작 · 중간 · 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놨고, 그 귀신을 제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수긍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4,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쏴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15,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이 제압됩니다.
16,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놨습니다.
18,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 ·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 · 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혔으니 이를 보시면 참으로 큰 것이 얻어집니다.
20, 어디 방위에 사는 남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수 있도록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22, 뒷면에, 그 사람 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비한지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밝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에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주문전화 : (02)993-8680
입금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각종 카드로 상기 날짜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1,300,000원
(일백 삼십만원)

육임1년 신수비결 출시 주문받습니다.
값 250,000원(1,4500페이지 8절 미색 모조)
보는 날짜와 시간만 찾으면 그것을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적중합니다. 띠별 · 월별 길흉이 신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 따뜻함 전하는 '자비의 법음'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年 13만 6천구좌 기록
사회복지시설 8백62곳에 총 31만부 '법' 배달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우리사회를 지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에 동참합시다.

신문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취지로 97년 6월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 쉽지 않은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하고, 시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합니다. 신문 법보시 운동이 확산되면서 총 13만6천16구좌에 전국 1천5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현대불교신문은 군법당(154곳), 교도소 · 교정청(34곳), 구치소 · 감호소(12곳), 소년원(14곳), 양로당(24곳), 아동복지시설(26곳), 장애인복지시설(11곳), 청소년복지시설(16곳), 사회복지기관(150곳), 불교병원(10곳), 경승실(197곳) 등 총 862개 시설에 매주 1,200부의 신문을 법보시해 현재까지 총 31만5천부가 발송되었습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렵고 소외된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전해준다.



◇군법당에서 군불자들이 현대불교신문을 보면서 얘기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가 손기호 병장.

"부처님 말씀 고된 군생활에 감로수"
군법당 호국용주사 손기호 군종병

"한주간에 일어난 불교계의 신행소식이나 군불자로서 알아야 할 불교 교리들을 공부하는데 현대불교신문은 큰 도움이 됩니다."

법보시 후원으로 7개월째 군법당에서 신문을 받아본다는 호국 용주사 군종병 손기호 병장은 불교에 대한 신심을 쌓아가는게 현대불교 덕분이라고 후원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피력했다. "현대불교신문을 받으면 일단 제가 먼저 꼼꼼히 챙겨본 후 군법당에 오는 법우들끼리 함께 돌아가면서 탐독을 합니다."

손 병장은 특히 부대가 군법당과 멀리 떨어져 있어 매주 법회 참석이 힘든 군불자들을 위해 신문을 모아 놓았다가 건네준다. 또 손병장은 제대후에 자신도 법보시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군법당 주소 알려 주세요

군포교 일선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법사님 이하 법우들께 감사 드립니다. 법보시를 후원하신 분들의 많은 요청에 따라 군부대 법보시를 확대 할 수 있도록 법사님이 계시는 사찰과 예하 부대인 연대, 대대, 중대 단위까지 군법당이 있거나 군종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현대불교신문을 받아 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이 명단을 작성하여 현대불교신문사로 보내 주시면 부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군불교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에 동시 진행 중 입니다.
상기 내용은 군승단장님 명의의 공문을 통해 지휘체계 절차를 밟아 하달 될 것입니다
► 군법당 명단 이외의 불교관련자료 및 문화재 정보도 제보 받습니다.
► 발송처 및 기한일
고객부 이동격 차장 T) 02-737-0090 / F) 02-737-0697
발송 및 팩스송부 가능하며, 2002년 1월까지 송부바랍니다.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
그늘진 이웃위해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신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 3백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2천 여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형자 등 개개인 앞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1만5천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후원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법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고객부로 전화 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법보시 후원 계좌번호(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6O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30-01-056471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한빛은행	082-090001-13-70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법보시 후원금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팩스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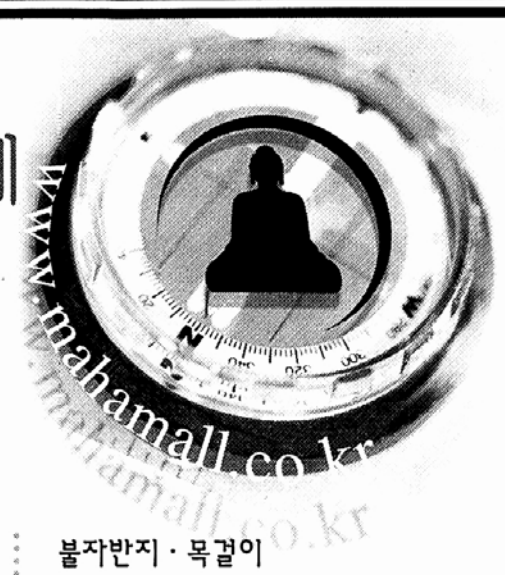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구	분	발 송 처	보시 부수	보시 부수 누계
군부대	군법당	154	190	55,360
	국군병원	9	11	8,984
교화기관	교도소, 교정청	34	208	40,570
	구치소, 감호소	12	43	15,930
	소년원, 감별소	14	42	5,748
복지단체	양로당	24	24	5,326
	아동복지	26	26	8,794
	장애인복지	11	11	3,824
	청소년복지	16	16	5,330
	사회복지기관	150	150	45,802
	불교병원	10	62	14,288
경찰	경승실	197	197	53,086
	경찰병원	2	6	1,284
지정법보	단체	143	154	31,694
	개인	60	60	19,300
총계		862	1,200	315,320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기관 · 후원자

간종흡 강갑순 강경중 강맹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북복지관 강성옥 강수천 강숙희 강순영 강신옥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용희 강유미 강은영 강인성 강인숙 강정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화 강정훈 강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형진 갱정 경남지원 경순자 고계환 고공진 고현현 고순진 고영배 고영이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원선 고현사 공명근 곽영호 구영란 구진모 구진회 구진회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명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현 권성황 권순명 권순혜 권인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권오용 권오진 권옥숙 권은중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권차슨 권초지 권춘순 기현정 김갑순 김경 김경선 김경수김경숙 김경순 김경열 김경옥 김경재 김경훈 김경희 김공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화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남영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김동자 김두영 김돌님 김득자 김록인 김말선 김명덕 김명옥 김명자 김명춘 김명희 김문자 김문종 김문주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순 김미정 김민수 김민옥 김법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협 김병훈 김복님 김봉운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병 김상분 김상순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석자 김선남 김선희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희 김숙란 김순경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렬 김순식 김순옥 김순천 김순희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업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김연득 김연봉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민 김영배 김영심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옥 김영자 김영희 김예임 김옥 김옥경 김옥선 김용구 김용범 김용준 김용희 김원배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희 김윤성 김은중 김은환 김은희 김은영 김희식 김인성 김인숙 김인희 김일등 김자경 김장복 김정란 김정선 김정숙 김정애 김정옥 김정원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종임 김종필 김주곤 김주식 김주원 김주현 김준만 김준모 김준염 김준형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창수 김철수 김춘자 김춘호 김춘희 김치훈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현 김현수김현숙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호 김호영 김효종 김화남 김화수 김효성 김효숙 김희님 김희순 김희수 김희순 나관숙 나숙희 나순옥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수진 남일우 남철수 남하자 노만호 노순님 노유택 노진희 노향순 노희숙 덕성암 덕운회 덕형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정님 류정오 류조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원 무명 분명순 분명기 분상현 분선희 분숙자 분순조 분점숙 분정강 분필금 분필수 분형주 분희자 민경주 민병용 민복순 민소영 민승자 민용식 민아식 민혜원 박강숙 박경님 박경래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에 박경화 박광수 박광용 박광호 박구숙 박귀남 박금숙 박기규 박기정 박길순 박남순회 박남옥 박내순 박탑희 박득수 박명의 박무순 박미경 박미정 박배화 박병욱 박병주 박복자 박봉주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선영 박성례 박성수 박성준 박성진 박세광 박수진 박숙경 박숙자 박순덕 박순득 박승희 박신근 박신영 박양임 박양자 박영석 박영숙 박영신 박영애 박영우 박영준 박영진 박영철 박옥남 박옥이 박용루 박용수 박용자 박원규 박은기 박은식 박은숙 박이형 박재련 박재진 박정순 박정자 박정하 박정희 박제원 박종두 박종심 박주연 박주원 박준영 박준형 박준호 박진원 박진환 박진자 박천례 박철수 박칭자 박춘자 박태규 박팀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리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박희순 방금순 방명섭 방순화 방재순 배경숙배광호 배동규 배명호 배병진 배복희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배춘자 배현주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옥님 백유연 백현기 백혜원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변인택 한마음선원 보시한 한마음선원 봉사모임 한마음선원 신도 한마음선원 영등포 한마음선원익명 봉첨숭 봉현주 부산신도회 부산지원사당5통법회 사랑방 상미옥 서경자 서귀연 서귀희 서덕교 서말자 서명희 서명선 서병학 서봉순 서부용 서심조 서옥경 서윤원곡 서윤아 서인교 서정숙 서정희 서은 서진 서춘건 서춘우 서형란 석해원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섬감문 설정수 설지석 성등환 성명숙 성묘경 성민 자 성영분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소진임 손광자 손금희 손명숙 손은영 손이숙 손종희 손상률 손윤선 손인아 손인희 손정숙 손정자 손진임 손혜숙 손화자 송경자 송공옥 송규한 송근정 송미숙 송미애 송방준 송복희 송성희 송승현 송양숙 송연숙 송영근 송영애 송유정 송인영 송정구 송핍재 신경희 신미향 신미환 신복순 신상섭 신수호 신순애 신순희 신시균 신영준 신현민 신우진 신윤진 신장재 신재덕 신재희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신홍재 심광희 심광영 심근희 심능희 스 탄희 신민희 심묘희 심병희 심보희 심성학 심인희 심원희 심일희 심춘자 심창희 심희주 안성모 안순옥 안영근 안영선 안재영 안진호 양명덕 양세옥 양영애 양은숙 양의근 양점순 양정순 어종선 엄남주 엄정임 여태순 영등포법회 영재한 오동규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세희 오송준 오순자 오승동 오영자 오영희 오주종 오주희 오진희 오창원 오창임 오창희 오천승 오현자 오형민 오형희 오희숙 용산구법회 용환동 우경애 우경애 우금식 우동렬 우상용 용산한마음선원 원정옥 유광수 유금자 유미양 유선재 유양심 유은경 유인덕 유재춘 유정연 유정용 유춘자 육성희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미향 윤미희 윤병창 윤병혜 윤성문 윤석범 윤성은 윤순이 윤영자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종숙 윤준상 윤지홍 윤지은 윤차남 윤청산 윤태 원 유향숙 윤현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쁑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광희 이교재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홍 이길복 이남심 이노마 이대선 이덕의 이동기 이동준 이동희 이명구 이명수 이명순 이명자 이명준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병진 이보경 이복순 이봉순 이봉우 이봉호 이부당 이분순 이심경 이상란 이상옥 이상운 이석준 이선임 이성수 이성재 이승자 이수자 이숙희 이순교 이순덕 이순랑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신희 이승숙 이승은 이승준 이신정 이씩 이애리 이애자 이양자 이양희 이억수 이연규 이연옥 이영경 이영민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백 이옥영 이옥희 이용범 이우승 이은미 이은숙 이은우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익수 이인심 이인숙 이임순 이장혁 이재국 이재숙 이재은 이재희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자 이정희 이정희 이종돈 이종력 이종석 이종섭 이종빈 이종석 이종자 이종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숙 이지형 이진경 이진선 이진수 이진영 이진우 이진희 이청준 이현숙 이현희 이형주 이형 이태우 이태인 이태호 이태희 이필순 이향득 이한숙 이한희 이행기 이현규 이현숙 이현심 이현임 이현정 이현주 이혜정 이혜진 이혜숙 이혜옥 이호진 이화숙 이화영 이화주 디효순 이홍로 익명 인천신행회 임경후 임기남 임명우 임명진 임문숙 임선희 임소연 임영이 임옥빈 임옥재 임한숙 임우식 임인석 임재순 임정숙 임종미 임창근 임채임 임춘심 임혜순 임형대 임홍민 임효정 임희자 장금강 장미 장미순 장미옥 장명순 장명희 장병창 장정 장정기옥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혁자 장해기 전강일 전계연 전규백 전류정 전병임 전병제 전복순 전상우 전수남 전순자 전순조 전승현 전연석 전연택 전영자 전위자 전유정 전인성 전인영 전인호 전정숙 전진순 전진애 전정희 전진희 전현수 전현진 정건재 정계영 정고비 정구순 정금환 정금란 정대자 정동한 정모아 정무영 정문식 정미경 정미향 정미영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열 정숙남 정숙접 정숙정 정순자 정신희 정연경 정연분 정연식 정연태 정영희 정영기 정영신 정옥녀 정옥자 정운옥 정은체 정은경 정인순 정점오 정정국 정정숙 정정순 정정자 정진원 정진호 정진옥 정진욱 정진주 정진희 정찬호 정하선 정해정 정해탁 정현등 정혜택 제주보호회 조경자 조귀자 조남심 조남주 조동분 조명래 조명식 조미 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분옥 조상호 조승근 조승우 조악식 조양자 조영숙 조옥희 조원희 조윤숙 조윤호 조은미 조인규 조인자 조정현 조진호 조현복 조현애 조혜숙 조혜연 주영란 주우순 주인공 주현순 지경애 지보람시브리 지순임 지연옥 지영희 지우미 지인희 지형인 진갑일 진경상 진경수 진광희 진병웅 진분숙 진영화 진옥례 진옥상 진원중 진재영 진재용 진일 차경호 차상환 차수환 차용옥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복연 천양우 천재경 천현숙 철오 청주교도소 최경근 최경락 최경자 최경진 최광례 최민례 최명희회범순 최방언 최병조 최복내 최복순 최상림 최서윤 최석희 최선영 최성근 최성대 최성휴 최수원 최신영 최영도 최영명 최영복 최영숙 최영숙 최은정 최은희 최인숙 최인자 최재두 최재형 최정근 최정기 최정분 최정민 최정희 최주현 최하규 최학우 최향순 최현민 최현주 최형선 최효자 최효자 · 최희원 추희희 충남대교수 태국지원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석님 하선희 하성호 하순애 하순임 하은영 하정희 하홍동 한경규 한경호 한국여성불자 한기선 한마음사랑방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방근 한병소 한상원 한숙희 한순애 한순자 한승근 한승기 한영옥 한영찬 한일련 한정석 한현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심 함공접 함광정 함명이 함상수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허상임 허석남 허선숙 허수자 허승숙 허재숙 허재정 허점자 허정남 허정은 허종환 허찬양 허찬응 허학연 허희숙 현봉희 현수천 현원스님 현주원 혜원당 호소희 홍경숙 홍기장 홍명숙 홍민자 홍병숙 홍소순 홍순이홍순일 홍영순 홍영호 홍인자 황경숙 황금원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숙 황창영 황태숙 회박내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름다운 사이버 불교 세계



2001년 하반기 결산 전 상품 할인
기간 : 12월1일~12월31일 **SALE 5%**

※ 월드컵 기념종 및 천연염색 상품 제외
※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모두에게 고급 기도포 증정
(3만원 이하 구매시 운송료 2000원 별도)

기획상품 - 고급 경상 (홍송)

기존의 경상 가격이 높아 쉽게 구입하지 못한 사찰 및 불자가정에 보다 폭넓은 보급을 목적으로 마하몰에서 기획상품으로 홍송원목의 고급 경상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정된 물량만 공급하고자 합니다.



● 무늬목 접착가공이 아닌 고품질의 홍송 원목을 사용하여 가치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 재질 : 고급 홍송 원목 · 조각 : 십장생, 연화 · 표면처리 : 원목 생들기름 도장마감
· 규격 : 가로120Cm×세로42Cm×높이 38Cm ※ 특별공급가 : 495,000원

불자반지 · 목걸이



귀(만)자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반지(14K / 18K)
정상가 : 110,000원(14K) / 145,000원(18K)
할인가 : 104,500원(14K) / 137,750원(18K)

목걸이(14K / 18K)
정상가 : 155,000원(14K) / 195,000원(18K)
할인가 : 147,250원(14K) / 185,250원(18K)

포대화상

오래된 소나무(노송)를 이용하여 100% 수작업으로 조각한 작품입니다.



포대화상(大)
규 격 : 높이45Cm×넓이30Cm
정상가 : 368,000원
할인가 : 349,600원

포대화상(中)
규 격 : 높이22Cm×넓이13Cm
정상가 : 50,000원
할인가 : 47,500원

포대화상(小) 규 격 : 높이13Cm × 넓이7Cm
정상가 : 15,000원 / 할인가 : 14,250원

※ 100% 수공예 작업 작품이므로 사진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송기간은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적송유 Gold(붉은 소나무의 솔잎기름)



식품 부작용이 전혀없는 천연자연식품으로 인체에 170여가지 효능 및 127가지의 질병치유(본초강목)에 쓰이며, 루틴 "P"다량 함유로 인체의 노화방지(산림청 임업연구원 천연물 화학연구팀)등의 솔잎효능의 연구결과가 밝혀짐에 따라 KBC, MBC 수외에 걸쳐 방영되었습니다.

용 량 : 450mg(1캡슐) × 144개
정상가 : 178,000원 / 할인가 : 169,100원

장미목 염주세트

수주(數珠)라고도 하며 예불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기도 하며 염불이나 절을 하는 횟수를 세는데 쓰기도 하는 법구의 하나이다.



재 질 : 장미목
구 성 : 염주(10mm) + 단주(25mm)
정상가 : 15,000원 / 할인가 : 14,250원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전화 : 02)732-1520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발우공양…동식물 관찰…궁궐답사…민속놀이…

산사서 야외서 '체험학습' 즐기자

교계 어린이 겨울방학 프로그램 다채

"야 신나는 겨울 방학이다"

22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가 2개월간의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방학은 바쁜 학교 생활에서 부족했던 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학교 울타리 밖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생활계획표에 동식물 관찰, 애니메이션 배우기, 전통등 만들기, 전시행사 참여 등 조금은 거창한(?) 계획을 끼워 보는건 어떨까. 대부분 무료이거나 참가비가 저렴해 약간의 발품만 들이면 즐거움에 알참까지 곁들일 수 있다.

다도와 불화, 금강태극권, 전통등 만들기 등 불교문화를 배우고 싶다면 내년 1월14일부터 5박6일간 직지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체험 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자. 발우공양과 예불 등 불교 의식과 문화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설날 날릴 연을 미리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다면 국립서울과학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는 '전통연 만들기 교실' 의 문을 두드려 보자.

참가비 적거나 무료 심성계발 · 흥미만점

남산 서울에니메이션 센터에서는 31일까지 '영국 에니메이션 전시회' 가 열린다. 만화영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는 프로그램이다. 또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성에 안차는 학생이라면 내년 1월2일부터는 열리는 '에니메이션 강좌' 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만화영화 감상과 함께 기초이론을 배우고 간단한 실습도 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을 익힐 수 있는 흥미로운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용산공원의 '얼음썰매타기 교실' 을 비롯해 버섯의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영재동 시민 숲의 '버섯교실', 연날리기 · 제기차기 등을 체험하는 영등포와 천호동 공원의 '민속놀이 체험교실', 길동 생태공원의 '나뭇잎 탁본교실' 등 손쉽게 갈 수 있는 집주변 공원에서도 제목만 들어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겨울방학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전화번호
에니메이션교실	1월2일부터	남산 에니메이션센터	(02)3455-8354
푸름이겨울환경캠프	1월8일~1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02)733-7117
불교문화체험	1월14일~19일	직지사 설법전	(054)436-6174
색지공예교실	1월14일~17일	국립민속박물관	(02)720-1026
동 · 식물교실	1월25일까지	서울대공원	(02)500-7840
전통연 만들기 교실	1월31일까지	국립서울과학관	(02)3675-5114
빛깨비 체험교실	2월3일까지	정보나라	(02)2105-4312
궁궐답사	2월7일~9일	착한학교	(02)725-0456
얼음썰매타기	2월28일까지	용산공원	(02)792-5661
버섯교실	2월28일까지	양재동 시민의 숲	(02)575-3895
나뭇잎 탁본교실	2월28일까지	길동생태공원	(02)472-2770
민속놀이 체험교실	2월28일까지	영등포 · 천호동 공원	(02)473-2770
지구촌민속악기특별전	3월31일까지	지구촌 민속박물관	(02)733-9590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㉖

• 관음천자 수인법 •



1. 단전을 수축하면서 '이' 하고 소리를 내며 오른다리를 구부려 내밀면서 양 팔을 어깨 옆으로 편다.
2. 단전을 이완하면서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오고 무릎을 서서히 피면서 발꿈치를 들고 선다.
3. '뭐' 하고 소리를 내면서 왼다리를 구부려 앞으로 내밀



단전 수축 이완하며 팔 어깨 옆으로 쭉 펴

며 양 팔을 어깨 옆으로 쭉 펴고 뒤에 있는 오른 다리는 쭉 뻗은 상태로 둔다.

4. '꼬' 하고 소리를 내면서 단전을 수축하고,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온다. 이때 뒤에 있던 오른다리를 앞으로 당겨 끌어올린다.
5. 서서히 다리를 내려놓고 손을 단전으로 가져간다.



"인터넷 활용 지역모임 활성화"

대불련 40년차 회장 박문수 씨



"대불련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해 지역에 있는 법우들이 체계화되고 다양한 불교 교육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정기총회에서 제40년차 회장으로 선출된 박문수(건국대 전자공학과 3년)씨의 취임 인사다. 박 회장은 내년에 대불련 최고의결기구인 지부장단 회의를 강화하고 지회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회장 모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2월중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재정비해 지부 · 지회와 함께 대불련 신년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박 회장은 "내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리는 '수행학교' 부터 취임 후 첫 사업인 만큼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 것' 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비로자나 지도자 연수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제2차 비로자나 청소년 지도자 연수' 를 진각종 통리원에서 개최했다. 청소년 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MBTI 성격검사 △레크리에이션 실습 △미지센터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탐방 △청소년 문화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하승현 사무국장은 "이번 연수는 문화 · 수련 · 방송 · 이벤트 등 협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맞춰 실시됐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개설

우리절 동연어린이회는 29일부터 1박2일간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를 우리절 법당에서 연다. 산사체험을 겸해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는 레크리에이션, 친교의 밤, 예불 및 기도, 찬불가 배우기, 체험 흔적 남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준비물은 세면도구와 필기구, 쌀 3공기 등이다. (02)746-4233

퀴즈 풀고 홍경만 만나고 CD받고 'buddhanews.com' 으로 가자

주부 신행담

부처님께 의지한 삶 ㊦

당장 서울에 있는 딸 집으로 올라가 사찰에서 하고 있는 따주기 강의를 들었다. 군생활을 하면서 몸이 아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장병 불자들을 위해 따주기 봉사는 그나마 나에게 조그만 위안이었다. 일요일만 되면 산간벽지에 있는 군부대를 찾아가 아들같은 군 장병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다.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군인들은 우리가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그들은 특히 자유를 구속받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속에 있어 몸이 안좋을 때면 집과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털어놓았다. 나도 아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어서인지 '내 아들도 군대 있을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군 장병들을 만날때마다 따주기 봉사 외에도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여력이 있을 때면 떡과 과일을 마련해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가끔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군인들도 있어 자식을 다시 키우는 것 같아 보람과 재미가 한꺼번에 느껴졌다.

이렇게 장기간 그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군인들에게 상담원 역할을 해 주려면 나도 불교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조계사 인근 서점에 가서 불서를 구입해 틈나는 대로 집에서 읽으며 모르는 부분은 군법사님에게 지도를 받았다. 또 집에 불단을 갖추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고 있고, 친구들끼리 함께 여행갈때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올렸다. 이런 나의 모습을 지켜본 친구들은 내 불심에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나는 항상 불법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군부대 봉사를 끝내고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 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진다. 그럴 때마다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부처님의 보시행을 마음 속에 큰 가르침으로 새기며,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하려고 굳게 결심한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



그림 · 이준석

남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

엔 이타적인 행위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봉사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도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이 나로 인해 도움을 받고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흡족한 마음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노년을 신세 한탄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로 보내고 있었을 텐데 부처님을 모시며 살다보니 항상 마음속에 무엇인가 꽉 들어찬 것 같아 삶이 풍요롭게 느껴진다.

앞으로 남은 희망이 있다면 고아원 같은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나가 공양을 지어주거나 청소를 해주는 봉사를 하며 그들에게 불법을 전해주면서 회향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다.

김말순(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아! 일타 큰스님

참선과 교학과 계율을 두루 통달하셨던 일타 큰스님의 일대기와 가족 41명의 출가기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태양을! 큰스님께서 살아 생전에 남기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과장됨이 없이 진솔하게 엮었습니다.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극적인 큰스님의 수행담을 읽다보면 기도 · 참선 · 경전공부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비보살 일타 큰스님이 함께 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신국판/ 값 5,000원

■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혼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신국판/ 값 5,0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신국판/ 값 5,000원

우룡 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구성〉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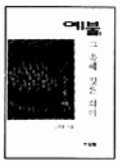
지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쉬운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집착·습 놓으면 계율 저절로 지켜져

오계 어기지 않고 사는 방법

문 선원에 몇 달 다니지도 않았는데 수계가 너무 받고 싶어 이번에 기초교육을 받고 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를 받고 나니 '계를 설하실 때 물으셨던 5가지 항목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 괜히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자신과 부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오계를 어기지 않고 평생동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계율을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단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관념으로 계율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생각을 다 놓고 욕심과 집착과 관습을 다 놓아버리게 된다면,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계율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닷물과 같고 허공과 같이 돼라, 바다에 별의 별 물이 다 들어가도 그냥 한 바다의 물로 돌아가고, 이런 물 저런 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젖는다. 어떤 거든지 다 젖는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돌로 보지 않기에, 일체를 내 아픔 같이 생각하고 내 몸 같이 공심으로써,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지 않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지계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 있는데,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참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참는 것은 참다운 인욕이 아니죠. 놓는 것이 인욕이에요. 그 자체를 놓는 것이 인욕입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하지 않고 놓으라고 그랬죠. 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찾는다면 둘이 되니까 그냥 놓아라, 너한테 보림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오계를 받고 돌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거를 놓는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요, 참답게 계를 지키는 겁니다.

하루속히 근본 보고싶은데…

문 저는 하루바삐 내 안의 근본을 보고 싶고 근본과 둘 아니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배움도 부족하고 남들처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어서 이 마음공부 하는 것이 이렇게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많이 됩니다. 마음공부를 잘 하려면 역시 머리가 좀 깨이고 배움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빨리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답 마음 공부는 머리가 나쁘고 좋고 그걸 따져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바깥의 환상만 보고서 자꾸 머리에다 주워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만합이 생기죠. 그리고 또, 오만한 것보다도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하고 자꾸 상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놈은 따라다니질 않거든요. 그저 해야 하는 한 가지만 붙든 채 바보같이 그냥 자기가 가는 길만 갈 뿐이거든요.

그러니 중심만 딱 지키고, 내 중심의 주처를 딱 지키고 그 주처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를 일념으로 지켜본다면 자기 주처가 나오게 됩니다. 이날까지 누가 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누가 나왔고 이날까지 해온 것이 누가 해왔고, 부모의 말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누가 해왔느냐 이겁니다. 각자 자기 그 주처를 빼놓고는 다 부속이에요.

그러니까 잘들 생각해서 빨리빨리들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급한 마음이 있걸랑은 주처에 모든 거를 몰록 놔버리면서 밀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놔버리는 과정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탁 하나가 의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내 말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 가도 해봐야 그걸 알 수 있겠지요?

어떤길 인도해 가르치시는지

문 부처님께서 마음이라는 당체를 가르치셨는데 마음에 의심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즉시 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 갖고 그거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즉시로 그렇다는 거를 인정해 주면 지식밖에 안되고 그 사람은 그걸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당해 들어 가지고 그 얘기가 내 다른 얘기가 아님을 알았을 때에는, 즉 일치됐을 때는 그것이 거짓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바깥 경계가 나인 줄 아는 보통의 사회 사람들은 그걸 모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스님께서는 어떤 길을 인도해서 그걸 알게 하십니까?

답 아주 세밀히 묻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스님들에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본래 이 자리도 공했거니와 나 자체도 공했고 전체가 다, 내가 하는 것마다 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을 잡고, 처음에 배울 때는 주인공을 잡지 않으면 도저히 허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이 열려질 때까지는 그 빗장을 쥐어라. 즉 말하자면 주인공을 쥐어라. 주인공을 쥐되 모든 걸 몰록 거기다 일임시켜 버리고 놔 버려라. 믿어라, 감사해라.' 이러고 나가죠.

그러고 나가는데, 그걸 바로 알아들으면 그대로 나가서 되는 거고, 직방 들어가서 '네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 그것을 올바로 알고 나가는 사람은 나중엔 주인공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없이 자기가 몰록 알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실하게 계단 없는 계단을 묵묵히 밟아갈 뿐인 것입니다. 지금 하고 가는 게 늦든 빠르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풀고 싶은데…

문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괜시리 미운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런 미운 아이의 얼굴만 봐도 미워지고 화가 나는 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아이를 미워하는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답 나는 얘기를 재밌게 못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난 가식으로 하고 싶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고 모두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하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생물에서부터 브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하면서 엇갈려서 되다보니까 어떠한 것도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전자에 그 사람에게 저렇게 밉게 보였던 시절이 있었겠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기까지 잘 웃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그러다가 여러분하고 둘 아니게 살다보니깐 될 수 있으면 그저 들 아닌 도리를 알려드리면 편리하게 자유권을 얻으실 텐데, 자유자재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생 동안 살다가 차원이 낮으면 짐승으로도 될 수 있고, 짐승이 사람으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생을 공부하면 편안하게 살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을 이 세상에서 고에 떨어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사람을 구하려면 이 모습으로 되고, 저 사람을 구하려면 저 모습으로 되고, 이걸 구하려면 이게 되고, 모습을 바꿔가면서 구제를 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거기서 차원이 더 높아지면 정말이지 선신으로서 어디 가든지 손색이 없고 모두를 이끌어 가는 대장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얕은 사람이나 평등하게 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수 없는 억겁을 거쳐오면서 어떤 거는 안 돼봤겠습니까? 또 어떤 일은 안 해봤겠습니까? 극치에 달해서 어떤 문제는 안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내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고, 내 슬픔과 같고, 또 내 배고픔과 같고, 모두가 내 도량에서 나 아님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또는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가 한 거니까 네가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다시 놓는 방법은, 이것이 말을 하자면 복잡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자기 영혼에 다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면세계에서, 화가 나고, 미운 사람 이쁜 사람, 뭐 증오하는 사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또는 화가 나면 '에이그, 죽어버리겠다'는 생각, 다 버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 생각,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때마다 거기다 다시 새로이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다시 입력을 하고 진실하게 믿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이 돼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가면서 제도를 해야 주위의 인연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모든 경계가 공부 재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고마워 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무조건, 미움도 이쁨도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려면 말입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 자기가 전자에 모를 때의 자기 모습, 아주 머저리 같을 때 나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게 자기니까. 그냥 보라고 하면 그게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모든 역경을 타고 넘어온 자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든 모르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언덕이라는 데가 뭐 다른 겁니까? 물질세계의 마음에서 정신계의 마음으로 차원이 오른다는 말이죠. 피안의 세계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세계가 피안의 세계죠. 그러니깐 무조건, 무(無)의 세계의 진의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오로지 한 군데다가, 불기둥 한 군데다 다 놓으면 그냥 불에 타버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림 · 최주현

참는게 아니라 놓는것이 참 인욕
마음공부 머리좋은 것과 상관없어

무심마저 놓아야 하는 이유

문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체를 놓아야 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무심마저도 놓아야 하기에 "놓고 또 놓고, 놓지 않음이 없을 때까지 놓아라."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머리로는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심이 부처라는 말도 있는데, 왜 그 무심마저도 놓아야 하는 것 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놓는 방법을 지금 세 가지로 비유했는데, 일체를 놓아서 나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 아는 것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남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 잘될 건가 못될 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그것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신통력을 다 놓아서 그 신통력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오신통에서 벗어나면 오신력이 됩니다. 그냥 무심으로써 역이 되는 거죠. 그럼 무심을 놓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놨을 때는 오신통에서도 벗어나는데, 거기에서도, 무심에서도 또 놔야 되거든요. 무심조차도 놔야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사유'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한데 합쳐보면 무슨 별성이라든지 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이 전부 나오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를 하고 있고, 뭐가 되어 있고, 뭐가 어떡하고 있고 이런 게 전부 이 법망으로 인해서 그냥 꽉 통신이 오는 거죠. 그렇게 통신이 오면서, 보는 것도 거울을 갖다가 놓고 보는 거와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놓는 게 세 가지입니다. 계단 없는 계단이 세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방대해요. 그런데 보는 대로 그냥 그것도 놓는 겁니다. 무심에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이고 들리면 많이들 그걸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그걸 놔야 됩니다. 그거를 놓지 않으면, 그 모두를 속속들이 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가다가 중지해 버리게 되고, 어쩌면 아주 잘못 나가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다 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몸부림 치듯 관하라' 하신 까닭

문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 놓고 관하여 보는 수행에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 스님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둘을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

답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몸부림 안 치게 생겼나? 아, 네놈으로 인해서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네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네놈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뭐 딴 놈이 거기 게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과거에도 그놈이 살았고 현재에도 그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제 놈이 한 거니까 제 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는 작업부터 해야 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밥도 안 해 놓고 배 부르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밥을 해서, 쌀을 다 씻어서 밥을 다 해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또 떠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떠먹을 때 맛을 알죠. 이건 해 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한 번 선의 칼을 뺀 것와 같이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냥 다시 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두.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네가 일을 저질러서 요렇게 살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네가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 형성시킨 거는 감사하지만 이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그냥 그저 제 놈한테다 제가 한 일들을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놔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를 못하니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내가 그런 소릴 자주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대로 해 나가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

☞ 20면으로 계속

기쁘든 언덕을 넘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밥도 안해놓고 배 부르려하면 안돼

☞ 19면에서 계속

고 살랍니까? 공부하는 것도 말끔히 씻어져야 만이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그렇게 해 보신다면 아마 잘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참나'면 보이는 나는?

문 일체를 주관하는 주인공이 참 나라면 보이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들고나는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서 하는데 나는 왜 나와서 이렇게 심부름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항상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압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법당에 올라가면 삼 배를 올리고, 또 급하면 일 배를 올릴 때에 둥글려서 올리고 둥글려서 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다닌다고 그래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다녀요. 법당에 들어가면 저 부처님이 내 모습과 둘이 아닌 것을 아시라고 선법가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진정코 믿는 곳에 딱 집어야 결정이 나는 거지, 딱 집지 않고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이게 보이는 데도 여러분이 계시고 보이지 않은 데도 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가 더 많다면 많죠.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다니면서 어떻게들 사세요? 내 주인공이라는 주장자 하나 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해 주고, 언짢은 일은 언짢은 일 대로 좋게 펴 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해 주고 살면 얼마나 편안해요? 원수 짓지도 않고 세세생생, 아니 끌간 데 없이 가도 '저거 내게 원수야.' 이러지도 않을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름해서 부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게 없는 그런 자체가 부처라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도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 아닌 나가 있으니까요. 나 아닌 나가 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만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체 화현을 가지고 있구요. 일체 화현의 도리를 가지고 있구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는 그저 응용하는 대로, 팔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다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절에서 말한다면 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따지고 보세요. 주인을 바깥으로 두었다면 시자 노릇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기는 시자로서 그 안 보이는 자기 주인의 심부름을 다 하죠. 그래서 모두 안목이 있죠. 예를 들어 '아, 이 사람이 정치에 나왔는데 좀 쓸만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벼워서 안되겠어. 그 값어치는 좀 못돼.' 이러고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다 도인이에요. 그냥 부처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혜로운 납득이, 공법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고 '아이, 맛있게 먹었어. 참 잘 먹었네.' 이러지만요. 그게 내가 먹은 게 아니라요, 모두 자기 역량대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순식간에, 먹으려고 생각을 해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이 쭉 있으면 여기서 집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집어먹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집어먹게 되면 여기서 소화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안에서는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할 말도 심부름해요. 말도 자기 말이 아니라 모두 거기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참 귀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부모의 은덕으로 몸을 빌어서 받고, 내가 이 귀한 원소 자체를, 자불(自佛)이라는 원소 자체, 그것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알았다.' 그 에너지의 한 방울에 의해서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한 덩어리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구에서 살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너무 써버려서 이제는 에너지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느니 뭐 어쩌느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못나서 그런 거예요. 보이는 차로만 살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운전수로 산다면요, 운전수와 보이는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이는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게끔 돼서 이익을 주고, 또 그 안 보이는 데서는 안 보이게끔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것이 절반 이상 넘는다고 할 수 있으니 보이는 몸과 안 보이는 몸 어떤 것을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몸 아닌 몸을 둘 아니게 체득해서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 다 유용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안보이는 나는 '佛性' 보이는 나는 '시자'

자기가 살아온대로 다음 소임 주어져

인간은 어디서 와 어디로 가나

문 제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문의 덩어리가 항시 떠나질 않고 또 제 주위의 온갖 어지러운 생각들이 멈추지 않아 누구에게라도 묻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은 것이 현재 저의 심정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저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양심의 소리와 바른 법을 깨달아서 도의 길로 강하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변덕스러운 마음속 번뇌를 조복시키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람되게 살 수 없다고 믿기에 잃어버린 저의 마음을 다시 찾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들이 제가 있기 이전의 근원으로 가게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고 또 제가 그것을 깨달은 후가 불교의 끝이 없는 끝인지 스님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답 배우들이 잠시 잠깐 자기의 배역을 맡아 가지고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하는데 거지로 소임을 맡았든지 임금의 배역을 맡았든지 상관없이 그 역할로 뽑힌 것만 좋아서 그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쾌히 응락하고 행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아마 내내 그냥 '너는 거지로 박혀서 살아라' 한다면 전부 꽁무니를 빼고 안 가겠지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거든요. 잠시 잠깐이니깐 이건 벌어먹고 살랴, 또 활악하랴, 이름을 가져야 되겠고, 모든 게 그렇죠. 꼭 말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활약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서 술 한잔을 마신다든가, 뭐 푹 쉰다든가 하면서 탁 털어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맡아야지 하는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마세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럼 어디로 가기 이전에 무엇을 하는가, 배우들과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도리를 '아, 원점에서 와서 원점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또다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오겠지.' 이 도리를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소임을 지금 맡았든지 겁이 나지를 않아요. 잠시 잠깐임을 알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길입니다. 이 쉬었다 가는 길에 부처님께서, "쉬었다 가는 교차로에서 네가 깨달아라."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도로아미타불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다시 형성이 돼서 이 세상에 나와서 또 그렇게 고비를 치루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팽팽하게 가지면서도 지혜롭고 폭이 넓게, 다 주고도 준 사이가 없이 다 내주라 이겁니다. 또 들여놓을 때는 들여놓는 사이 없이 다 들여야 합니다. 이 모두가 내가 조금 너그럽고 좀 더 지혜로우면 다 포용력 있게 질서를 지키고, 도의와 의리를 지키고 나와 너와 둘이 아니게 지킬 수 있고,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모두 내가 수 억겁 광년을 돌아올 때 무엇은 안됐겠고 어리석지 안았겠나 하는 것을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본다면 미우나 고우나 모두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다 해도 불쌍하고, 사람 개인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고 산 것이, 그것이 그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과거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 짊어진 가정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괜히 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환경에 따라서 내 부모 아님이 없고, '공동묘지에 가니까 남녀노소도 없고, 여자남자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늙었더라.'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지요. 하여튼 나는 그전부터 군더더기가 붙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나 못되나 그냥, 말을 더듬거리든 말았든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 뿐입니다. 남들이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은 못됩니다. 참 삶에 실천을 옮길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과 위빠사나 같은 수행인지

문 제가 알기로는 불교의 수행법에는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는 등등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화두 참선법과 위빠사나 수행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한다고 할 때의 관은 위빠사나 수행법에서의 일체를 지켜보는 것 즉, 걸을 때는 걷는 동작을 지켜보고, 일할 때는 일하는 주 동작을 지켜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그간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한다'는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관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저는 위빠사나 수행법대로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동작을 바라보고 홀로 조용한 시간에는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망상이 들면 '이것도 당신이야' 하면서 망상과 싸우려 하지 않고 관찰자 입장에서 망상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뿌리가 그냥 박혀 있듯이, 움쭉거리지 않고 있듯이, 나무의 이파리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 자체를 뿌리에다가 관하라는 거예요.

지켜볼 내가 따로 있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뿌리에다 놓고 관하라는 겁니다. 또 뿌리에다 놓고 만법을 활용하는 것도,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관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한 군데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그러한 것을 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신을 믿으라. 타의의 신을 믿으면 절대로 그것은 용납하지 않느니라."라고 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자신(自神)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니 '자(子)는 부(父)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 자와 부가 둘이 아니게끔 서로 상응하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서 이렇게도 나투고 저렇게도 나투면서 그렇게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지켜 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겁게 짐진 것을, 모든 걸 놔 버려라. 네 마음으로 짐을 지워놓고 무겁게 왜 짊어지고 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놔버리고 쉬어라. 그대로 돌아가면서 여여하니라." 이런 뜻을 우리가 새겨서 거름으로 알고 주춧돌로 알고 기둥으로 알고 참고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바로 이 생활이 종교요, 종교가 생활이라는 거지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왜
'라다크'를 꿈꾸는가?

작은 티베트 '라다크'
그 곳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이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 지음
연호택 옮김



이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원제 : A Journey in Ladakh)는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링포체(Thuksey R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이다. 글을 쓰기 전에 입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로 옮겼다. 지은이는 이 책을 쓸 때,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죽이고 링포체의 마음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생각과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저자 앤드류 하비는
인도 태생의 영국인 명상 수행가이자 시인이며 작가이다. 1952년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9살에 영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았다. 21살에 옥스퍼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역사학자이자 시인, 세익스피어 연구자로 천재성을 나타냈지만 틀에 박힌 영국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25살에 인도로 돌아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 살면서 파리, 독일, 뉴욕을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A5신 378쪽/ 값 12,0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온라인 서점 www.yosiamun.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직접 사찰
(인법당)운영
하시면서 수행 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충남 아산 온천 부근
011)701-0140

사찰 사무원 구 함
- 신심있는 여성 불자 1명 (초보자도 가능 함)

041)673-3222
673-1888

급 요망
은평구 응암 1동 34-19호 관음사
공양주 구함
▷ 불심이 돈독하고 연령은 55세~60세
011)230-5536
02)359-7317

조계종 미륵당 고불사
- 석조여래 약사대불 본당
- 서울교당 불지촌
- 기체험 기치료 인생상담

041)566-0358
02)3444-4376
역학, 선체조, 기공문도 모집
www.bulljichon.com

고급 보이차
廣雲貢餠 · 七子鐵餠
外 각종 보이차 전문
017)406-6682

각종 염불 해드립니다
49재, 각종 천도재, 각종 점안, 각종 불공 및 기도, 초청만 해주시면 지극 정성으로 해드리겠습니다.
011)9596-4338
無有스님 합장

오잠법수행 영가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진정한 영가천도 3, 7, 21일
수행으로 완치 또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 최소한의
성금으로 된 진정한 수행자로 위한 길
017)859-1389

흑단(천연목)염주를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천주, 백팔주, 단주, 합장주 =
덕 림 산 방
◇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 2리 552
◇ 연락처 : 062)337-4879
011)610-4879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강릉
033)648-4579
018)560-1080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60세 미만
031)885-0168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2)359-7317

류마티스 관절염과 심장병
[판막정,협심증,심근경색,언급을 요하는 중증 신장병]
051)529-9870
011)567-9870

원조농산(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차 (건초 600g) 4인가족 1달분 4만원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011)479-0633
대리점 모 집

금강선원 불사 안내
다음전과 시민선방 불사에 도움을 주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혼재 시민선방은 공사중에 있으며 대웅전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자금부족으로 중단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어법한 도량을 만들기위한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원하며 특히 2천만원 이상 시주하신 불자님은 평생 절에서 대공덕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 시주금에 대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무등광 입금 : 농협 457028-51-036691 예금주 금강선원
· 문의전화 : 041-857-0752, 017)433-5078
충남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243번지
국사봉 금강선원 주지 법성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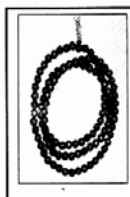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 기도실 행자스님모십니다.
- 공양주나 함께 사실 보살님 찾습니다.
- 기도하실 처사님도 찾습니다.

054)632-3184
011)561-6644

법당 경리구함
- 인원 : 2~3명
- 보수 : 70만원

거재도 노자산 혜양사
055)633-2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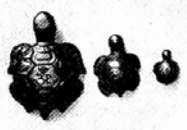
벼락맞은 벽조목 염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단주,인감도장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시험합격,결혼성취,부부화합,사업번창,건강재차,매매,사고예방,취업,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주십시요.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 011)9585-4908
염주 大 12만원,中 6만원 단주 6만원, 인감 5만원
농협703088-52-037905 이민택

효도상품 - 부모님께 건강을 찾아드리세요!
木목醋초 수액원기시트 의약품 외 판매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옥,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악몽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중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불쾌감이 없어져 몸이 기분합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소원이 성취되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지리산에서 600년된 神木 진짜 벼락을 세번이나 맞은 영험이 있는 보물중에 보물
염주 6만원 단주 5만원 인감도장 5만원 거북 大 5만원
수명장수, 결혼성혼 ※ 학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혼, 가정화합, 사업번창, 건강쾌차, 매매, 사고예방 간절한 한가지 소원이 있는 분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 집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진 행운의 벽조목!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011-9585-4908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국내최초 태아 영가 도량인 구담사에서는 미처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부모 형제에게 원결이 되어 무주고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천도재 지내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매년 3월 5일, 9월 5일 (양력 수시접수)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031)533-2855

♣ 보 리 수 ♣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인연을 바랍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1502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임오년 입춘 삼재부 다라니 보급안내



소승이 수십년간 다라니부 사경으로 나누어 지닌 보들이 가피를 얻어, 금번 임오년 입춘을 맞이하여 삼재 소멸부 다라니를 각사찰 주지스님께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액파 달마스님(13×15)도 경영으로 조성하여 드립니다.
▸ 주문시 : 5백장, 1천장...(1장당 천 5백원)
• 문의전화 : 031)334-0321 / 018)572-2016
• 온라인 우체국 : 102301-06-005928 예금주 박호재
※ 경영으로 손수쓰는 관계로 다라니 보급에 한정이 되었으니 미리 신청바랍니다
다 라 니 수 호 회

사찰(터) 안내
- 위치 : 하동군 정양면 서리 836-1 외 10필지 (지리산)
- 평수 : 35,750평 [사찰 창건 적지]
- 가액 : 2억 2천만원(절충가능)

011)885-8353, 011)735-8353

탈종공고취소
• 사찰명 : 금륜정사
• 법 명 : 덕현
• 주 소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 2리 561-10번지
현대불교 10. 3일字로 공고한 "조계종 탈종"을 취하함을 공고합니다.
2001. 12. 26

절에서 사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제주도) 40~50세
064)713-3888
011)699-4842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상귀리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찌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찌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 연주를 듣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사앞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송창연주(법회 · 산사 음악회 · 결혼식)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7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산 113-1(지리산 견불) 법화사 뒷산
- 임야 : 일만 오천평
- 특징 : 신라시대 견불사 터
- 가액 : 6천만원

054)278-1677
016)522-097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분당구 구미동
- 법당 : 100평
- 보증금 6천만원 월 200만원
- 시설비 일체 완비
- 방 3개
- 법회 즉시 가능
- 특징 : 주차장 50대 주차가능

011)707-555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대곡아파트 단지 입구)
- 3층건물 중 2층(40평)
- 시설 : 석기모니부처님, 양대보살 108불, 지장, 산중, 주불 (요사채, 방 2칸)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016)874-3569
(맡아서 운영하실 스님도 환영)

사찰(권),절터 안내 알선 전문
▸절 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북면 영남알프스 정정한 계곡전 5,000평 →가액 1억 5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리 소주리 터 1,500평 →가액 7,500만원
▸절, 토굴◂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사 1,000평 - 1억 1천만원
• 경북 영천시 사장면 ○○암 150평 - 5,000만원
• 양도를 원하시는 분 즉시 전화주세요. 절대보안유지
현대풍수부동산써브
018-563-9575
(www.pungsuserve.com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다도명상법 강좌
- 茶에 대한 기본교육(차마시는 법등)
- 차를 통한 명상법 강의
- 1박 2일, 2박 3일 과정
- 여행+교육(숙식제공) • 대상제한 없음

055)883-9321
지리산 다도학당 (영목대원)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근교
- 대 지 : 900평
- 법 당 : 40평(목재)
- 요 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산세수려하고 계곡 좋음

※ 사회복지 법인 (실버타운) 및 서울소재 근사찰 인수할 분
※ 인수자금 : 8억필요
• 기타사항은 전화문의 요망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전포동 부산전철 역
- 3층건물 3층 약 120평
- 법당 70평 외 방 5개 (살림방 및 공양간 시설 일체 완비)
- 불교대학 및 강좌시설 가능
- 부처님만 모시면 불공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상담 후 절충

011)843-5672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 용도 : 사찰 및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관악산 사당역 부근
- 자연녹지 주거지역
- 가액 : 평당 25만원

011)241-0408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 1동
- 건물 : 4층 건물 중 2층 지장사
- 평수 : 85평
- 법당, 주지실, 종무실, 선방, 주방, 창고 1개(배란다 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 10불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에어콘, 주지실, 법당, 주방용품 일체 보시함
- 스님 급한 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500만원 월 75만원 권리금 4,500만원 절충가능함

017)737-451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근교
- 법당, 삼존불, 지장 108불 교통 및 조건 최적
- 평수 45평
- 큰방 2개, 대형 응접실, 주방
- 부산 포교적지, 사원시설 주차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800만원

011)563-4454
051)552-4454

사찰(급) 안내
- 위치 : 광주시내 중심가 교통요지, 등립산 중턱
- 2층 법당, 1층 유치원, 요사채, 천불 모시고 있음
- 대지 : 330평 • 가액 : 6억 (절충가)
- 전세도 가능

011)633-8450
062)368-8450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부 지 : 790평
- 가 액 : 6억 4천

- 위치 : 수원
- 법 당 : 15평
- 요 사 : 35평
- 부 지 : 310평
- 가 액 : 3억 5천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 당 : 27평
- 요 사 : 30평
- 부 지 : 230평
- 가 액 : 2억 8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계명산
- 대지 : 250평
- 법당 : 30평, 2층 정자 30평 (요사채겸) - 조립식
- 가액 : 임대료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1800만원
- 특징 : 교통편리, 장승확보(다량) 법당안 그림 100여점(달마그림)

043)847-25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역곡 남부역 앞 3분거리
- 법당 : 삼존불, 25평, 방 2개(요사채)
- 보증금 · 권리금 : 1,300만원
- 월세 : 35만원
- 도로변에 위치

032)346-5527
017)232-3389

사찰 안내
- 부지 총 : 4100평 토목공사 완료 약 1000평(종교부지) 조경완료 도로 작업 중
- 특징 : 영동고속도로에서 3km인접한 지점에 만가가 없고 1급수 계곡이 흐르고 벼락바위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청정도량 임 산중같은 아늑하고 포근한 지역임
- 가액 : 2억 3천만원

011)321-0194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 건물 4동(관음전, 요사채 등) 평수 42평
- 건물 등기 있음
- 집수리 완료, 입식부엌 임
- 가액 : 천만원

043)872-9371
011)759-0377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 벽화 전문
◇ 칠불당 괘불당 팔상당 후불당 칠성당 신중당 8금강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천왕탱 나찬탱(오백나한) 신선탱 용왕탱 독성탱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TEL : 041)541-3545 H · P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2000여장을 보실 수 있읍니다)
불 모 오 재 택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구미 시내
- 부지 : 사용평수 150평
- 법당, 요사채 2칸 40평
- 석탑, 일주문, 공양간 별도

- 주위 아파트 지역 큰도로변 100m 주변 개발지역 임
- 공원입구로 등산, 산책통로 길
- 가액 : 2억 5천만원 (현 대지 시가에 해당되며 절충 가능)

053)256-0443

포교당안내
- 위치 : 분당구 구미동
- 법당 : 100평
- 보증금 6천만원 월 200만원
- 시설비 일체완비, 방 3개
- 법회즉시 가능
- 특징 : 주차장 50대 주차가능

011)707-555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백량산
- 평수 : 49평 방 3개, 주방 1개(10평), 삼존불 완성
- 가액 : 권리금 1,400만원 전세 1,500만원
주차시설 완비

016)836-266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실사용 : 150평
- 건평 : 30평 (법당1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7천만원
- 특징 : 교통편리, 포교당으로 적합

055)852-4130

인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 가액 : 전세 연 150만원
- 시설비 : 절충

054)976-2248

고질적인 신병 완전 퇴치!
육도윤해 중 축생도(뱀, 개구리, 호랑이, 공작, 개등) 삼라만상 온갖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내 부모 형재자식 아닌것이 없음을 배우고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 연락바람. (인과응보 공부)
▷ 인천
011)9147-9303 · 032)519-1086
심원사

일주문



호국비룡사에 금일봉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21일 비룡부대와 호국비룡사를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군불교발전을 위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관악구청장 감사장 받아

성초 진각종 남부심인당 주교는 관악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4일 김희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교회서 예수탄생 축하법문

정각 부산 미륭사 주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24일 도시빈민교회와 시온중앙감리교회에서 예수탄생을 축하하는 법문을 했다.



소년가장 · 노인에 성금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14일 동지맞이 이웃돕기 하루찻집을 열고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노인 30명에게 쌀과 성금을 전달했다.



남구노인회관 송년행사

종선 울산 남구노인복지회관 관장은 2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행사를 갖고 공로상 시상식을 갖고 문화 공연을 펼쳤다.



교육방송서 '자비' 강연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교육방송 연말연시 특집프로그램 '사랑과 평화, 자비의 메시지'에 출연했다. 1월 2~3일 오전 10시 방송.



독거노인 등에 쌀 전달

법경 서울 능인정사 주지는 22일 서울 성동구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95가구에 쌀 95포대를 전달했다.



생명나눔회에 후원금

보광 소달도예연구소 소장은 17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선 도예전' 판매수익금을 생명나눔실천회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외국기업의날 동탑훈장

명호근 쌍용양회 사장은 18일 한국외국기업협회 주최 제1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부산구치소에 경전 전달

박수관 부산 범어사 신도회 회장은 연말을 맞아 부산구치소에 불교생활경전과 교양책자 200권을 기증했다.

인도북부 불교개종물결 확산



이지은 통신원
인도 델리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델리를 중심으로 한 북인도 지방 곳곳에서 힌두교에서 불교로의 개종식이 잇달아 거행되고 있다.

인도 현지 신문들은 최근 두세달 사이, 최소 네건의 불교 개종에 대한 보도를 함으로써 지난 11월 4일 델리에서 거행되었던 대규모 개종 행사를 전후해 개종의 열기가 높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 개종식이 열린 곳은 대부분 우따르 쁘라데쉬(Uttar Pradesh)주와 비하르(Bihar)주를 비롯한 북인도 일대여서 불교의 바람이 마하라슈트라를 넘어서서 북인도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현지 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에는 성지 보드가야 인근의 가야에서 200여명의 달리뜨(불가촉천민 계급)가 불교에 귀의했으며, 깐뿌르(Kanpur)에서는 2000여명이 참석한 개종식이, 그리고 남인도의 뱅갈로(Bangalore)에도 다소 정치성향을 띤 소규모 개종이 있었다. 또한 16일 우따르 쁘라데쉬주의 우라이(Urai) 마을에서는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와 오계 독송을 시작으로 성대한 개종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인도 북부지방에서도 힌두교도들의 불교로의 개종식이 잇달아 열리는 등 불교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모든 불자들을 돕는 모임(TBMSG)' 참선센터에서 입정중인 불자들.

힌두교 대상 포교역점

매회 500~2000여 불자탄생

이 행사를 주최한 로드붓다클럽의 전국대표인 우디뜨 라즈씨는 신문에 보도된 것 이외도 11월 4일 델리의 대 개종 이후 우따르 쁘라데쉬주의 불란드 샤하르(Buland Shahar), 샤하바드(Shahabad), 데이리(Deiry)와 비하르주의 빠뜨나(Patna), 그리고 델리에서도 각각 개종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들 개종 행사에서는 매번 500여명에서 2000명 사이의 새로운 불자들이 탄생했다. 또한 로드붓다클럽은 23일 빠뜨나에서도 개종식을 갖는 등 북인도 지방의 개종의 물결은 당분간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드가야에서는 현지의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내년 부처님 오신날에 대규모의 개종행사를 갖고자 인근 지역의 힌두교도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세계 힌두교도 연맹을 비롯한 힌두원리주의 단체들의 조직적인 방해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보드가야와 깐뿌르 등지에서는 불교단체들과 지속적이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어사 금정복지관 운영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맡아



◇부산 금정복지관 전경.

범어사의 복지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가 금정복지관과 부설 금정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자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가 지난 7일 금정구청과 위탁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대지 13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를 갖춘 금정복지관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과 서원을 사회복지증진을 통해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범어사는 직업훈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문제 등 25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태고종 종권수호위 상설화

분규사찰 문제등 해결

태고종은 지난 83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종권수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총무원에 '한국불교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위원장에 대운스님(전 총무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상임위원장)에는 자월스님(제도개혁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이 임명됐다.

태고종 종권수호위는 조계종과의 분규사찰 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함께 태고종의 종권을 확립하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펴나간다. 한편 태고종 종권수호위는 조계종이 지난 10월 신촌 봉원사의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와 대표자 이름을 '이준복'으로 명의 변경한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이경숙 기자

종교단체후원 쇼핑몰 개설

다산컴퓨터, 수익 70% 기부

진주불교회관, 대한감로심장회 등 경남 진주지역 종교 ·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인터넷쇼핑몰이 개설됐다.

(주)다산컴퓨터는 15일 진주지역 7개 시민단체들과 진주지역 시민단체 후원 인터넷쇼핑몰(www.gibumall.com) 협정식'을 갖고 이날부터 시민들이 이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이윤 중 70%를 이들 단체에 기부형식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中 에메랄드불상 조성

중국은 무게 7t, 높이 2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메랄드 불상을 조성, 동북부 선양(瀋陽)시가 이 불상을 유치하는 영예를 곧 안게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 불상은 선양시 전통 중심가에 있는 추이화러우 보석상에 안치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불국토 그리며 송구영신…



대한불교 약사선원장 곽태일법사(사진)가 '달마도'를 본지에 보내왔다. 곽법사가 그린 '달마'는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특선, 서법예술대전 입선, 일본 동경국제 서화대전 준대상 등 각 대회에서 수상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지원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8일 여성노숙자 시설인 화엄동산(소장 김기혜 사진왼쪽)을 방문, 3백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우리는선우'에서 운영하는 화엄동산에 이어, 자양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서울), 함께하는 마을(울산), 보리수 마을(대구), 육군 제24사단 70연대 호국적성사 등에도 지원금을 전달했다.



동국학원 합동 수계 대법회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은 17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동국학원 초 · 중 · 고등학교 합동 수계대법회'를 가졌다. 녹원 스님이 전계사로, 도원 스님(동국학원 이사)이 교수사로 진행된 수계대법회에는 동국학원 산하 은석초등학교, 동대부중 · 고, 명성여중 · 고 학생 874명과 학부모 40명 등 모두 914명이 계를 받았다.



과천 공불련 법장스님 초청 송년법회

과천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는 14일 청사 3,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초청 송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건설교통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5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및 가족 2백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天蕊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2201-3333

니르바나님은 내 맘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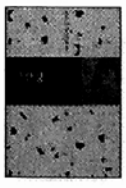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1890~1981)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이 책은 다석사상에 입각하여 불교의 대표적 경전 '반야심경'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풀이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석의 종교다원주의적 관점과 비교종교학적 관점하에 반야심경을 「성경」 등과 비교해 해설을 붙여 놓았다. 저자는 각자 맘속에 있는 니르바나님을 깨닫고 그것에 의지해 '얼나'(法身, 영적인 나)를 찾아 참다운 자아에 이를 때 절대세계와 하나가 되어 생사(生死)를 넘어서는 참다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박영호 지음 / 408면 / 15,000원 / 양장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버락치듯 깨닫는 지혜의 경전인 금강경을 다석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고 알기 쉽게 풀이했다.
박영호 지음 / 296면 / 13,000원



노자(빛으로 쓴 얼의 노래)
이광수, 최남선, 김교신까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다석의 노자 「도덕경」 풀이.
박영호 역 · 저 / 408면 / 12,000원



장자(자유에 이르는 길)
어렵지만 꼭 읽어야 할 보배로운 경전, 장자의 웅장하고 심오한 사상을 명쾌하게 풀이했다.
박영호 역 · 저 / 463면 / 12,000원

두레의 多夕 사상전집
1 2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하) 3 다석 류영모가 본 예수와 기독교 4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5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6 다석사상으로 본 유교(근간) 7 다석 류영모 어록(근간) 8 다석 류영모 강의록(근간)

도서출판 두레 전화 : (02)702-2119 팩스 : (02)715-9420

'명상' 공부하는 선생님들

파라미타 내년 1월 지도자과정 개설

부산교육청 교원 방학연수프로 채택

"호흡법 · 요가 등 이론과 실제 체험"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과 정서 순화를 목적으로 수업전에 실시되는 '5분 명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명상법이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에 체택돼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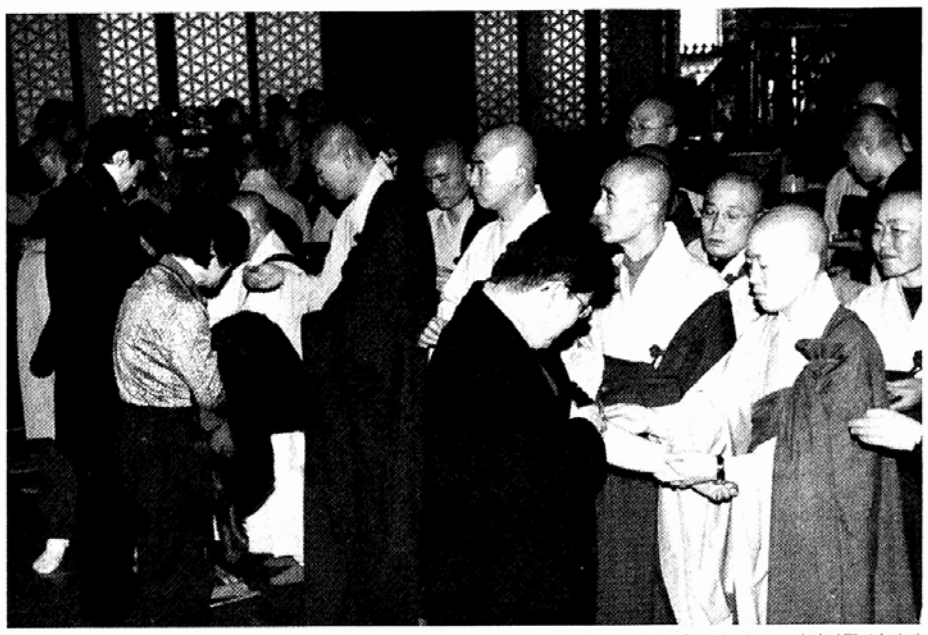
파라미타 부산지부(총재 성오)가 부산시교육청이 초 · 중 ·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명상전문지도자과정을 신청, 연수점수를 인정받는 연수 프로그램이 체택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과 부산인근지역 초 · 중 · 고교 교사 100여명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여여선원에서 명상법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게 된다.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 내용을 교육청이 선정해 실시하는 직무연수에 교계단체가 명상으로 연수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이한용씨는 "명상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었다"며 "연수를 마친 교사들이 명상 특활이나 그룹 활동 등을 통해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한다면 연수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라미타 부산지부는 1월 직무연수의 원활한 진행과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11월 둘째주 파라미타 지도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명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열렸던 명상과정에 참여했던 이욱태 해동중 교법사는 "명상법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참선법을 · 지도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호흡법과 명상법을 전일제 특활에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4시간으로 짜여진 명상전문지도자과정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일 동안 진행되며 호흡법, 명상법, 요가 등의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체험한다. 7년간 인도의 여러 명상학교에서 수학하고 춘해대학 요가응용학과에서 지도하고 있는 이선씨를 강사로 초빙, 횡경막 호흡, 아사나와 교호흡, 차크라를 느끼는 아사나, 우주의 근본원리, 명상과 진동, 요가 니드라, 음악 명상, 명상과 진동, 긴장과 이완 등 여러 종류의 명상법을 익히게 된다. 또한 정장웅 부산정보대 교수, 김석조 파라미타 지회장, 박문현 동의대 교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이 사교육의 문제점, 현대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도 연다. 윤나영 파라미타 총무간사는 "호흡과 명상은 참선의 전단계로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번 직무연수의 성과를 토대로 명상과 참선법을 활용한 연수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부산=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4150명 수계 조계종 한마음선원은 16일 대법당에서 제13회 신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을 계사로 한 이번 수계법회에는 안양 본원과 15개 지원에서 4150명이 동참해 수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서 여법하게 살 것을 서원했다. 오종욱 기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종교인 5000여명은 20일 부산 가야성당에서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아프간 난민돕기 성금을 모금했다.

부산 종교인들 '평화정착' 기도

20일 아프간돕기 음악회

크리스마스를 5일 앞둔 20일 부산 가야성당에는 스님, 신부, 목사, 교무, 수녀 등이 모두 마음을 모아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성당을 가득 채운 각 종교의 일반 신도들의 합장한 손과 감은 두 눈에도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종교인대화아카데미(공동대표 정여스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성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종교인대화아카데미 공동대표 김상훈 목사, 허성 가야성당 주임신부, 이성택 원불교 부산교구장을 비롯 5백 여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기도회에 이어 열린 아프카니스탄 난민 돕기 작은 음악회에서는 불교연합합창단, 천주교 가야성당 성가대, 삼소회 회원인 지연스님, 이마리아나수녀, 임영철 교무, 소프라노 김윤경 등이 출연해 찬송가와 찬불가, 오르간 독주, 가곡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종교인대화아카데미는 이날 모금된 성금을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돕는데 전달하고 앞으로도 종교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울산지역 성직자 봉사단체 만든다

종교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종교화합의 분위기가 움트고 있다. 11일 울산지역의 스님과 목사, 신부 등은 내원암(주지 종선)에서 모임을 갖고 성직자 봉사단체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1월 21일 통도사를 방문할 계획인 이 봉사모임에는 울산 새생명교회 한기양 목사, 성민교회 김영순 목사, 울산 시민교회 이종관 목사, 울산 덕신 제일교회 조형래 목사, 부신주례성당 조동성 신부, 성공회 동래성당 박장수 신부, 용호동 성당 김동규신부 등이 회원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북한산 '불교·생태체험 코스' 마련

서울시 월드컵 준비

'서울 역사문화관광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레저는 여의도공원 주위로, 현대도시문화의 활기는 강남 코엑스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6일 내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시내를 이같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개발을 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1월 중순께 한국관광연구원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서울시 관광개발계획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속의 자연공원인 북한산 국립공원과 도봉산 등의 북부지역은 생태관광 지역으로 개발한다. 특히 '산악자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 북한산 트레킹 및 산악자전거 등반, 북한산내 전통사찰의 발우공양, 다도, 참선 등과 같은 한국 불교문화 등을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

스님 쉼터 '기로의 집' 개원

금강선원, 청량리에

불교승가복지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작은 쉼터 '기로의 집' 개원법회가 25일 봉행됐다.

'기로의 집'은 병들어 돌보는 이가 없거나 상좌가 없는 스님 등 의지할 곳 없는 스님들을 입주시켜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한국불교금강선원(원장 한정섭)이 마련했다.

서울 청량리 1동에 소재한 '기로의 집'은 가로 1층, 지상 4층 연건평 2백15평 규모로 1층에 사무실, 2층에 법당이 들어서고, 3~4층에 스님들이 입주하게 된다. (02)969-2410 오종욱 기자

"동국대 책임 묻겠다"

조계종 종관위, 횡령관련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18일 진상조사소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가 교무회의 성명서를 통해 종법에 근거한 종단 위계와 질서를 일거에 무시하는 반종단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학교당국에 대하여 제반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후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어 황영수 동국대 사무처장을 불러, △법인세 환급금의 학교예산서상 내역 △LA로얄대 인수 시 자금운용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1월 8일 오전 10시 동국대 총장과 기획예산처장, 11시 법인사무처 총무팀장, 법인감사 3인을 소환키로 결의했다.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는 이날 '동국학원 횡령사고에 대한 입장2'를 발표하고 "피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감독기관을 통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며 "학교당국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항변하기 위하여 형식논리에 기초한 극단적인 방어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감독기관에 대한 '사과' '민 · 형사상의 법적대응'을 운운하며 종립학교로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원우 기자

상주 냉림복지관 자전거 학교 '성황'

경북 상주냉림사회복지관(관장 수봉스님, 남장사 주지)이 개설한 '자전거학교'는 지난달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주 지역 초 · 중생 1천797명이 지원한 가운데, 자전거 안전 및 이론교육, 실기와 시험을 실시해 20일 최종 합격자 440명에게 운전면허증을 발부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이번 '자전거학교'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과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됐다.

김철우 기자

도와주세요

베트남서 온 산업연수생 '재생불량성 빈혈' 생사기로



1997년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온 베트남 하노이 출신의 청년 리 반친(28, 남).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입원해 있는 그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모든 수치가 정상인 보다 1/10에서 1/500 이하로 떨어져 위험한 상태다.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골수이식수술을 받거나 골수생성주사를 맞는 길밖에 없지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헌혈증과 수술비 등 도움이 절실하다. 문의=016-207-8017(정진우), 후원계좌 : 조흥은행 877-06-008223 (예금주 : 외국인노동자센터)

김재경 기자

산사서도 불교TV 시청가능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

케이블 설치의 어려움으로 불교 TV를 시청할 수 없었던 산중 사찰에서도 이제 위성을 통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KBS와 MBCS 등 지상파 방송을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 지역에서도 불교 TV와 함께 깨끗한 화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위성방송의 본방송을 앞두고 있는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스카이 라이프)는 3일부터 예약 가입자 모집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 20만 2천원 하는 위성 수신기를 6만9천원에 할인해 주며, 가입비와 설치비는 물론 1개월 시청료도 면제해 준다. 특히 불교TV는 고유의 모집자 코드번호(S00036)를 지정해 놓고 있다.

한편 위성방송 시청료는 140여개 전 채널 시청시에는 월 1만8천원이며, 불교 TV를 비롯해 32개 채널과 오디오 채널 10개 시청시에는 월 8천원을 받는다. (02)3270-3366

김주일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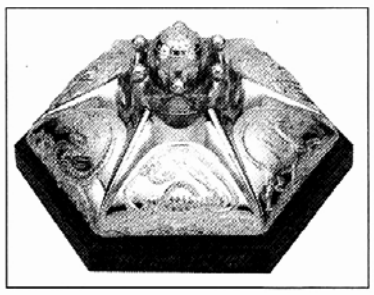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한가지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옛부터 금은보화와 육방수호신장(守護神將)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습니다. 명당육氣방에 각인된 좌청용(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 천하(天下) 지하대장(地下大將)의 육방수호신장(六方守護神將)이 모든액운으로 부터 항상 지켜 줄것이며 소원성취 안전운행 사업흥왕 불화방지 가내화합 시험합격 악귀퇴치 극락왕생 선신수호 삼재예방 관재소멸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에 만복(萬福)을 가져다 주며 사업의 성공과 아울러 천지(天地)간의 좋은 氣를 받아 사기(邪氣)를 막아주고 자손만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사형통 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주지스님 친견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어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삼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요.

※ 종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일본지사 : 06-6741-1923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2호 2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혹육 氣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합동납골묘 전용 강력한 3천 카우스 25만원



◇무량 자비심으로 사바세계를 바라보는 부석사

'죄지은 자' 감쌀때 세상 바로 서

감성으로 보는 절

<끝>사바를 안은 극락 - 부석사

사람마다 다 별명이 있게 마련이지만, 나는 별로 별명이 붙지 않는 사람이었다. 별명이 붙는 사람은 좀 뭔가 특이한 데가 있거나, 또는 대중적(?)인 인기가 있거나, 어딘가 만만한 데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나는 어떤 유별난 데도 없거니와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치도 않아 좀처럼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풍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내 성격은 좀 깐깐했다. 다만 학생 때 별명이 있었는데, 그때 별명이 '깐디' 였다. 작달막한 키에 깡마르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외모가 간디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성격이 워낙 깐깐해서 그렇게 불린 것이다. 사실 난 예전엔 정말 정확하게 틀림없이, 그렇게 촘촘하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긍지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그릇된 마음의 틀을 깨치기 시작하게 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참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서부터였다. 말하자면 난 늦게 철이 들게 되었고, 이 사회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 '죄' 라고 하는 것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었다. '죄' ~, 과연 무엇이 죄일까? 민법, 형법, 소위 '사회' 라고 하는 틀이 만든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이 사회에서 '삶' 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종교인일수록, 스스로 죄 없이 떳떳이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 를 포용하지 못하고, 그러고 남의 잘못을 탓만 하고,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 의 자세일까?

남의 죄 용서 못하고 탓하고 버리는 게 올바른 삶의 자세일까

역시 오래 전 일이었다. 그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여자였다. 혼기를 훨씬 지나서까지 열심히 일하며 한때 잘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신랑감을 데려 왔는데, 참하게 생기긴 했지만 남자가 좀, 나처럼(?) 암전하기만 했지 적극성이 없어 보였다. 이 사회에선 착한 사람이 처자 먹여 살리기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나는 좀 걱정스러웠으나, 내가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니어서 축하만 해주었다.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파죽음(?)이 돼 인사를 온 그들을 보고 난 방정맞은 생각이 자꾸 들어 내심 어쩔 줄 몰랐다.

그러던 그가 정말 불행해지고 말았다. 신랑과 그동안 번 돈을 몽땅 털어 멋진 의상점을 냈는데, 그 가게를 돈 많은 건물주에 빼앗기고 몇 개월 만에 빈털터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 생각했던 대로(!) 무능한 신랑은 속수무책이고, 신부는 천지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으나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춘천에서 큰 회사를 하여 부자로 사는 그의 오빠는, 인생은 고생을 하며 저 스스로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개똥철학(?)을 늘어놓으며 한 푼도 도와주지를 않았다. 결국 그들은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집에서도 쫓겨나 먼 시골 외딴 곳에 몇 푼 안 되는 사글세 방 하나를 가까스로 얻어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했다. 그는 나만 보면 소주잔을 앞에 놓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누가 이를 보고 '죄 있는 자' 라 손가락질하며, 그를 죄인이라 하며 고개를 돌릴 것이며, 그를 죄인이라 하여 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배정한 '사회의 법' 이란 잣대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는 결국 그 뒤 그 잣대에 의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그를 면회 갈 때 마다 그는 '아기' 걱정을 했지만 전처럼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 대신 내가 그의 손을 꼬옥 쥐고, 내 눈물 몇 방울을 그의 손등에 떨구어 놓고 오는 수 밖엔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깨달았다. 이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 깐깐한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기 보다는, '죄짓는 자' 를 감싸주는 무량자비심이 이 사회를 지키고 기름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을.

부석사는 내가 무척 좋아하는 절이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 때문이 아니다. 극락세계에서 사바세계를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끓어오르는 무량자비심으로 세상에 화신불로 몸을 드러내시는 무량광의 아미타불이 내 마음속에 꽉 차오르기 때문이다. 극락은 뭘까? 괴로움과 죄에 가득한 사바세계를 바다보다 더 큰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극락이 아닐까? 그것이 이 삶을 벗어나는 길 아닌가?

어떤 사람이 말한다.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 왜냐하면 아픔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지, 어떤 어른이 즈용히 타이른다. 아니, 부주이안(不住二岸)일세.

전생(사진작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부처님 가르침 대중속에 심다

캠페인 결산

우리글 대장경 시주 바람

전산화로 세계포교 추진

본지(本紙)가 동국역경원과 공동으로 전개한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연중 캠페인은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였다.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후원한 이 캠페인은 본지 지면과 불교텔레비전 광고방송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됐다. 37년간의 대작불사이자 불자들의 숙원이었던 한글대장경 완간을 계기로 한글대장경을 보급하고 대장경 읽기신행을 확산시키는데 이번 캠페인은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봉을 듣고 있다.

대장경 봉안불사 바람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하는 '대장경 봉안 불사' 형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점은 이 캠페인의 괄목할 성과. 안성도피안사, 군산 관음사, 대구 용화사를 비롯한 사찰에서 신도 한 명 한 명이 참여하는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가 마무리 되었고 10여 곳의 다른 사찰에서도 현재 대장경 불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한글대장경 이해넓혀

본지 24면에 마련된 캠페인 코너를 통해 한글대장경 가운데 주요 경전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 기사를 제공, 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동국역경원이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역경불사 회향 대법회를 계기로 한글대장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장경이 으뜸 시주

평소 존경하던 스님에게 한글대장경을 시주하는 불자들도 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글대장경을 시주하는 경우는 드러나지 않지만 몇 명의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한글대장경을 스님에게 시주하고자 캠페인에 동참하는 예가 늘고 있다. 양평 명복사의 경우 해제 철에 이 절에 와서 공부를 하는 스님을 위해 10여명의 불자들이 회비제로 비용을 마련해 한글대장경을 시주했다.

전산화로 열기 이어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의 완간에 이어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간다. 대장경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어디서나 한글대장경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현실화 되는 것. 본지와 역경원은 전산화 불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이 캠페인의 정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한글대장경 모시는 사찰·가정 늘고 있습니다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이룩한 대작불사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법보 한글대장경을 봉안 하는 사찰도 늘고 있으며 가정에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불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사찰이 '1불자 1권 봉안불사' 를 추진해 한글대장경을 모셨으며 현재도 이 불사는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한통화면 봉안불사 O·K"

◇상담내용
◆1불자 1권 봉안불사
◆대장경 법보시안내
◆화주 권선 안내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 가입으로 한글대



장경 봉안신도님들이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에 가입하시면 한글대장경은 물론 장경각까지 돈 안들이고 봉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장경각 보급 불사안내 문의
전화 737-8881, 722-4162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시공된연등 용▶
전선 케이블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염가등 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육각등



공단등



신제품 종 등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자욱 중생을 구제하고 어업과 고통을 영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 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만 복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 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만월등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